

K O R E A

W O O D

2024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K O R E A W O O D D E S I G N A W A R D S

D E S I G N

A W A R D S

K O R E A

W O O D

2024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K O R E A W O O D D E S I G N A W A R D S

D E S I G N

A W A R D S

발 간 사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올해도 어김없이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맘때쯤이면 공모전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목조건축물을 담은 작품집을 발간하고, 수상작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전시회와 시상식을 진행하면서 목조건축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미래를 가늠해 보곤 합니다.

올해 22회째를 맞는 '2024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며, (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명실공히 목조건축 분야의 대표적인 공모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등 정부 주요 부처와 지자체, 건축사 3개 단체, 임업 관련 공공기관의 시상으로 공모전의 권위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에는 계획 부문에 70개, 준공 부문에 30개의 작품이 출품되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이중 계획 부문에서 14개의 작품과 준공 부문에서 10개의 작품이 수상하여 이들 작품을 묶어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공모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이재혁 건축가위원장님, 김선형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원계연, 장윤규, 김효영, 심국보 심사위원님,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여 주신 회원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건설 현장에서 우수한 목조건축물을 탄생시킨 수상자들과 우수한 미래의 건축 계획안을 제시한 예비 건축가 수상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조건축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따뜻한 감성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 차세대 건축문화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한국목조건축협회에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두루 살펴 법적,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앞장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담고 있는 공간을 해석하고 창조하는 건축이라는 위대한 작업 현장에서 묵묵하게 임하고 계시는 건축가분들과 예비 건축가분들 그리고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와 헌신을 생각하면 작품집에 수록된 목조건축물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작품집 발간을 통해 목조건축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목조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1월
(사)한국목조건축협회 회장 이국식

격려사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입니다.

2024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올해 본 대전에서 수상하신 모든 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목조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해 7월 제35대 산림청장으로 취임하며 내건 슬로건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입니다. 지난 50여 년간 세계가 주목하는 국토녹화 성공이라는 성취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 산림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만들어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산림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 중 ‘목재’는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에너지가 적게 소요되는 친환경 탄소중립 소재이자 소중한 자원입니다. 특히 국산목재는 그 탄소저장량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산정되기에 앞으로 더욱 각광받을 건축 소재입니다. 더불어 수 천년 전부터 건축 소재로 활용되어 온 목재는 인류와 가장 친숙하고 인체친화적인 소재이며, 무게 대비 강도가 높고 우수한 단열성능과 공사기간이 짧은 점 등 공학적인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목조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산림청, 국토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공건축 위주로 목조건축물이 많이 조성되고 있지만, 앞으로 민간 분야까지로의 확산을 기대합니다.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주역이 되실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국형 목조건축의 발전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사)한국목조건축협회를 포함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이 성황리에 개최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산림청장 임상섭

축사



〈2024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수상 작품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분들의 노력과 열정이 담긴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빛나는 결과물이 더욱 널리 퍼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내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목조건축대전이 어느덧 22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독창적인 작품들이 제안되고 실현되면서 목조건축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접근 방식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제는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목재는 인류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온 건축자재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안전성, 편의성, 기술적 한계 등의 이유로 일부 소규모 건축물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목조건축의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넘어 지구 가열화, 지구 열대화 문제가 대두되는 오늘날, 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 건축 자재를 활성화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0년에 목조건축물의 높이와 면적 제한을 없앴으며, 2024년에는 목구조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두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목조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목조건축 활성화 관련 법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적 기준을 구축하는 등 목조건축의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한국목조건축협회를 비롯한 산업계 관계자분들께서 이 행사를 통해 목조건축물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도 건축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축사



목조건축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된 뜻깊은 자리, '2024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의 22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대한민국 목조건축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사)한국목조건축협회의 이국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우리 목조건축의 미래는 더욱 밝고 희망차게 나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목재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생물자원이자 재생산이 가능한 천연자원으로, 인류와 오랜 역사를 함께해 온 중요한 소재입니다.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목재를 활용해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며, 거북선이나 해인사 대장경판과 같은 소중한 문화유산에도 목재를 사용해 왔습니다. 목재는 우리의 삶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그 가치는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보급으로 전통적인 목조 주거환경이 쇠퇴하고, 1960~70년대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이었던 목재산업은 환경 변화와 수입 제품 증가로 인해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건설 수주는 2022년에 비해 50.6% 감소했으며, 국내 제재소도 13.6% 줄어든 466개소에 불과합니다. 또한, 목재산업의 부가가치율은 27.38%로 전체 산업 평균인 43.54%보다 약 27%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목재산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제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도 기후변화 해결 방안으로 산림과 목재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목재 자원의 고부가가치화와 활용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목재 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의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목조건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목조건축 분야의 우수사례와 인재들을 발굴해 내며 목조건축의 미래를 밝히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이 목재산업과 건축문화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한국임업진흥원 또한 목재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한국목조건축협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2회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사)한국목조건축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한국임업진흥원장 최무열

축사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2024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목조건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와 함께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영예의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목조건축의 우수성을 건축계는 물론 전 국민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지구환경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친환경 목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물론, 목재의 수요창출, 목조건축물의 발굴 및 홍보를 통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기여하며 명실공히 우리나라 대표 목조건축대전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목조건축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건축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목조건축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현대건축에 밀려 사라져 가던 우리의 목조건축은 삶의 질에 대한 고민과 환경에 대한 우려 속에 다시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 목조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한국목조건축협회와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이 계속해서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전문가와 일반 대중이 함께 모여 목조건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식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 목조건축 분야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고, 우리의 삶과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2024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사)한국목조건축협회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김재욱

축사



안녕하세요?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UIA 국제건축연맹 이사 한영근입니다.

우선 (사)한국목조건축협회의 2024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수상 작품집 발간을 축하드리고, 이국식회장님을 비롯한 제작진의 수고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재 이용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건강한 산림을 가꾸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은 탄소중립 2050의 목표달성은 물론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미 건축문화 예술의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에 우리 고유의 전통과도 접목되는 목조건축이 건축문화 양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고 그에 대한 시민의식은 국격으로 표출됩니다. 좋은 건축이 좋은 사람을 만들고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

건축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건축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보전 및 발전에 함께 참여하여야지만 우리 건축계의 미래도 밝아질 것입니다. 이를 알고, 건축의 가치 존중과 보전, 발전에 주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건축인들이 국민과 함께 해야 할 주요 책무입니다. 또한 국민이 건축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나은, 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것도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건축이 아닌, 누구나의 건축이어야 할 때입니다. 사회에 공존하며 그 속에서 나오는 건축의 다양성과 포용성 등을 우리 국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 협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건축가들과의 활발한 교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돈독한 우의를 바탕으로 건축의 사회적 지평을 넓혀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한국목조건축협회의 2024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의 수상 작품집 제작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 UIA 국제건축연맹 이사 **한 영 근**

축사



무척 길고 더웠던 2024년 여름이 가고 짧은 휴식 같은 가을날 22번째 (사)한국목조건축협회의 가을 축제가 돌아왔습니다. 지난여름처럼 길고도 지루한 불황의 늪에서도 곳곳에 작업을 지속하시고 튼튼히 버티고 계시는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격려와 성원을 보냅니다.

인간에게 건축이란 단순히 세우고 쌓는 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건축은 약한 인간을 거대한 자연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일이며 또한, 생각을 세우는 일입니다. 또한, 주변을 배려하고 주변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때 인간이 가장 먼저 생각한 재료는 나무였을 겁니다. 나무는 주변에 흔하고 그렇기에 가장 친숙하며 사용을 쉽게 허락하는 재료입니다. 그렇기에 나무라는 재료는 건축의 역사와 더불어 아주 오래된 과거이며 영원히 인간과 함께할 오래된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마치 늘 만나는 가족에게 소홀한 것처럼 나무를 함부로 다루고 낮춰보며 새로움에 매몰시켰습니다. 그렇게 근대와 현대를 이어왔지만, 그에 대한 자연의 보복에 인간들은 당황하며 건강한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점에서 목조건축에 관한 관심과 기대가 싹뻗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의 단절을 이어나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주 심했고 완벽히 모든 기반이 사라진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바로 그런 터전 위에서 꽃을 피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적 기준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의 목조건축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이 땅의 기후와 지질 그리고 독특한 생활 습관에 맞게 최적화된, 나름의 건축문화가 생성되고 발전하며 오랜 시간 지속하여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흔히 건축문화 운운하지만 사실 건축이 문화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산업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시대의 보편적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의 건축은 하나의 문화였고 사회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런 기반을 다시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푸른 초원에 지어진 그림 같은 서양의 집을 이 땅에 재현하는 그런 국적 불명의 집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이 기후에 한국 사람의 몸에 맞는 건축을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대의 우리 건축을 만드는 일에 (사)한국목조건축협회와 여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리를 잡아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이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22회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을 축하드리며 여태 걸어온 것처럼 곳곳하고 건강한 행보를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2024년 11월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임형남

축사



먼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과 목재 이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산림청과 (사)한국목조건축협회, 그리고 모든 목재 관련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목재와 목조건축의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공모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작품집을 통해 우리는 목조건축의 무한한 가능성과 목재의 뛰어난 친환경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공모전을 빛내주신 모든 출품자 여러분과 심사위원, 대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목재는 단순한 건축 자재를 넘어, 우리 생활과 환경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목재는 자라나는 동안 탄소를 저장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철강이나 콘크리트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 자재를 대체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 목재의 활용은 우리만의 이슈가 아닌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그 중심에서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목재 수확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목재의 우수성과 친환경성을 더욱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목재 유통 체계의 개선과 국산재 활용을 위한 투명한 이력관리제 정착, 그리고 보다 다양한 목조건축 기술의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공건축에서의 목재 사용 촉진 관련 법률 제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목재문화진흥회를 비롯한 목재인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목조건축은 우리의 미래이며,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그 미래로 향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목조건축은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며, 더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목조건축의 우수성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며, 국민 모두가 목재의 가치를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목재와 목조건축이 만들어갈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작품이 목조건축의 발전과 탄소중립 시대를 향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목재문화진흥회 회장 오세창

2024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차 례

03 (사)한국목조건축협회 회장 발간사

05 산림청장 격려사

07 국토교통부 장관 축사

09 한국임업진흥원장 축사

11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축사

13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축사

15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축사

17 목재문화진흥회 회장 축사

20 2024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개요

22 2024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심사평

25 준공 부문 수상작

26 대상 | 세컨찬스라이브러리

34 대상 · 구조디자인상 | 설해원 클럽하우스

42 특별상 | 원서 작업실

48 최우수상 | 진주백년공원

54 최우수상 | 무너미 스튜디오, 수유 하우스

60 우수상 | 사봉밥집

64 우수상 | 용대보건진료소

68 우수상 | 하늘목장 양 먹이주기 체험장

72 장려상 | 토끼뜰

76 장려상 | 이우집

81 계획 부문 수상작

82 대상 | 기계나무의 나이테

86 대상 | 동서고금, 동서양 목구조를 융합한 목조성당 계획안

90 특별상 | TIM-WORK

94 최우수상 | 도시기반시설의 비-일상공간 전환

98 최우수상 | 모여봐요! 방과후 목욕탕

102 우수상 | 자연 속 자연

104 우수상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파사드 리노베이션

106 우수상 | 대명동 도시농업 문화시설 계획안

108 구조디자인상 | 이음;所

110 장려상 | 서목원(書木園)

112 장려상 | 금마 문화시장

114 장려상 | 옛 경주역 부지 문화복합시설 계획안

116 장려상 | 돈의문 전통부재 박물관

118 장려상 | 너나들이 문화광장

120 (사)한국목조건축협회에서 하는 일

124 2024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협찬사

126 (사)한국목조건축협회 활동 회원사 리스트

2024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개요

2024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행사로 올해 22회를 맞이하는 사업임

응모 부문 및 대상

계획 부문

- 주제 : 기계 나무 시대의 짓기와 잇기
- 응모 작품 : 목구조 · 목조 친환경 디자인 등의 공법과 재료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미래 목조건축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미발표 창작물 또는 목재를 활용한 미래 새로운 건축재료나 구조에 대한 제안
- 응모 자격 : 제한 없음(단, 국내 거주자)
- 응모 작품 수 및 인원 : 응모자 1인당 1작품, 공동 출품은 3인 이내

준공 부문

- 응모 작품 :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2021. 8. 24. 이후) 준공한 국내 목구조 건축물, 혼성 구조물, 목재를 활용한 리노베이션 건축물, 목재를 활용한 인테리어 및 조경시설물 등의 제 분야
- 응모 자격 : 응모작품의 설계자, 시공자(혹은 제작자), 건축주로서 출품 건축물의 관련 서류(건축물대장 등 증빙서류) 상에 명시되어 있는 자
- 응모 작품 수 : 1인당 최대 3점 이내

심사위원단

- 위원장: 김선형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 위원: 원계연 건축사사무소 스튜디오더원 대표, 장윤규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효영 김효영건축사사무소 대표, 심국보 충북대학교 목재종이학과 교수

접수

- 계획 부문:
 - 1차(작품계획안) : 2024년 8월 14일(수) ~ 8월 23일(금)
 - 2차(패널, 모형) : 2024년 9월 20일(금)
- 준공 부문
 - 포트폴리오 : 2024년 8월 14일(수) ~ 8월 23일(금)

심의

- 일시 및 장소
 - 계획 부문 1차 포트폴리오 심사 : 2024년 8월 30일(금) / 운생동 건축사사무소
 - 2차 공개심사 PT : 2024년 9월 20일(금) / 서울도시건축센터
 - 준공 부문 1차 포트폴리오 심사 : 2024년 8월 30일(금) / 운생동 건축사사무소
 - 2차 현장심사 : 2024년 9월 7일(토)~9월 9일(월) / 작품 소재지

전시회 및 시상식

- 전시회 일시 및 장소 : 2024년 11월 20일(수)~11월 26일(화)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드림갤러리
- 시상식 일시 및 장소 : 2024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다목적실

주최 산림청

주관 (사)한국목조건축협회

후원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수상 결과

준공 부문			
구분	작품명	설계자	시공자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세컨스라이브러리	오즈앤엔즈 건축사사무소 최혜진	㈜티피에이종합건설 한재성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설해원 클럽하우스	㈜조호건축사사무소 이정훈	씨제이대한통운㈜ 민영학 목조부분 시공자 : ㈜수피아건축 이주석
특별상(서울특별시장상)	원서 작업실	㈜종합건축사사무소시건축 유재은	㈜시공작 이혜수
최우수상(산림청장상)	진주백년공원	소술건축사사무소 왕성한	차량정비고: ㈜종합건설현범 김기홍 구)진주역사: 인성산업개발㈜ 박미양 복합커뮤니티: ㈜안도건설 김태윤
최우수상(산림청장상)	무너미 스튜디오, 수유 하우스	송실대학교 김정인, 테이블O 현재호	이정훈
우수상(대한건축사협회장상)	사봉밥집	조은허기윤건축사사무소 허기윤	㈜연진건설 정태균
우수상(한국건축가협회장상)	용대보건진료소	바른건축사사무소 전서희	한덕철광산업(주) 오지호
우수상(새건축사협의회장상)	하늘목장 양 먹이주기 체험장	㈜지에이건축사사무소 경민호, 최낙훈	필진종합건설㈜ 김수인, 채우림 최성근
구조디자인상(한국목조건축협회장상)	설해원 클럽하우스	구조 설계자 : 허브구조엔지니어링 김형만 환구조기술사사무소 민환석	씨제이대한통운㈜ 민영학 목조부분 시공자 : ㈜수피아건축 이주석
장려상(한국임업진흥원장상)	토끼뜰	㈜소다건축사사무소 정대호	㈜예담건설 이충원
장려상(한국목조건축협회장상)	이우집	㈜비유에스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박지현, 조성학	신민철

계획 부문			
구분	작품명	수상자	소속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기계나무의 나이트	문홍욱, 문인석	경북대학교 건축학과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	동서고금, 동서양 목구조를 융합한 목조성당 계획안: 생성형 시를 활용하여	이세현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특별상(서울특별시장상)	팀-워크	정승엽, 김동준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최우수상(산림청장상)	도시기반시설의 비-일상공간 전환	안문석, 김한석, 정혁호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 건축학전공, 공간디자인전공
최우수상(산림청장상)	모여봐요! 방과후 목욕탕	윤한민, 이원지, 이하영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우수상(대한건축사협회장상)	자연 속 자연	이선주, 김민준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 건축학전공
우수상(한국건축가협회장상)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파사드 리노베이션	김아라, 정진영, 홍인화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우수상(새건축사협의회장상)	대명동 도시농업 문화시설 계획안	황진혁, 최원준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구조디자인상(한국목조건축협회장상)	이음;所	황동주, 오성택, 전병훈	단국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과
장려상(한국임업진흥원장상)	서목원 (書木園)	이영인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장려상(한국목조건축협회장상)	금마 문화시장	김태원, 고근욱, 오승규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장려상(한국목조건축협회장상)	옛 경주역 부지 문화복합시설 계획안	정성현, 이민규	영남대학교 건축학과
장려상(한국목조건축협회장상)	돈의문 전통부재 박물관	조겸, 이현선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장려상(한국목조건축협회장상)	너나들이 문화광장	백현보, 정겨운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 공간디자인전공

2024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심사평
나무의 기술, 나무의 형태

2024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서른 개가 넘는 준공작들이 응모하며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과 에너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남을 시작으로, 전남, 서울, 경기, 강원 등 전국 각지를 돌며 2024년 현재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지형도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심사를 거치며 목구조의 장점인 재료의 친환경성, 유연한 설계 가능성, 그리고 다른 건축 재료들과의 창의적인 협업이 수상한 작품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으며, 목조건축이 환경적, 구조적, 미학적으로 다른 구조에 비하여 어떻게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건축적인 접근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출품작들은 현장 상황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구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재료 사용,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우수한 해법을 제시하였으며, 목구조가 단순히 전통적 건축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근대화화유산 리모델링, 소규모 민간 상업건축, 대규모 민간 자본 프로젝트, 단독주택, 소규모 공공건축 등 우리 도시의 다양한 건축 유형들과 만나는 현대적인 접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와 같은 결과물들을 구현한 Technology나 드러난 Form 어느 한 관점에 매몰되지 않은 균형 잡힌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 도시 내에서 작동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더하여 목조건축이 가진 고유의 가능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구조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보여준 작품들을 선정하였습니다. 2024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목조건축의 미래를 탐색하는 중요한 장이었으며, 이 대전을 통해 한국 목조건축의 수준이 한층 더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두 작품의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은 '세컨스라이브러리'는 삼각

형의 기하학이 만들어 내는 공간의 성격을 목구조를 이용해 건축적으로 잘 통합한 우수한 건축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소외되기 쉬운 아이들을 위해 사회적인 웰터를 마련해 주려는 건축주의 선한 의지를 건축으로 구현하려 한 건축가의 노력이 구석구석에서 느껴 집니다. 견고해 보이는 외부와는 대비되는 목구조가 만들어 내는 내밀한 내부 공간의 분위기가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과 잘 어우러지고, 목구조의 계획적인 질서가 가구적인 스케일에서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대상과 구조디자인상을 받은 '설해원 클럽하우스'는 대규모 리노베이션 작업에서 기존 건축물의 아이덴티티를 목구조의 구조미를 통해 재정의한 건축가의 역량이 돋



보이는 작품입니다. 캐노피에서 시작되는 구조의 계획 모듈이 반복되며 일종의 변주를 만들어 내고 그 디자인 어휘가 내부 공간까지 연장 관통하며 전체 건축물의 질을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구조 요소를 단순히 구조로서 계획하지 않고 목구조라는 재료적인 특성을 최대한 활용, 그 조형적인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 한 점은 이 프로젝트가 구조디자인상을 동시에 수상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별상을 수상한 '원서 작업실'은 한옥들이 모여있는 대지의 문맥을 목구조를 이용하여 건축적으로 재해석하려 한 시도가 돋보이는 수작입니다. 마루보(Ridge Beam)를 마룻대(Ridge Board)로 대체해 가며 능동적인 구조 디자인을 통해, 실내 공간에서의 조망에 민감하게 대응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지붕의 형태를 콘크리트, 철, 목구조 등 다양한 복합구조로 풀어내려는 건축가의 노력과 의지가 내부에서 거칠지만 재미있는 긴장감을 만들어 내는 점도 좋았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진주백년공원'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역사 유적을 품은 공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는 건축가의 방식이, 목구조라는 다소 특수한 형식과 만나 합리적으로 계획된 작품입니다. 건축가의 디자인 의지가 앞서기보다는 기존 건축물의 상황에 민감하게



요소요소로써 대응하며 전체 공간의 질을 완성해 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무너미 스튜디오(수유하우스)'는 일조 사선과 협소한 도로, 작은 필지를 공통분모로 가지는 밀집된 서울의 주택가에서 목구조가 보편적인 콘크리트 구조와 어떠한 구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질문한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가구의 구분을 수평이 아닌 수직적으로 나누고 그 사이에 골목길을 삽입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사봉밥집'은 소규모 공공건축물에서 목구조에 대한 발주처의 관심과 관심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단층 중정형이라는 건축 유형이 가지는 내향성이 목재라는 따뜻한 느낌과 만나 차별한 공간감을 만들어 낸 점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용대보진진료소'는 보건소라는 소박한 프로그램이 목구조라는 형식과 잘 만나게 한 작품입니다. 소소한 공공시설에서 목구조의 따뜻한 물성이 이용자들이 친근하게 시설을 경험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목장 양 먹이주기 체험장'은 실내 마감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측사라는 프로그램이 중목구조와 만나, 보편적인 구법이 가지는 구

조미를 내부에서 담백하게 잘 드러낸 작품입니다. 측사 내부의 거친 물성과 높은 층고를 채우는 자연광이 목재의 따뜻함과 잘 어우러진 계획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지점입니다.

'토끼뜰'은 소규모 상업건축물에서 목구조를 이용한 공간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조망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내부에서 노출된 목구조와 함께 만들어 내는 준수한 공간감에 반해 목조건축에 대한 몇몇 기술적인 이해도와 시공 상태는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우집'은 경량목구조를 잘 이해하고 제한된 예산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내부에서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벽체에서 가려지는 2x6 스티드 일부를 적절한 곳에 드러내며 계획한 점도 구법에 대한 건축가의 이해도를 보여준 지점이었습니다.

계획 부문에서는 작년보다 훨씬 많은 총 70



개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로써 목조건축에 대한 보다 높아진 학생들의 관심사와 탐구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고무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목구조를 활용한 도시 내 소규모 커뮤니티 센터부터 고층 건물 및 수평적인 대공간 그리고 산업 건축물의 리노베이션까지 다양한 규모와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이 구법과 함께 적절하게 디자인된 안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두 작품, 버려진 조선소를 목재를 이용한 재해석으로, 시적으로 풀어낸 '기계나무의 나이트'와 로우테크 목구조의 진화 가능성을 시를 이용한 리서치로 보여준 '동서고금'은 창의적이면서도 합리성에 기반을 둔 훌륭한 제안들이었습니다. 특별상을 수상한 '팀-워크'가 보여준 고층 목구조의 형태적 실험과 '복합구조 주차타워 계획안'의 대지 문맥을 고려한 구조적인 실험은 고밀도의 도시 내에서 꼭 실현해 보고 싶은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또 다른 최우수상작인 '모여봐요! 방과 후 목욕탕'은 소규모의 동네 커뮤니티 시설에서 재료를 통한 고민이 돋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우수상 및 장려상 작품들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등의 생태적인 목표와 기술적 발전을 통합하여 목조건축이 미래 세대의 중요한 대안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안들이었습니다.

수상작으로 선정되신 모든 분께 따뜻한 축하를 드립니다. 제 일천한 경험을 보충해 주시며 풍부한 시각으로 심사를 완성시켜 주신 다른 심사위원분들과 운영위 분들, 마지막으로 아쉽게도 수상작으로 선정되지 못하셨지만 치열한 계획과 고단한 현장의 노고를 통해 작품을 제출해 주신 모든 참여자분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선형 심사위원장(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KOREA WOOD DESIGN AWARDS

2024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준공 부문 수상작

대상 | 세컨찬스라이브러리(Second Chance Library)

대상 · 구조디자인상 | 설해원 클럽하우스(Seolhaeone Clubhouse)

특별상 | 원서 작업실(An Architectural Studio in Wonseo-Dong)

최우수상 | 진주백년공원(Centennial Jinju Park)

최우수상 | 무너미 스튜디오, 수유 하우스 (Munomi Studio)

우수상 | 사봉밥집 (Sabong Bapjip)

우수상 | 용대보건진료소 (Yongdae Health Clinic)

우수상 | 하늘목장 양 먹이주기 체험장 (Sky Ranch Sheep House)

장려상 | 토끼뜰 (Rabbit Yard)

장려상 | 이우집 (Iwoojip)

준공 부문 | 대상

세컨찬스라이브러리

Second Chance Library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150-4

대지면적 : 1,891m²

연면적 : 371.75m²

건축면적 : 327.85m²

규모 : 지상 2층

주구조 : 철근콘크리트, 중목구조

준공일 : 2023. 10

설계자 : 오즈앤엔즈 건축사사무소 최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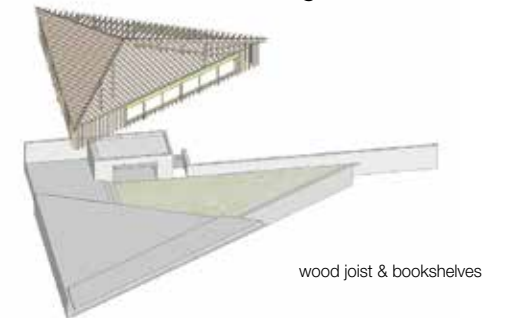
시공자 : (주)티피에이종합건설 한재성

두 번째 기회를 건네는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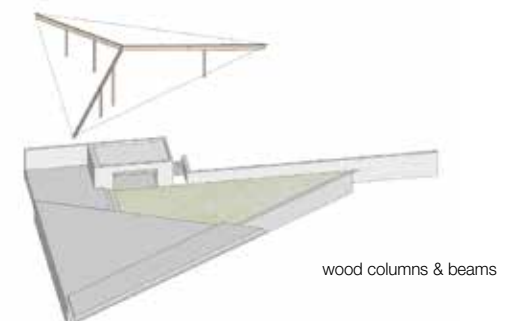
세컨찬스라이브러리는 넘어진 청소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건네는 도서관이다. 새로운 나, 새로운 타인, 새로운 세상에 닿을 기회를 만나는 공간으로 사단법인 세상애피아들이 운영하며, 도서문화재단 씨앗의 후원으로 조성되었다. 세상애피아들은 가정과 학교, 사회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가치를 되찾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단체이다.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그릇된 선택 속에서 무너져버려 범죄자로 낙인찍힌 아이들이 법원의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이곳에 보내진다.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다른 이들에게 Second Chance를 줄 수 있는 Second Chance Maker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다. 우주로, 티티섬, 라이브러리 피치 등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해 온 도서문화재단 씨앗에서 이곳의 청소년들을 위해 도서관 건축을 후원하면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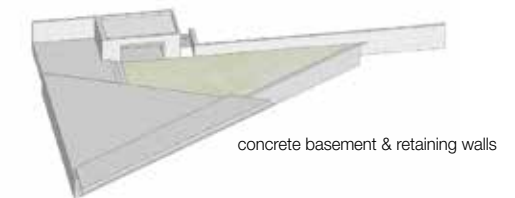
structure diagram



wood joist & bookshel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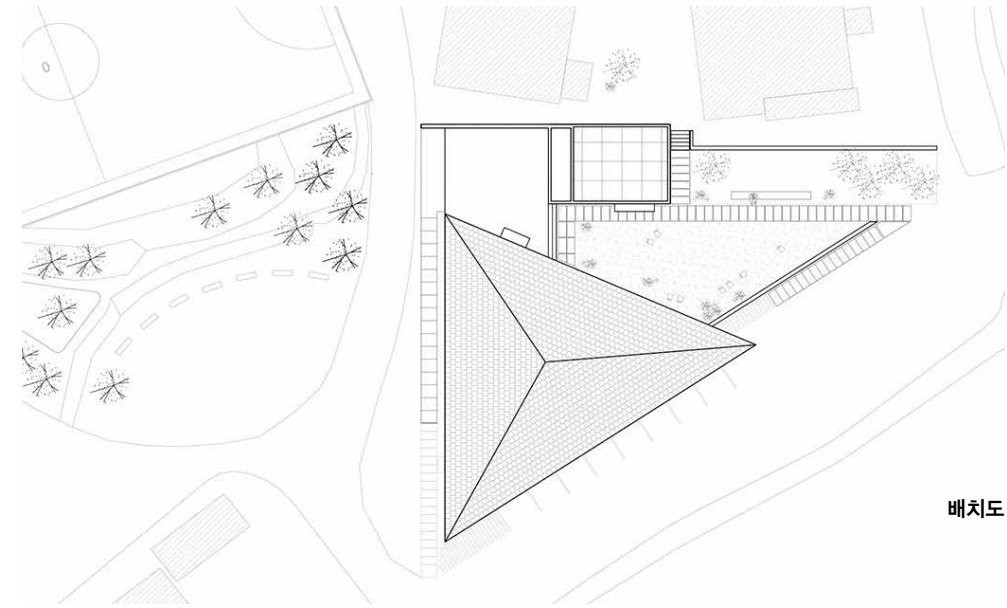


wood columns & beams



concrete basement & retaining walls





배치도

세상과 연결되는 공간,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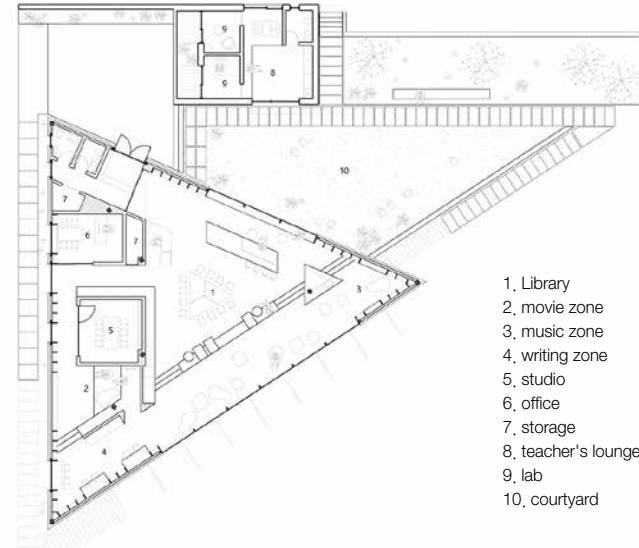
포천의 북쪽 외곽에 위치한 세상애플은아이들은 낮은 건물을 인수해 아이들이 생활하는 생활관과 배우는 공간인 스네일랩, 식당과 예배당 등 필요한 공간들을 하나씩 고쳐가며 만들어가는 중이었다. 별다른 물리적 경계 없이 사방이 자연으로 둘러싸인 캠퍼스는 에너지가 넘치는 청소년들이 지내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지만 새로운 만남과 교류가 제한적인 곳이다. 기존의 공간들은 세상과 단절을 기반으로 한 내부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지만 새로 들어서는 도서관은 아이들이 세상과 만나고 연결되는 공간으로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기획되었다. 책과 사람을 통해 알지 못했던 자신을 새롭게 만나고 몰입을 경험하며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발표하는 공간으로 아이들의 변화가 이곳의 콘텐츠가 되는 도서관을 상상하였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이곳에 오게 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주변의 환경과 관계에 의한 것들이었다. 주중 내내 이곳에 머물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도서관 고유의 기능 이외에도 기존 공간에서 부족했던 수업, 발표, 공연, 외부연계행사 등 세상애플은아이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아이들의 아티지이자 거실이며 선생님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야 했다. 이 모든 것을 담기에는 작은 규모의 공간이지만 어디에서도 환대받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공간이 주는 환대를, 이를 통해 존중받는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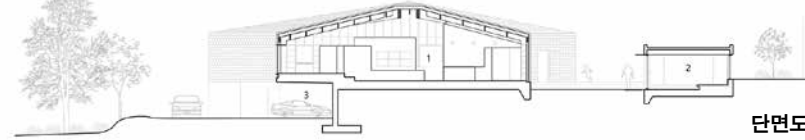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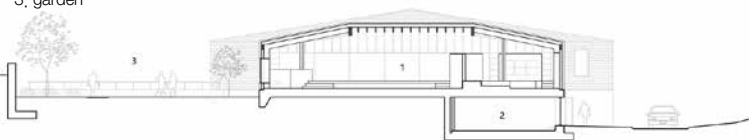
- 1. Library
- 2. movie zone
- 3. music zone
- 4. writing zone
- 5. studio
- 6. office
- 7. storage
- 8. teacher's lounge
- 9. lab
- 10. courtyard

- 1. Library
- 2. teacher's lounge
- 3. parking space



단면도

- 1. L library
- 2. bunker room
- 3. ga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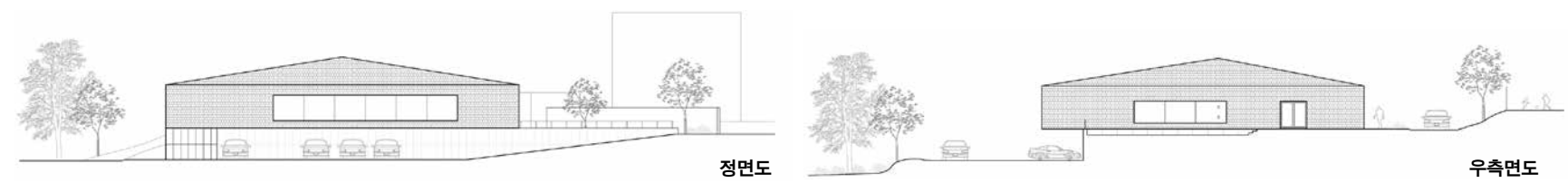


나무를 품은 삼각형

입구와 경계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어수선한 캠퍼스 부지 내에 도서관을 지을 위치를 찾았다. 캠퍼스 초입의 경사지에 마련되어 있던 주차장 부지를 도서관의 위치로 선정하였다. 좁은 경사지이지만 캠퍼스의 관문이자 외부와의 접점이 되는 위치로 산재한 건물들을 연계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였다. 대지의 형상을 따라 삼각형의 매스를 배치하고 두 개로 갈라진 캠퍼스의 길을 외부공간으로 연결하였다. 대지의 경사를 활용하여 건물의 하부를 띄워 기존과 같이 캠퍼스 입구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들러진 도서관은 내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24시간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교사연구실을 도서관과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고, 담장으로 외부공간의 방향성을 만들어 분산된 주변 건물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위요된 정원을 만들었다. 단층의 단조로운 공간에 공간감을 주기 위해 삼각형의 중앙을 들어 올리고 내부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측 멀리 전경이 보이는 곳과 남측 정원이 마주하는 곳으로 넓게 창을 두어 아이들의 시선이 멀리 밖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차장의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차는 내부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구획한다. 지면과 면한 저층부와 교사연구실은 콘크리트 구조로 단단하게 잡아주고 상부의 도서관은 중목구조로 계획하였다. 삼각형의 형태와 노출된 중목구조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과한 현대'의 경험을 공간적으로 전해주고자 하는 건축가로서의 의도였다. 세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삼각형의 형태는 이곳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찾고 세상으로 뻗어 나가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딱딱하고 거친 외관과는 다르게 따뜻하고 보드라운 내면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외부는 차가운 돌과 콘크리트로, 내부는 목재로 디자인하였다. 삼각형의 형태를 따라 세 개의 커다란 빔과 5개의 기둥이 전체 공간을 만들고 구조와 도서관의 책장을 일체화하였다. 외벽을 따라 도서관의 서가를 배치하고 중앙을 비워 내부에 다양한 이야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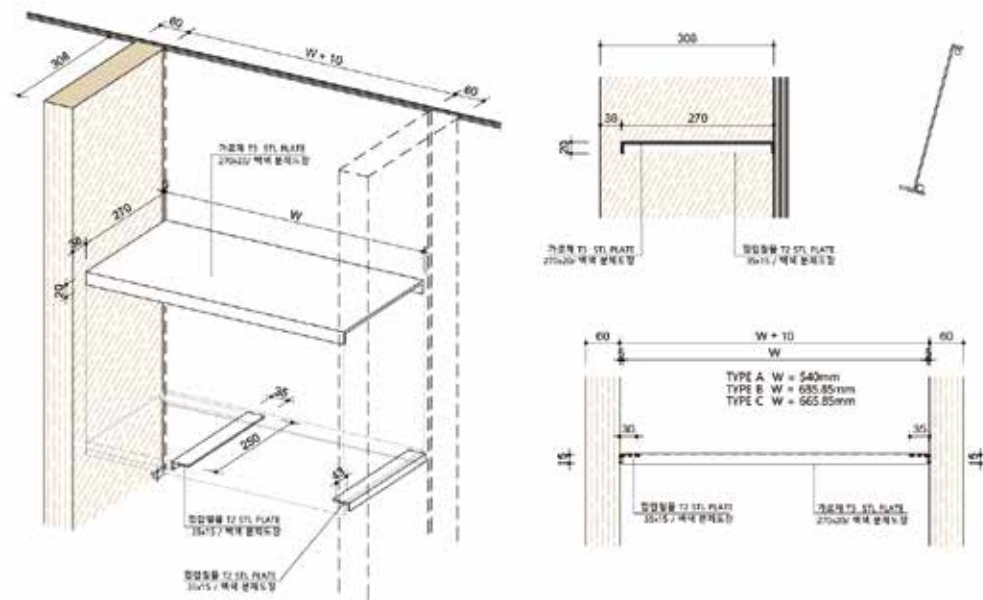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bookshelf detail



함께 만들어간 도서관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 운영에 많은 경험이 있었던 도서관재단 씨앗의 도움으로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 내부를 채웠다. 아이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직접 선정하여 서가를 구성하고 원하는 활동들로 공간으로 만들었다. 입구 바로 앞으로는 이곳을 거쳐 간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전시하는 명예의 전당과 학생 사서들이 직접 구성하는 추천서가가 배치된다. 들어서면서 보이는 넓은 창 앞에는 빈백과 만화책을 두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삼각형의 양 코너에는 조용한 필사

공간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영상컨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와 영화존, 선생님 눈을 피해 뒹굴 수 있는 다락 공간 등 워크샵을 통해 나온 요구 사항들을 반영하여 공간을 조정하였다. 가장 높은 삼각형의 중앙은 비우고 큰 테이블을 두고 주변으로 미술 활동, 도서 제작 등에 필요한 장비들을 배치한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발표나 공연 시에는 중앙을 비우고 높이차에 의한 단차는 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제공 © 김용성

공간이 만들어가는 변화

도서관의 내부는 서너 달에 한 번 공간 기획을 바꾼다. 아이들이 자주 쓰는 공간은 오히려 구석으로 넣고, 낯선 경험에 천천히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한다. 세심하게 고른 가구와 조명, 스피커 등 도서관 내부의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존중의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작가님으로 불린다. 작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아이들은 이곳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청소년기의 남자아이들이 모인 공간이라 시끄러울 거라는 우려와 달리 도서관에 들어서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밖에서와는 다른 태도로 행동한다고 한다. 조용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창 너머 변화하는 자연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바라보며 천천히 아이들도 치유되고 변화가길 기대한다. 아이들의 변화와 미래가 공간에 차곡차곡 기록되어 이곳에 오는 다른 아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안내서가 되는 도서관이 되기를 상상한다.

준공 부문 | 대상·구조디자인상

설해원 클럽하우스

Seolhaeone Clubhouse

위치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10-28

대지면적 : 1,027,535m²

연면적 : 750,39m²

건축면적 : 750,39m²

규모 : 지상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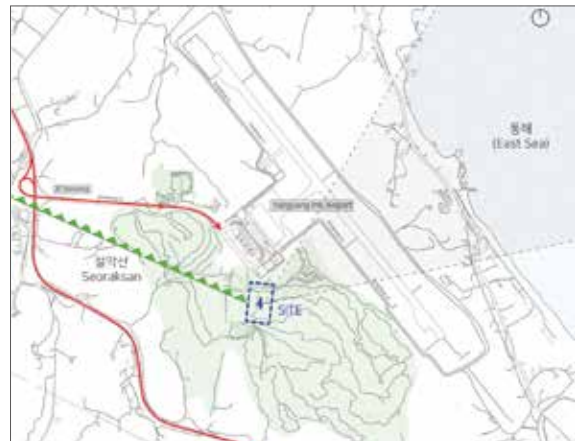
주구조 : 목구조, 철골조

공사완료일 : 2022. 1.

설계자 : (주)조호건축사사무소 이정훈

구조설계 : 허브구조엔지니어링 김형만, 환구조기술사사무소 민환석

시공자 : 씨제이대한통운(주) 민영학, (주)수피아건축 이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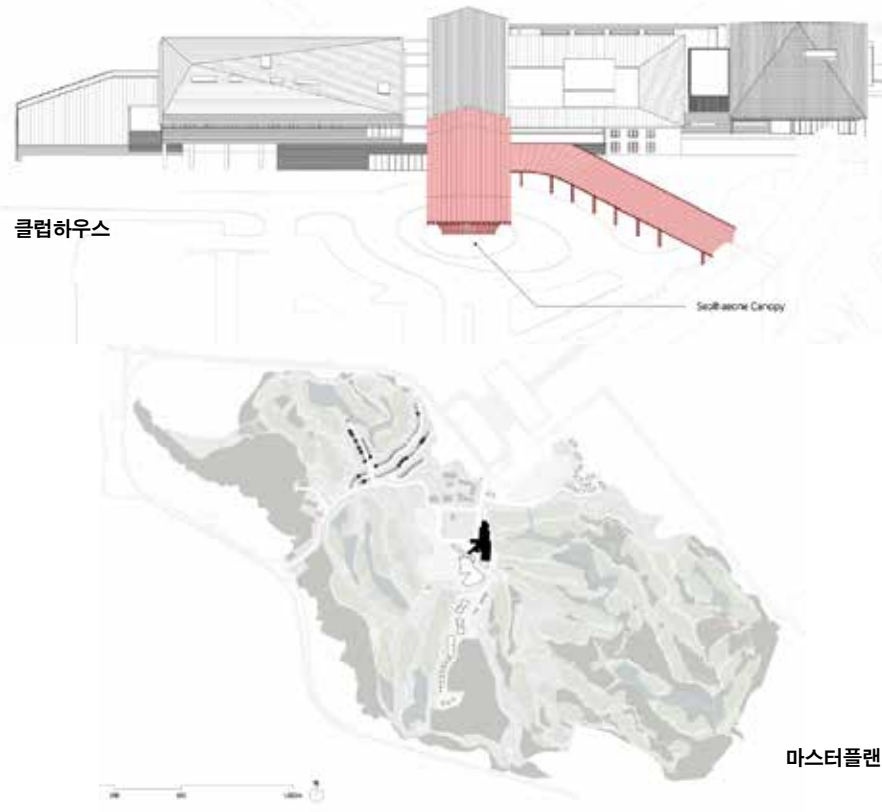


장소와 건축,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

설해원은 산과 바다를 동시에 품은 곳이다. 그곳의 장소성은 여타의 장소가 지니는 감수성과 사뭇 다르다. 장엄하게 펼쳐진 태백산맥 줄기를 배경으로 백두대간의 흐름이 전달되는 곳임과 동시에 끝이 보이지 않은 바다의 해안선이 절묘하게 펼쳐지는 장소이다. 설해원은 마치 한반도가 지닌 자연의 미학을 그대로 압축시켜 놓은 듯이 다채로운 풍광들로 조화를 이룬다. 이곳의 풍광은 그 어느 곳에서도 즐길 수 없는 시적 공간들로 채워져 있다.

설해원 클럽하우스 증축은 골프 코스의 증설에 따른 로커 부속, 레스토랑 확충, 카트고 신설 등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표면적으로는 클럽하우스 리모델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기존 클럽하우스에서 문제시되었던 고객, 관리 및 주차 동선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개발 계획에 따른 확장 가능성을 반영해야 하는 마스터플랜의 재수립과 같았다. 이에 증축 영역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수평, 수직 증축을 혼용해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최적의 동선을 조직하고 시공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방법이라는 결론이 났다. 따라서 우리는 리모델링 각 구간별로 최대한 적합한 구조 시스템을 찾아내고 이에 맞게 증축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주안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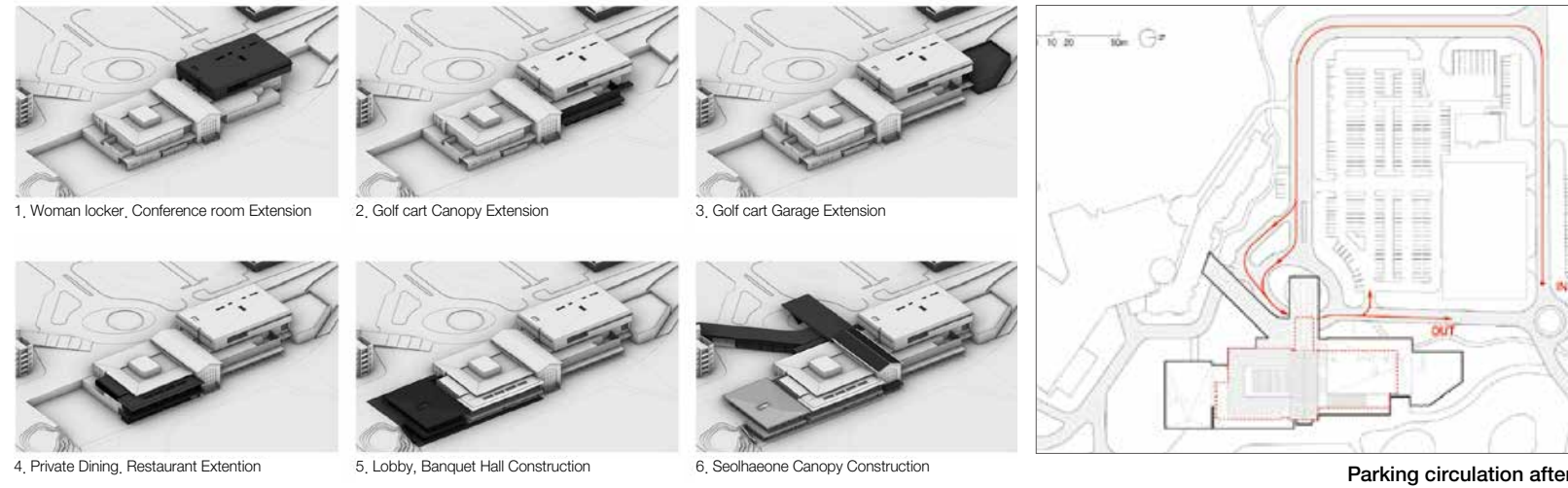
클럽하우스

마스터플랜

마스터플랜의 재구축

건축가로서 고민했던 점은 기존 클럽하우스와 설해온천의 볼륨 차이에서 오는 위계에 관한 문제였다. 층고가 높은 단층 건물인 클럽하우스와 4층짜리 설해온천은 사선각으로 만나고 있었다. 특히 진입 도로도 직선이었어서 전이공간이라 할 만한 영역이 부재했다. 즉 들어서는 길에서 좌측에 낮은 볼륨을 전면과 우측에 높은 볼륨이 우뚝 선 장면을 느닷없이 마주하는 것이다. 이는 내장객에게 설해원이란 새로운 세계로 진입한다는 시그널을 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고객 대다수가 장시간 운전 끝에 설해원에 도착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더욱더 아쉬움이 남는 포인트다. 더욱이 클럽하우스의 위계를 상징적으로 전달하기에도 어렵다.

내장객이 설해온천을 마주하며 클럽하우스에 진입하는 동선체계에는 이러한 문제도 있다. 클럽하우스보다 설해온천으로 뻗은 길을 메인 축이라 인식하는 것, 즉 고품격 골프장으로서 지녀야 할 클럽하우스의 상징성과 아이덴티티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설해원이 자랑하는 품격에 비해 아쉬운 대목이다. 더불어 동선의 기능적 문제도 있었다. 설해온천을 향하는 내장객 동선과 클럽하우스에 진입하는 차량 동선이 혼재되어 피크타임에는 이들의 충돌이 빈번했다. 결국, 기존 볼륨이 지닌 비례감 보완과 더불어 기능적 개선 같은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



1, Woman locker, Conference room Extension

2, Golf cart Canopy Extension

3, Golf cart Garage Extension

4, Private Dining, Restaurant Extension

5, Lobby, Banquet Hall Construction

6, Seolhaeone Canopy Co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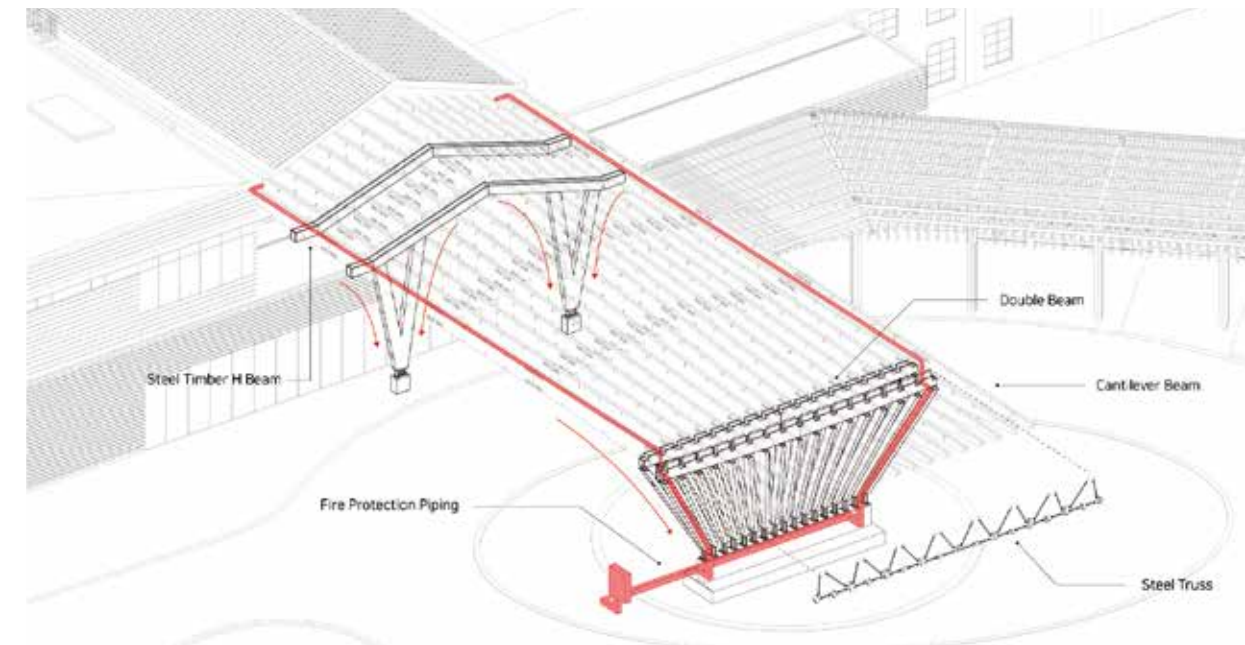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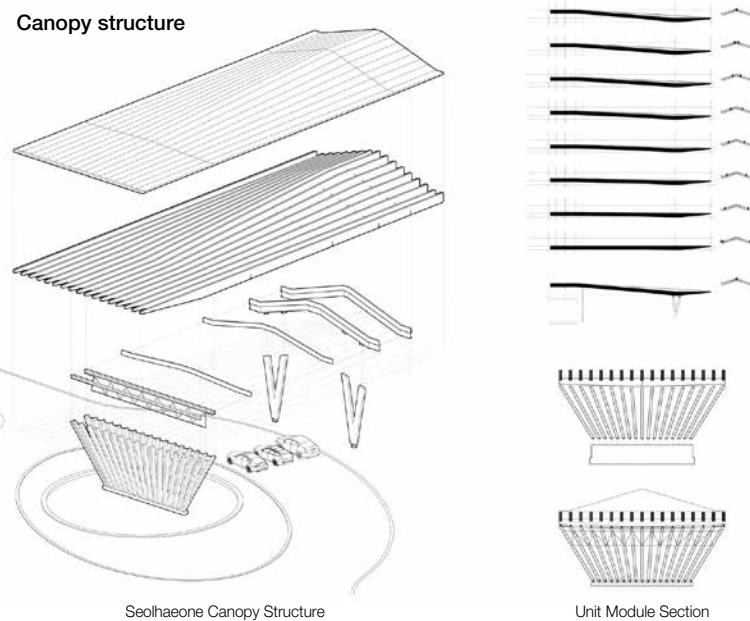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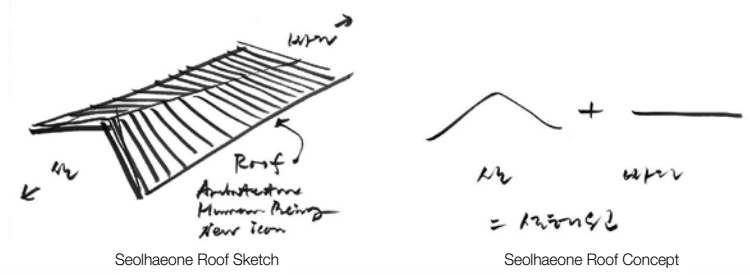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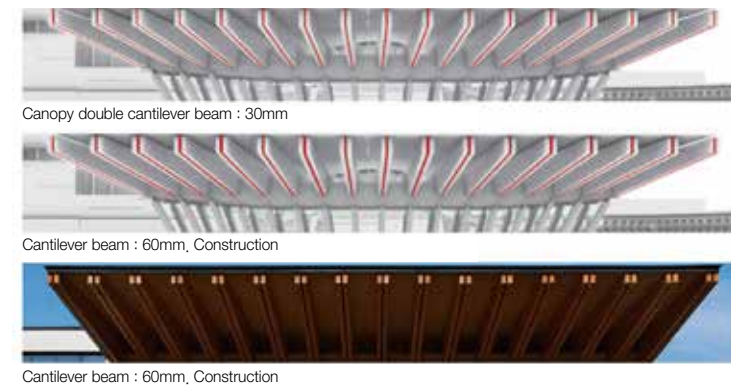
Parking circulation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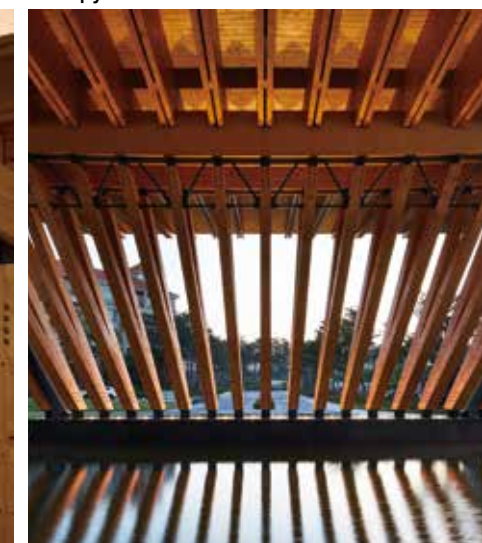
캐노피와 회랑, 한국적 미학의 재해석

설해원의 캐노피는 단순히 비와 눈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다. 이는 설해원의 새로운 관문이자 정체성을 이끌어내며 기존 골프텔, 설해온천과 시각적으로 연결 짓는 물리적 프레임이다. 즉 캐노피는 설해원에 대한 첫인상뿐 아니라 골프 코스를 관통하는 경험적 시퀀스의 시작과 끝을 구성하는 장소이다. 설해의 박공이 산과 바다를 연결시키는 형태로 구성되었듯이 캐노피의 지붕선 또한 이를 수평적으로 펼쳐낸다. 설악의 산과 양양의 바다를 연결 짓듯 수평적인 라인으로 길게 가로지르며 내장객들의 진출입 축의 위계를 제공한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이곳에서 형성된 축의 의미와 회랑의 연결이 어떠한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직감하게 될 것이다. 기존 설해원 클럽하우스의 미묘한 박공을 설악의 형태로 전제하고 이를 수평적 라인으로 길게 연결하여 새로운 상징으로 해석한 것이다.



Seohaewon Canopy Structure Detail

Canopy Steel Truss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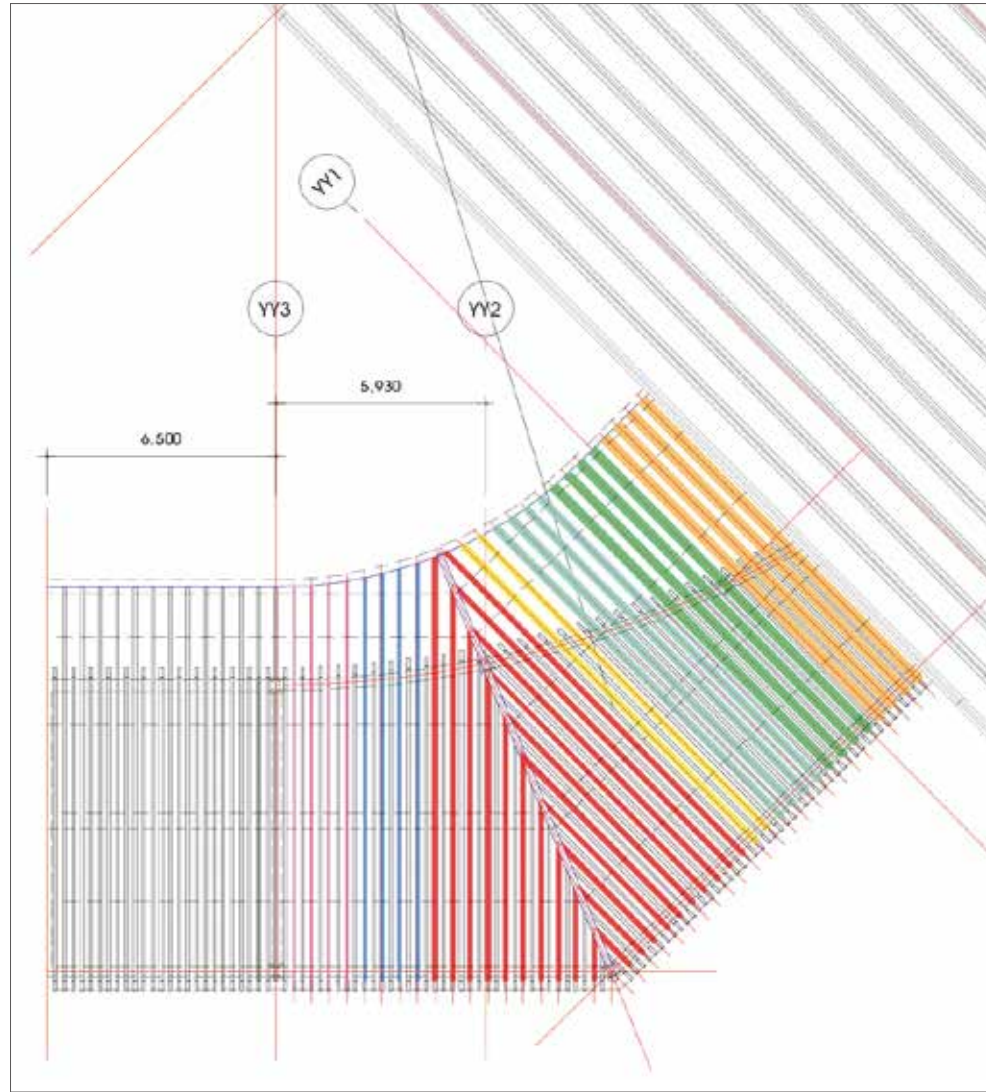


캐노피, 육중한 매스에 경쾌한 볼륨감을

30m에 이르는 캐노피는 공학용 목재인 글루램과 비틀림을 저항하기 위한 철골구조로 짜여 있다. 캐노피를 구성하는 부재는 각각 10m 글루램을 철골부재로 이어 구조적으로 결합된다. 이는 기존 클럽하우스와는 별개의 구조체로 해석하여 풍하중 및 적설하중을 고려하여 계획했으며 전면의 V자 프레임 구조 프레임에 W 형태의 철골 브레이싱이 결합되어 구성돼 있다. V 형태의 글루램은 설해원 진입 축에서 볼 때 하나의 평면적 형태로 읽히기를 의도하였다. 즉 상부의 지붕을 구성하는 라인과 수직적 구조체가 하나의 입면으로 읽히도록 계획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12개의 이중 글루램 부재를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게 아닌 사선 형태로 연결하여 자칫 지나치게 육중하게

느낄 수 있는 매스에 경쾌한 볼륨감을 제공하였다. 즉 각도에 따라 평면적인 입면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이는 삼차원적 입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이를 떠받치고 있는 수평보는 하부를 곡면처리하여 하부에서 상부를 올려다볼 때 시각적 안정감을 주고자 하였다. 이는 봉정사 무량수전에서 볼 수 있는 배흘림기둥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칫 불안해 보일 수 있는 수평보의 육중함을 vista를 고려한 구조적 형태성에서 재해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내장객의 동선상 캐노피가 어떠한 각도에서 어떻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스테디를 전제로 한다. 즉 설해원 메인 진입 면과 드라이빙웨이를 거쳐 드랍오프를 진입하는 투시점, 그리고 드랍오프를 위한 곡면구간, 그리고 주차장에서 바라본 뷰를

시퀀스별로 나누어 캐노피가 하나의 상징적 유형으로 기억되게끔 의도한 것이다. 내장객들은 진입 축에서 언뜻 위에 떠있는 수평적 글루램의 측면을 보며 진입하게 된다. 이런 수평적 경쾌함을 바탕으로 메인 축에서는 소나무 군락 사이로 펼쳐지는 캐노피의 평면적 뷰를 마주하게 된다. 이는 진입축의 깊이감에서 오는 장엄함을 통과하여 드랍오프에 진입하게 된다. 드랍오프 상의 캐노피는 회랑의 수평적 라인과 결합되어 역동적인 형태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외부에서 인식되는 캐노피와는 달리 내부에서 출차를 위해 바라보는 캐노피는 근접소점에 의하여 정교한 디테일과 장엄하고 육중한 목재 프레임에서 오는 입체적 공간감을 느끼게 된다.



회랑, 구조적 패턴의 다층화

회랑은 클럽하우스와 온천빌딩과의 이동 동선을 만드는 기능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캐노피와 더불어 설해원의 새로운 상징적 축을 재현한다. 기존의 클럽하우스와 골프텔은 유기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의 부재로 인하여 명료하지 않은 동선으로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에 새롭게 구성된 회랑은 외부공간이되 내부공간의 성격, 즉 프레임으로 구성된 중성적 공간의 성격을 지닌다. 설해원의 진입축에서 보면 루버 프레임의 조밀도에 의해 하나의 입면적 프레임으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근경에서의 회랑은 시각적으로 개방된 중성적 연결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회랑의 공간이 지닌 미덕은 중묘의 공간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간과 공간을 물리적으로 연결 짓되 하나의 형태 속에서 해석되게 하는 것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



사진제공 © 김용관, ARCHFRAME



특히 회랑은 외부공간이지만 내부공간화할 수 있는 중성적 공간이자, 각기 다른 공간의 위계를 수평적으로 연결 짓고 하나의 볼륨으로 형태를 정리하는 게 특징이다. 이러한 전통적 체계 속에서 보이는 회랑의 공간성을 클럽하우스와 골프텔의 관계성을 연결하는 동선으로 해석하고자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본 프로젝트에서의 회랑은 후면 부지의 개발을 위하여 4.5m의 통과 교통을 위하여 높이가 설정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높이를 전제로 캐노피는

이보다 높은 5.5m로 설정되었다. 즉 회랑이 캐노피와 더불어 하나의 볼륨으로 해석될 수 있되 후면의 정원을 시각적으로 드러내 주고 새로운 통합적 체계로서 강한 축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를 구축하기 위하여 구조적으로 철골부재를 사용하여 추후 내부공간으로 확장할 경우 소방법상 내화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또한, 측면의 루버는 상부의 지붕재와 연결하여 두 가지의 구조 패턴으로 반복하여 사용하여, 보다 리듬감 있는

구조적 혼용을 기대하였다. 특히 전통적 다포양식에서 보이는 구조적 패턴의 다층화를 수평적 리듬감을 통하여 재해석하고자 한 점이 큰 특징이다. 특히 회랑과 캐노피가 만나는 면을 라운드 처리를 하고 기능적으로 최대한 캔틸레버로 기둥을 빼고자 하여 상부의 보를 철골로 혼용하여 사용한 것이 기술적인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준공 부문 | 특별상

원서 작업실

An Architectural Studio in Wonseo-Dong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30

대지면적 : 351.4m²

연면적 : 599.21m²

건축면적 : 198.56m²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조, 목구조

준공일 : 2021.12.

설계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시건축 유재은

시공자 : (주)시공작 이혜수



창덕궁과 북촌, 서울의 오랜 시간을 담고 있는 터에 작업실을 만들게 되었다. 전통과 도시가 만날 때 어떤 건축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 이런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원서 작업실 프로젝트는 시작됐다.

원서동의 시공간적 풍경

원서 작업실은 역사와 지금의 시대가 만나는 특별한 시공간 속에 존재한다. 창덕궁 비원의 서쪽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원서동은 조선 왕실을 돌보던 관리들이 모여 살던 동네다. 지금은 오래된 한옥과 유적 사이로 다세대 주택들과 이발소, 세탁소, 분식집 등 작은 점포들이 자리 잡았다. 이곳의 골목길을 거닐다 보면, 조선 시대의 전통적인 생활 모습과 현대 도시 생활이 교차하는 흥미로운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다.

동측에서 바라보면 세 개의 지붕이 독립된 건물처럼 보이며, 여기서 상승한 처마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맞배지붕의 측면이 정면처럼 보이면서 비원으로 열린다. 가운데 지붕은 회의실로 활용되며, 건물의 중심부로 기능한다. 북동쪽 전경에서는 두 개의 지붕이 비원 방향을 가리키며, 처마선의 상승이 독특한 조형미를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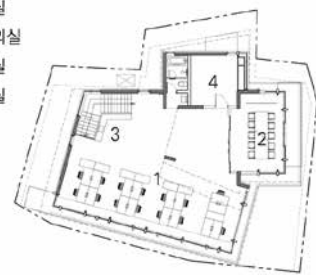




다섯 개의 지붕, 하나의 마을

북촌과 원서동의 역사를 지닌 한옥들은 그 규모가 작다. 건물을 새로이 지으면서도, 그것이 북촌의 모습을 거스르지 않길 바랐다. 따라서 크지 않은 여러 개의 형상이 모여 하나의 군집을 만드는 형태를 떠올렸다. 하나의 지붕이 마치 한 채의 한옥처럼 보이도록 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붕들이 하나들 모여 마을을 이룬다.

- 1 사무실
- 2 회의실
- 3 탕배실
- 4 휴게실



2층 평면도

- 1 사무실
- 2 회의실
- 3 탕배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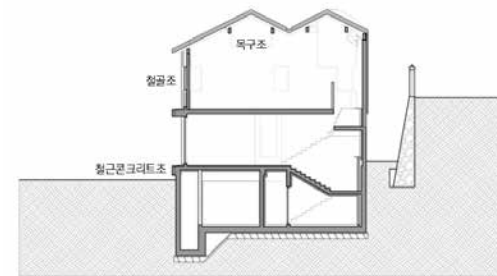
장소와 공간의 관계

원서동의 가파른 언덕에 건물을 앉혔다. 골목길의 경사는 비원을 향하고, 건축은 비원의 풍광을 건물 측면으로 정면처럼 받아들였다. 두 층의 슬라브 구조체는 경사길을 따라서 건물에 수평적인 균형감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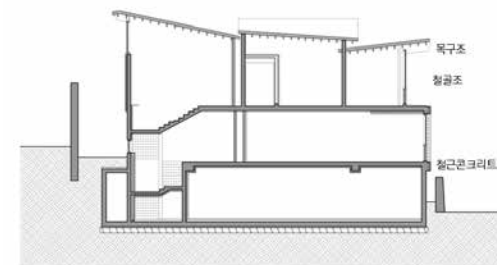


구조의 변화와 혼합

지하와 1층, 그리고 2층 슬라브는 철근콘크리트구조를 이용했다. 반면 2층의 기둥은 철골기둥과 중목기둥을 조합하여 구성했고, 그 위의 지붕은 중목구조가 사용되었다. 참마다 변화하는 기능과 요구에 적합한 구조를 탐구한 결과이다.



종단면도



횡단면도



전통 한옥 지붕의 현대적 해석

원서 작업실의 지붕 구조는 전통적인 맞배지붕의 재해석으로, 다양한 높이와 형태의 지붕들이 중첩되어 복잡하면서도 섬세한 형태를 만들어낸다. 용마루를 빗겨서 접으면 상승하는 처마선이 생긴다. 용마루를 빗겨 접은 지붕과 다양한 크기의 지붕을 중첩해 한옥의 상승하는 처마선을 표현하였다. 가운데 평지붕을 중심으로 펼쳐진 다섯 개의 지붕은 마치 손바닥을 펼쳐 먼 곳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각기 다른 방향으로 열린다. 동남쪽으로는 광활한 개방감을 제공하며, 북서쪽으로는 절제된 형태로 닫았다.





창과 확장성

건축은 대지 주변의 여러 경관을 향해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비례의 창을 열었다. 때로는 주변 건물과 높이를 맞추고, 때로는 주변 건물의 시야를 고려하며 소통한다. 서측면과 북측면은 내력벽을 콘크리트로 마감하여 개구부를 최소화했지만, 코너 부분은 모두 개방하여 비갈 풍경으로 향했다. 온전한 지붕과 절반의 지붕이 만나며 비대칭 균형을 이룬다.

비원을 닮은 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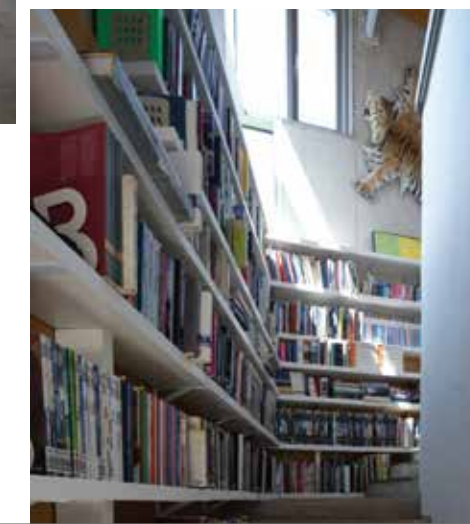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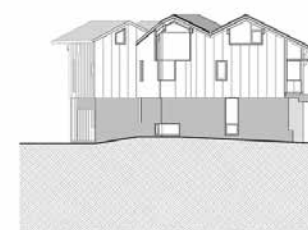
불규칙한 대지의 모양을 따라 건물을 배치하면서, 대지 주변으로 담장과 석축, 그리고 건물 주변으로 작은 외부공간들도 생긴다. 한국 전통건축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마당과 수목은 작업실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었다. 조경은 사계절 내내 자연의 변화와 그대로 마주하며, 비원과 연결된다.



원서 작업실 에필로그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창가로부터 작업실의 하루가 시작된다. 회의실에서는 열린 토론이, 창의와 논리가 마주치는 장이 된다. 모두의 아이디어가 모여 하나의 건축물로 형태를 갖추고, 그 속에서 삶의 이야기가 피어난다. 해가 기울고 노을이 창으로 들어오면, 잠시 멈춘 작업 속에서 원서 작업실의 풍경을 돌아보게 된다.

지금 이 시대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면서 현대 건축과 한국 전통건축을 항상 머릿속에, 가슴속에 그리고 양손에 각각 들고는 놓이지 않았다. 여기서 이 두 거대한 화두가 융합되었는지, 조합들이 되었는지, 아니면 나열이 되었는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쌓아 왔는데, 이제 사용을 하면서도 완성했다는 생각이 쉽게 들지 않았다. 모든 공사 과정을 요즘 시대에 쉽게 접하는 자재와 공법으로 일반 작업자들이 경제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했다.



사진제공 © 김용성

준공 부문 | 최우수상

진주백년공원

Centennial Jinju Park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245-110 일원
대지면적 : 24,719m²
설계자 : 소슬건축사사무소 왕성한
시공자 : (주)종합건설현범 김기홍(차량정비고),
인성산업개발(주) 박미양(구진주역사),
(주)만도건설 김태윤(복합커뮤니티 시설)



단절된 공간과 공유하는 기억의 복원

진주시는 도시의 주요 기능을 신도심으로 이전하며 꾸준히 확장해 왔으나, 2021년부터 방치된 구도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심 재생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개발 방향을 선회했다. 진주백년공원의 공간적 구상은 현황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오랜 시간 장성한 은행나무와 철도가 이루는 남북방향의 선형과 분산된 기능시설(차량정비고, 전차대, 진주역사)의 배치를 염두에 두고 도심 공원의 기본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향후 예정된 대규모 프로젝트(문화거리, 국립진주박물관)들과 공유하게 될 외부공간의 연속성과 경계부 전이공간의 확보도 함께 고려되었다. 건물은 철도역사의 전시와 가변적 문화행사, 그리고 휴식공간의 제공 등 중성적인 기능으로 국한되어 다목적 활용을 기대하며 진행했다.

진주백년공원은 남부권 도시재생의 마중물 사업으로 지난 백 년 동안 물리적으로 단절되었던 동서 방향의 도시조직을 잇고, 남북으로 뻗어나간 기존 철로를 따라 선형의 공원을 제공한다. 시민들이 오랜 시간 공유해 온 물질에 담긴 기억과 공간적 장소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시설과 활동을 수용하도록 완결된 형태가 아닌 열린 체계의 공원으로 씨줄과 날줄을 엮어 구도심의 변화를 수용하고 촉진할 수 있는 문화생산의 거점으로 계획했다.



차량정비고 리모델링

차량정비고는 국가등록 근대문화유산(제202호)으로 100살이 된 건물이다. 1925년 건립되어 6.25 전쟁을 거치고 2000년대까지도 사용되다 본래의 쓸모를 다하고 방치되어 있었다. 총탄의 상흔이 남아 있는 40미터 길이의 조적조 벽체가 12M 폭의 왕대공 트러스를 오토이 버티고 있었고, 필요에 따라 무질서하게 부가된 공간을 새로운 쓸모에 맞게 정비하고 이전 자취를 감춘 아치형 대문(4.2x4.9)을 복원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었다.



구진주역사 리모델링

구진주역사는 1953년 6.25 종전 이후 미 군정에 의해 신축되어 그 정확한 신축 시기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폐쇄적인 철도 부지와 도시를 잇는 게이트로서의 태생적 성격 덕분에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고쳐가며 이용되던 시설로 2020년에 마지막으로 사용된 식당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간 철도의 역사를 전시하고 공원을 시설을 관리하며 방문자를 안내하는 공간으로 계획하며, 공원 입구의 상징성, 전시공간으로의 변화를 준비해야 했다.



북합커뮤니티 시설 신축

북합커뮤니티는 향후 남강 변까지 연장될 '문화의 거리'를 지원하고 공원 방문자에게 간단한 식음료를 제공하는 휴게시설로 제안되었다. 오랜 시간 단절되어 있던 노후 주거지(서측)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동서를 잇는 주요 동선상에 자리하게 되었다. 기존 시설과 동일하게 수평성을 강조하며 지형의 미세한 굴곡과 장성한 수목에 대비를 이룬다. 아직 미완인 국내 목구조의 현재 상황을 기술적으로 또 미학적으로 드러내고, 미래의 목구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획했다.

차량정비고 리모델링

건축면적 : 602.30m²

연면적 : 602.30m²

규모 : 지상 1층

구조 : 조적구조, 목구조(목조트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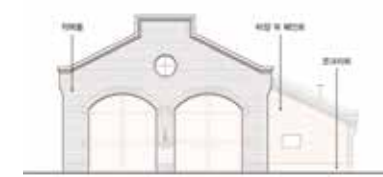
'점'을 짚듯 세밀하게 보수하기

차량정비고의 리모델링은 '3D 스캐닝'을 통해 건물의 구성구석을 정밀하게 파악한 후에 문화재 심의위원과 협의를 통해 보수가 진행될 부분을 가려내는 지난한 과정이 요구되었다. 기존의 목조트러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틈새와 힘이 발생했고 부분적으로 철물을 덧대며 보강했다.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을 징크 지붕으로 교체하며 단열을 추가하고, 부분적으로 남아 있던 PVC 창호는 목재 창을 제작해 교체했다. 정면의 아치형 출입구는 접합이 최소화된 강화유리로 내외부를 구분 짓고, 외부에는 사진기록에 남겨진 그대로의 모습으로 목재 문을 추가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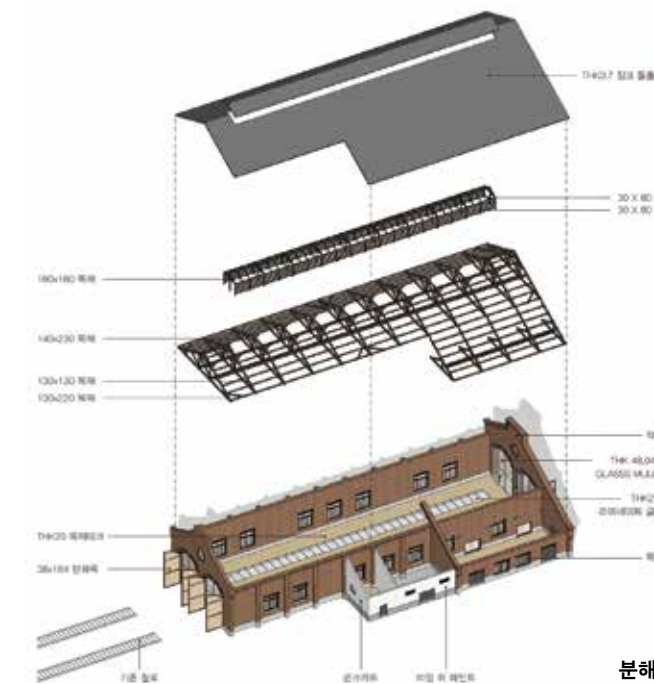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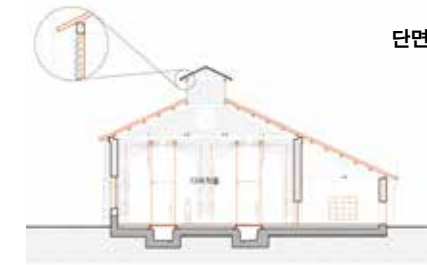
기차의 정비를 위해 파인 철로 하부는 다양한 공간 활용에 큰 제약이 되었기에 강화유리 바닥을 추가하여, 속살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철로를 따라 간접조명을 설치해 전시와 행사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며 장방형 축이 만들어내는 공간감을 강화했다.



입면도



단면도



분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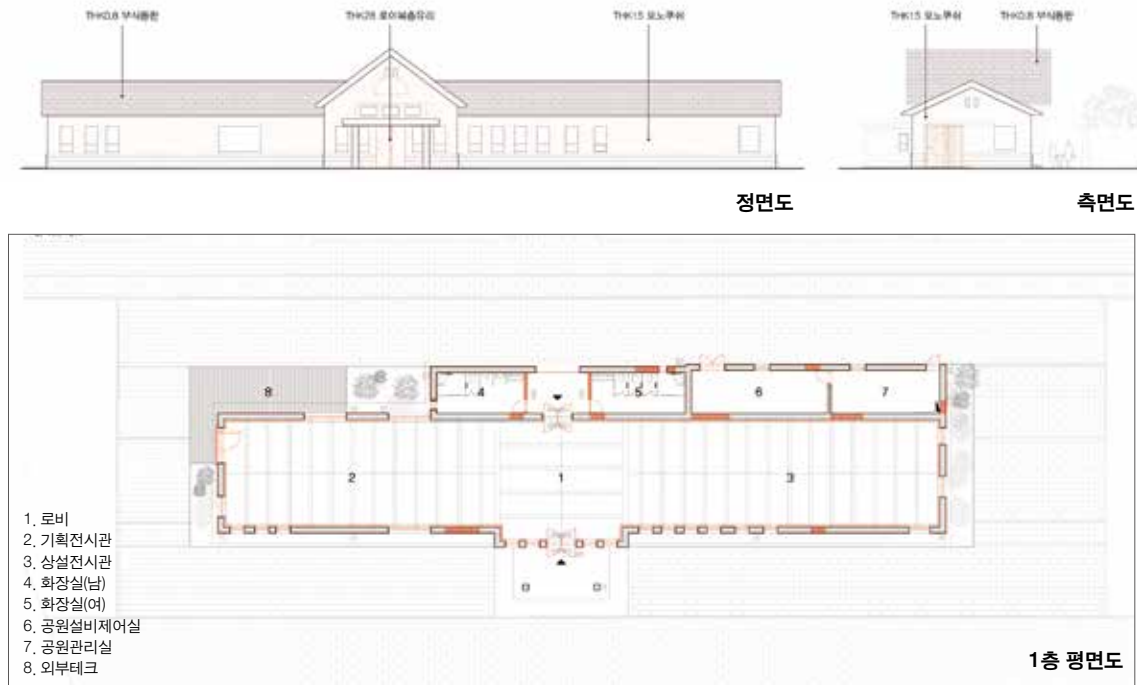
구)진주역사 리모델링

건축면적 : 549.14m²
 연면적 : 549.14m²
 규모 : 지상 1층
 구조 : 조적구조, 경량목구조(기존 목구조 보수유지)



맞이하기 위해 비워낸 공간

2000년 초반까지도 식당으로 이용되던 구)진주역사는 구도심의 쇠락과 함께 상업적인 목적도 유지하지 못한 채, 도심 한복판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붕을 덮으며 내부 공간을 구획하는 왕대공 트러스는 본래의 골격을 잃지 않고,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 구)진주역사 리모델링은 지난 세월 동안 무분별한 점유로 헝클어진 본래의 외관을 복원하는 데 집중하였다. 벽과 지붕의 단열 성능을 개선하였고, 상부 목구조의 노출을 통해 공간적 연속성을 유지하며 과거의 역사에서 현재의 역사박물관으로 이용되도록 계획하였다. 새롭게 단장한 구)진주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잇고 공유하는 기억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아카이브가 된다.



복합커뮤니티 시설 신축

건축면적 : 218.98m²
 연면적 : 218.98m²
 규모 : 지상 1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목구조(경골목, 중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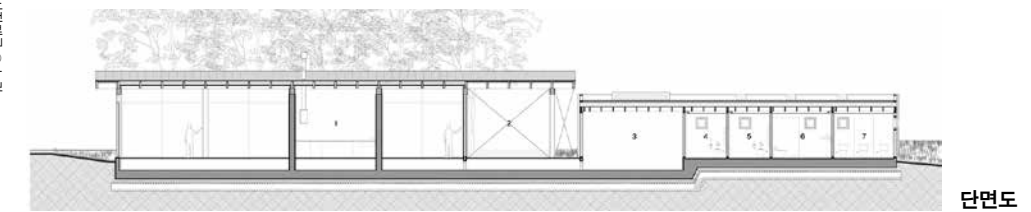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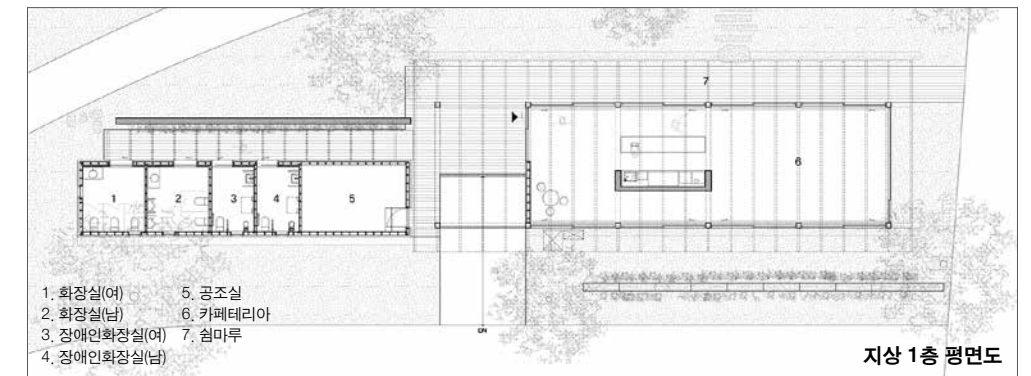


간결한 구조, 유연한 공간

복합커뮤니티 시설은 크게 두 공간으로 나뉜다. 우측의 카페는 구조적 간결성이 명확한 중목 프레임으로 공간을 형성한다. 통창으로 내·외부가 구분된 네 면은 시각적으로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하고 서측으로 길게 뻗은 지붕은 빛을 거르며 연속된 서까래 프레임을 통해 온전히 목구조를 경험하게 한다. 좌측의 서비스공간은 2"×6" 스티드로 이루어진 경량벽과 SIP공법의 지붕으로 계획되었다. 전면의 콘크리트월과 목직함 느낌을 주는 색상의 모노쿠쉬를 마감재로 사용하여 내밀한 공간임을 암시한다.

목직하고 가벼운, 가볍지만 목직함

4.5M 간격으로 늘어난 글루램 기둥은 보통의 중목구조보다 목직함 비례이다. 중앙 콘크리트박스를 더해야만 횡력에 오롯이 대응한다. 이는 강접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둥-보 결구와 구조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붕의 베벨사이딩 등 우리나라 목구조의 계산방식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반면에 기능실(화장실, 기계실)은 경골목 벽체에 SIP 패널 지붕을 결합해 단순한 박스형 평지붕으로 구성했다.



준공 부문 | 최우수상

무너미 스튜디오, 수유 하우스

Munomi Studio

위치 :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 188-8
 대지면적 : 117,27m²
 연면적 : 194,54m²
 건축면적 : 70,32m²
 규모 : 지상 4층
 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목조
 준공일 : 2023. 11.
 설계자 : 송실대학교 김정인, 테이블O 현재호
 시공자 : 이정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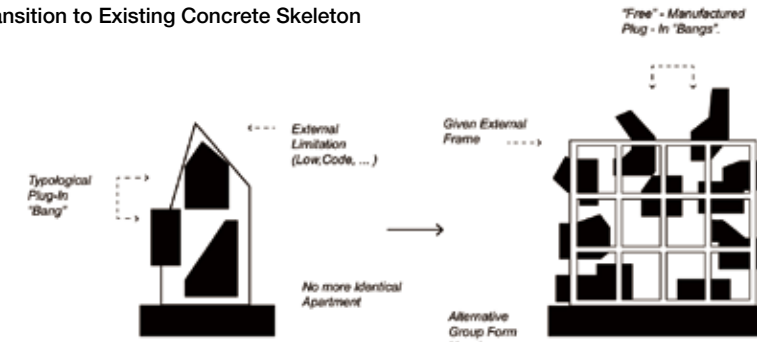


재정의된 도시주택의 공간적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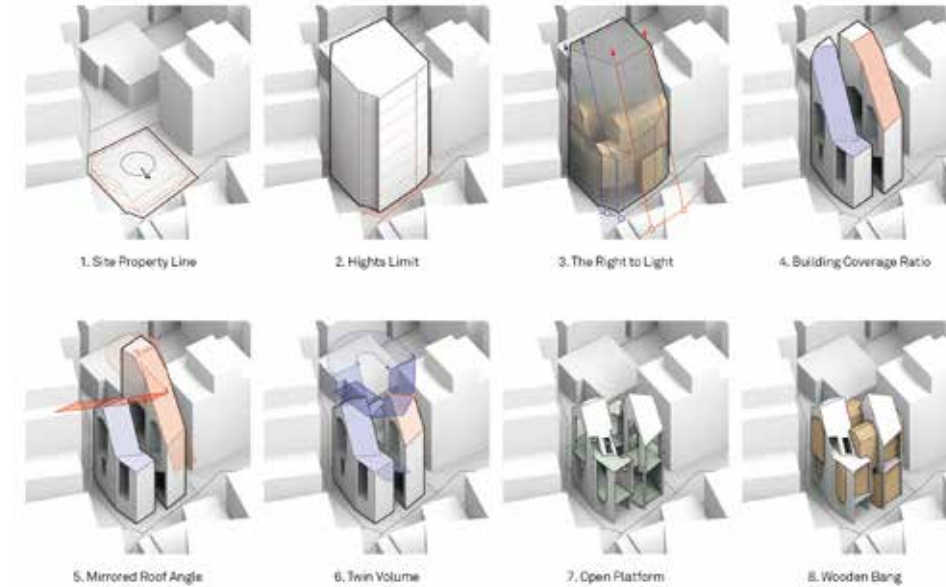
기존의 아파트 방식의 건설과 도시주택 구성 관행에서 벗어나, 수유 하우스의 건축은 수직으로 같은 유닛이 적층 되는 방식과는 다른 수직 구성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애초 계획은 서울의 기존 도시 구조를 보존하고 대대적인 철거와 재건축에 반대하는 것이었지만, 기존 건물의 매우 열악한 상태로 인해 재평가가 필요했습니다. 이후 디자인 초점은 법규로 인한 제한 사항을 존중하고 이를 역으로 생각해 디자인 요소로 바꾸는 동시에 기존 도시 맥락에 새로운 조직과 구성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건축 법규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작업자들의 장인 정신을 최적화하여 같이 사는 주거의 수직 통합뿐만 아니라 목재와 콘크리트의 조합에서 나오는 예기치 않은 우연적 상황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상호 침투로 인한 도시주택의 공간적 조직을 재정의하는 한편, 두 동이 완전히 분리되었지만 긴밀하게 통합된 연결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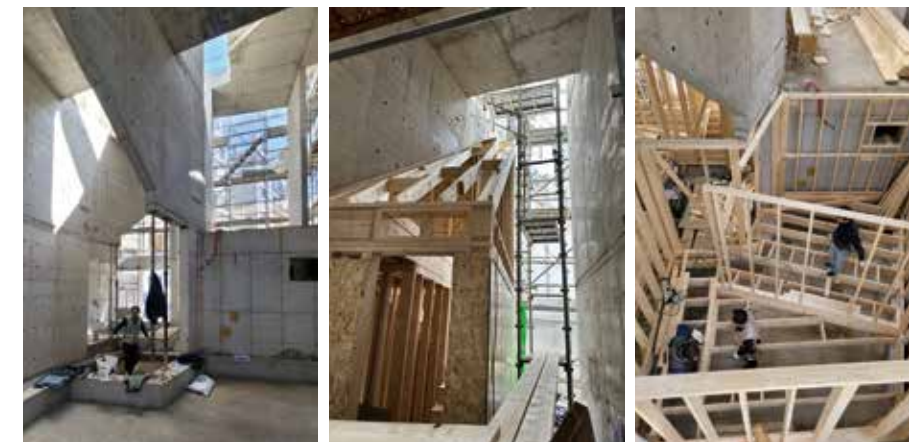
Transition to Existing Concrete Skeleton



Buildable Envelope to Frame the Skeleton



Wood Plug-in as Assembly Kit Into Concrete Skeleton



콘크리트와 목재의 '통합과 독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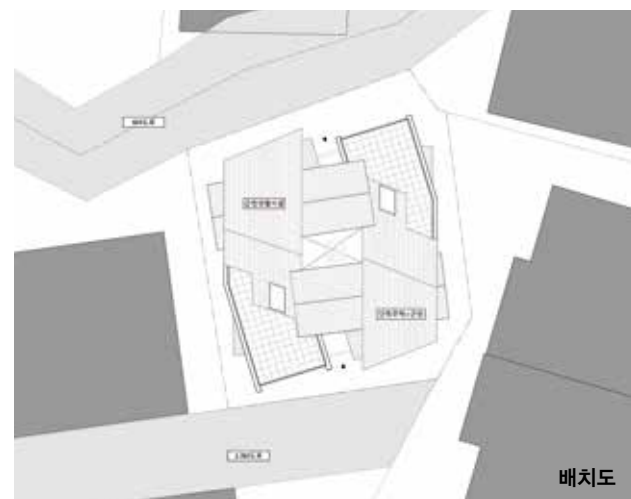
'통합'과 '독립'이라는 용어가 모순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수유 하우스는 한국의 전통적인 '방'을 목재 큐브와 박공지붕으로 전환한 가장 단순한 유형을 채택하고, 콘크리트가 지상 인프라 역할을 하면서 개방형 뼈대로 이를 지지하는 철근콘크리트와 하이브리드적인 목조 주택의 다른 형식을 선보입니다. 이 하이브리드적인 재료의 혼합은 서울의 고층 주거 현실에 대한 도전임과 동시에 실용적이면서도, 실내 조직에 대한 느슨한 용도(Loose-Fit)라는 사고를 구현합니다. 이는 목조건축을 고층화하는 데 처한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한계를 받아들이면서도, 경량목구조에 대한 이해, 국내에서 이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의 숙련도, 그리고 단기 건설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두 집 사이의 길, 그리고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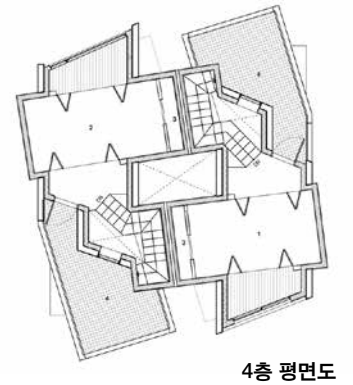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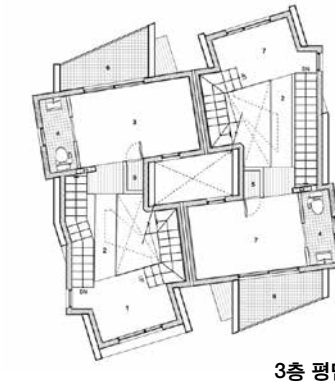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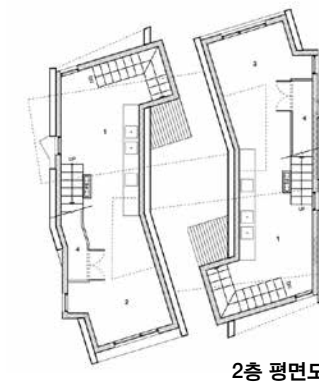
두 동의 집은 얽혀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중정의 공간입니다. 콘크리트와 목재의 사이길을 지나 건물의 중심에, 인접한 주변 건물로부터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출입구가 위치합니다. 상부는 오픈된 중정의 형태로 구성되어 어둡지 않고 쾌적한 공간이 연출됩니다. 출입구에 들어서서 순간 두 집은 완전히 분리됩니다.



두 친구의 쌍둥이 주택

역사적인 서울 강북구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수유 하우스는 북한산의 인수봉과 도봉산을 멀리 바라보며 목재와 콘크리트라는 두 가지 주요 재료를 흥미로운 방식으로 혼합한 건축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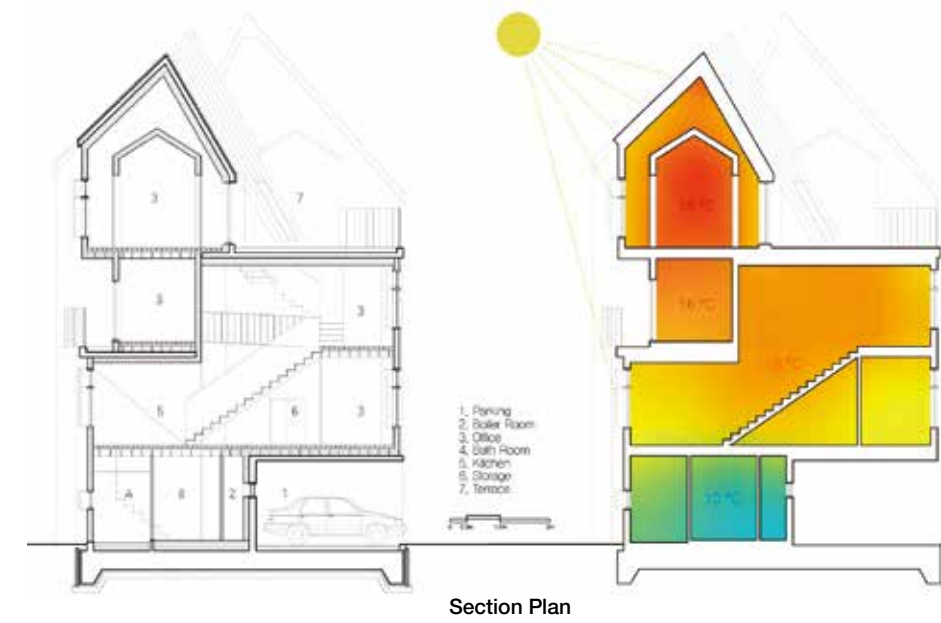
이 주택은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두 명의 집주인을 위해 설계된 쌍둥이 주택으로, 작은 출판사를 위한 공간과 1인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117m²의 작은 부지에도 불구하고, 이 쌍둥이 주택은 각 동에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욕실을 갖추고 있으며, 97m²의 컴팩트한 내부에는 수직으로 통합된 생활공간과 인접한 주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교감하는 그린 네트워크 공간

기후 변화의 급격한 변화와 예측 불가능성에 직면하면서, 수유 하우스는 폐쇄되지 않은 외피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모색합니다. 서울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겨울에는 영하 15도, 여름에는 40도까지 다양하고 적응 가능한 실내 공간을 실험합니다. 전통적인 지혜가 내재한 목재와 근대적인 재료인 콘크리트 재료를 통합하고, 지중해와 연관되고 항시 온화한 기후에서 그려지는 근대주의적인 이념을 거부함으로써, 수유 하우스는 서울의 수많은 아파트 단지의 대규모 재개발과 여기에 콘크리트를 무분별하게 부어 넣는 것과는 다른, 회복력 있는 건축 문화를 상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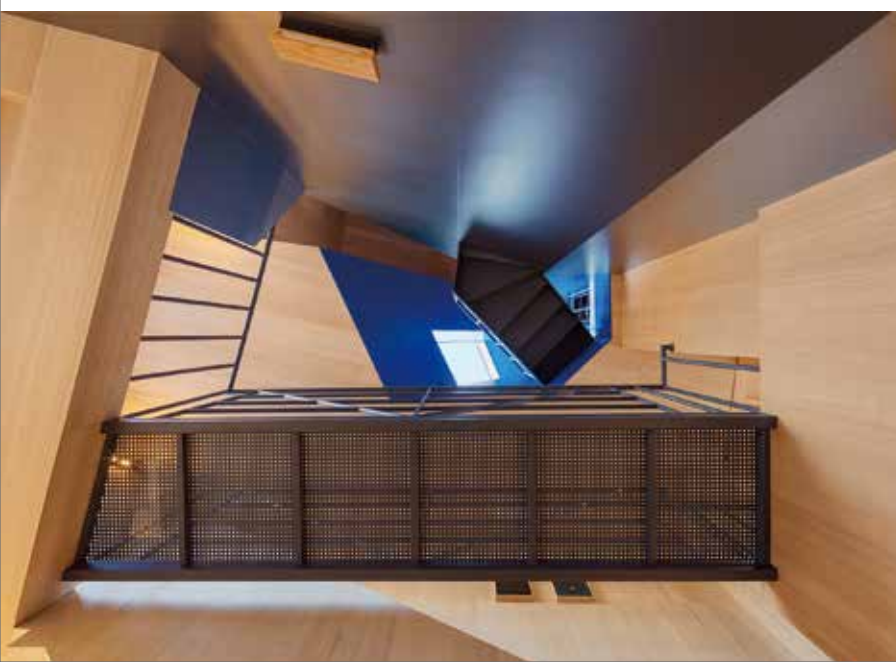


Section Plan

패시브 하우스의 재해석

수유 하우스는 목재와 콘크리트라는 재료 선택을 통해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에 대한 서울의 건축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부의 미시 기후를 만들기 위해 목재와 콘크리트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강조합니다. 목재와 콘크리트의 혼합에서, 콘크리트 뼈대는 목재로 플러그인 된 방의 작은 구조물을 위한 지지 요소로 작동합니다. 반면에 목재는 프레임과 합판으로 구성된 단순한 어셈블리 공간으로

구성되어, 콘크리트 위에 수직으로 쌓인 다중의 외피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디자인 선택은 목재를 CLT 또는 글루램(Glulam)과 같은 전체 구조 대체 재료로 인식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대신, 콘크리트는 목조 방의 플러그인을 지지하는 별거벗은 최소한의 구조로 사용됩니다. 이 조합은 건물 외피 내에 여러 층을 만들어 높이에 따른 열 성능을 발휘하며, 최하부와 최상층 공간에 8~10도의 온도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진제공 © 김태영

준공 부문 | 우수상

사봉밥집

Sabong Bapjip

위치 : 경남 진주시 사봉면 봉곡리 1107-1

대지면적 : 3,873.9m²

연면적 : 535.48m²

건축면적 : 535.48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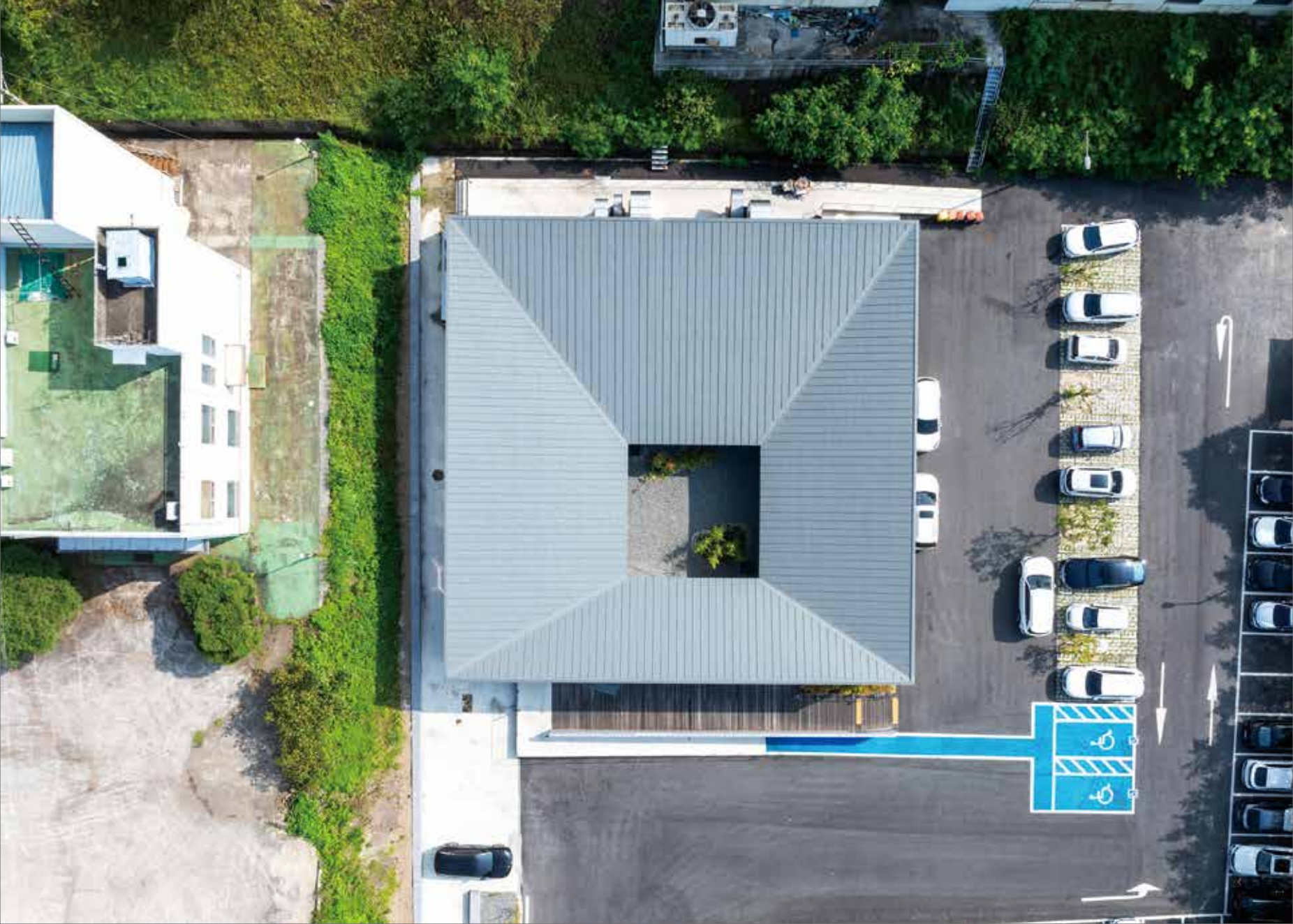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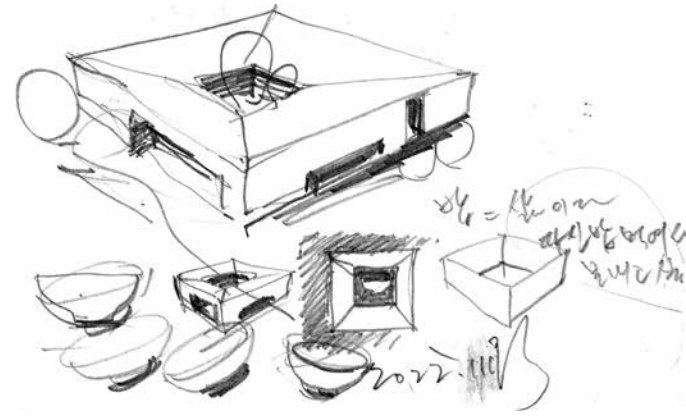
규모 : 지상 1층

주구조 : 중목구조

준공일 : 2023. 12.

설계자 : 조은허기윤건축사사무소 허기윤

시공자 : (주)연진건설 정태균



사봉밥집에서 따뜻한 밥을 기다리며...

현재 18개 기업, 44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경남 진주시의 사봉농공단지는 2021년 코로나 여파로 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기존 공동 구내식당이 문을 닫았다. 때문에, 개별 식당을 운영하는 별도의 기업 이외에는 식사를 위해 2km가 넘는 거리를 오가거나 배달음식, 도시락 등으로 한 끼를 해결하고 있었다. 복지 중의 최고의 복지는 구내식당이라 할 만큼, 식사환경이 근무 여건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요즘, 특히나 교통이 멀고 주위 환경이 열악한 이곳 공단 역시 큰 숙제였다. 그래서 기존 공동식당 부지에 다시 연면적 535.48m², 200여 명이 식사할 수 있게 급식소 건물을 확장 신축하게 된다. 더불어, 편의를 위한 식당 기능을 넘어 입주기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근로자들의 심리적인 안정까지 함께 고민했다. 이에 따라, 인근의 시민과 외부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기업체 회의장과 근로자들의 커뮤니티 장소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 지원 시설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표정 있는 전이공간

기존 공동 구내식당 위치를 승계함에 따라, 건물의 사용성에 이질감이 없도록 조정, 주차장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계획을 시작했다. 건물바닥을 지면으로부터 90cm 높이고 경사로를 통해 낮은 담장을 돌아 입구로 진입하여 식당에 앉았을 때 주차장의 차와 외부인의 시선이 직접 마주치지 않게 했다.

현대적이되, 한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다듬어 나가는 과정을 입구에 표현했다. 살짝 파냄과 동시에 돌출시킨 입구는 외부인듯한 내부로, 목구조가 더욱 도드라져 보여 공간의 활력을 채운다.

식사 공간은 때때로 근로자들의 회의 장소, 커뮤니티 장소 등 다양한 용도(외국인 근로자들의 소모임, 결혼식 등 연회장)로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획하여 풀딩도어로 분리되는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목조건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이번 건축물의 핵심 구조를 목조로 선택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는 시대에 걸맞게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위 4대 중핵과제 중 국가 상징 공간 조성, 17개 정책과제 중 목조건축 대중화 및 목조도시 활성화에 부합될 수 있도록 했다. 구조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2"×6" (38×140mm) 경량목구조 벽식과 중목구조 지붕을 혼용했다. 이러한 벽체는 횡력을 잡아줌으로써 구조적인 안정을 이루어, 가새를 생략할 수 있다. 목재 천정보가 노출된 실내는 친환경적인 동시에 구조가 곧 마감인 장점으로 별도의 인테리어가 없이 미적인 아름다움도 함께 누린다. 동시에 단열재와 징크 지붕 마감을 이루는 틀의 역할도 수행한다. 주 출입구를 아우르는 개방된 대경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트러스를 사용하여

경제성을 높이는 동시에, 진출입의 넓은 전이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사봉밥상에는 오스트리아산 스프러스 집성재를 사용했다. 식사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밝고 친환경적인 요소를 조금 더 부각하고자 했다. 스프러스 집성재는 웅이와 송진이 가장 적고, 친환경적인 멜라민수지를 사용해 접착면이 투명해 미관이 아름답다. 또한, 국내 육송과 가장 비슷한 색상을 지녀, 고즈넉한 한옥에서 식사하는 듯한 고급스러움도 더한다. 구내식당의 공간 특성상, 대부분 사람이 머무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이용객 다수가 성인임을 고려하여 오염의 걱정은 크지 않아, 근로자들의 밝고 쾌적한 휴식 환경 조성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었다. 더불어 국내산 집성재 대비, 운송비를 포함하여도 10% 정도 시공비를 낮추는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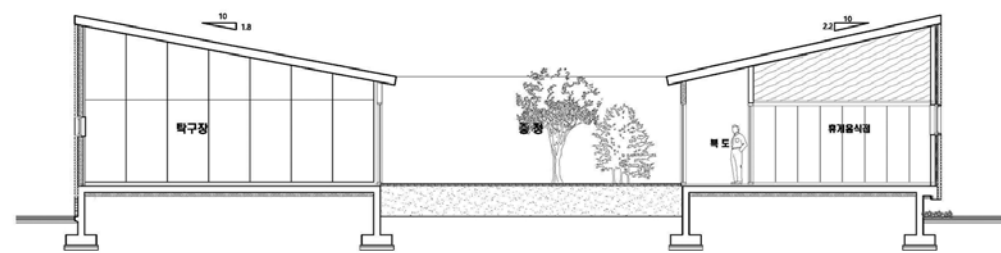


지붕은 안쪽 중정으로 모으되, 처마를 깊게 내밀었다. 내부로 면한 통창으로 빛은 밝게 들어오지만, 식사에는 방해되지 않게 배려했다.

마음의 허기를 달래는 중정

안정감을 주는 □자 내부 구조에 넓은 통창을 통해 보이는 작은 중정을 두어 실내 어디에 있던 자연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업무에 지친 근로자들이 잠시나마 휴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빛이 스며드는 중정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쉼터 역할도 수행한다. 비 오는 날, 빗물받이 없이 처마를 따라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마음도 함께 풍족해지기를 바란다.

횡단면도



사봉밥상의 전체적인 입면은 사각형의 중후한 느낌을 주지만, 주차장에서 바라보는 입면에 일부 분절된 메스를 삽입하여 지루한 입면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건물을 전체적으로 띄워주는 느낌을 만들었다. 차칫 단조롭게 대지에 눌러앉은 듯한 육중함을 줄였다.



지상 1층 평면도

점심이 있는 삶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에게 점심시간은 밥을 먹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사봉밥집은 잠시나마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와 휴식, 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에게 점심이 있는 삶을 실현하게 할 것이다. 근로자들에게 힘을 주고 삶의 활력을 북돋아 주는 역할과 함께 회의장, 회식 장소로도 사용하는 등 명실상부 기업, 근로자 모두의 사랑방이 되기를 기대한다.



준공 부문 | 우수상

용대보건진료소

Yongdae Health Clinic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569번지

대지면적 : 2,277m²

연면적 : 296.04m²

건축면적 : 296.04m²

규모 : 지상 1층

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목구조

준공일 : 2023. 8.

설계자 : 바른건축사사무소 전서희

시공자 : 한덕철광산업(주) 오지호

이용자를 생각한 공간 배치

용대보건진료소는 보행자와 차량의 진입 동선을 분리하여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일반 차량 18대, 장애인 차량 2대, 총 20대의 주차를 배치하였다. 또한, 야외 쉼터를 조성하여 이용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용대보건진료소는 진료동과 숙소, 2개의 동으로 계획했다. 진료동은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강증진실과 진료를 볼 수 있는 진료실로 분리되어 프로그램의 간섭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숙소는 보건진료소와 별도로 배치하여 의료인의 생활공간을 분리했다.



1층 평면도



자연을 담은 보건진료소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위치한 용대보건진료소는 1,200명가량의 용대리 주민에게 더 나은 환경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되었다. 기존의 용대보건진료소는 건물 노후화가 진행되어, 2021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었다.

신축된 용대보건진료소 사이트는 북쪽으로 매봉산, 남쪽으로 설악산과 안산이 위치해 경관이 훌륭하다. 그래서 발주처에서 요구한 프로그램과 경관이 어우러지도록 계획했다.





주민들을 위한 진료동

보건진료소는 건강증진실, 진료대기실, 진료실, 건강관리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진료소 내부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했다.

진료공간은 건축물 내부에서도 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높은 층고와 통창을 통해 자연 방향으로 열린 공간을 계획하여 시각적인 개방감을 주었다. 특히 진료대기실의 천장은 지루한 대기실이 아닌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또는 라운지를 이용하는 느낌을 준다. 진료실 내부에는 외부 조망이 가능한 큰 창을 배치하여 환자에게는 안정감을, 의료진에게는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준다.



직원을 위한 숙소

숙소는 직원의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거실, 주방, 방, 화장실, 팬트리, 미당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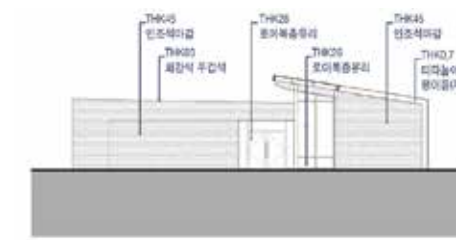
숙소에 계획한 창은 자연을 담으면서 개방감을 제공한다. 숙소의 남측 면에는 고층창을 두어 사생활 보호와 일조량을 충족하였다. 또한, 숙소의 우측면과 후면에 작은 미당을 두어 사적 외부공간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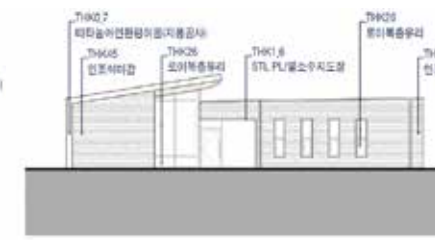
평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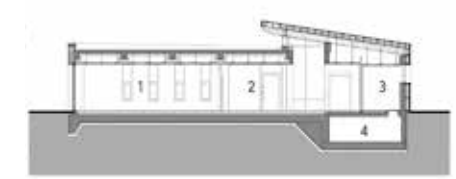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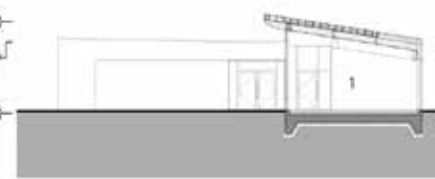
주단면도 1



주단면도 2



주단면도 3



친환경적인 중목구조

용대보건진료소는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사용하면서, 목재 구조체를 그대로 노출하였다. 조명, 공조 등 전기·설비 시스템을 중목구조 안에 매입하여 실내 천장 마감에 깔끔하게 마무리하였다. 목구조가 드러난 처마는 일사량을 조절해 주며, 처마 끝을 사선으로 잘라내어 시야를 확보하고, 중목구조의 무거운 느낌을 상쇄하려 하였다. 건축물 내부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목재 구조체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건축 마감이 가능하게 하였다.



사진제공 © 김용수

준공 부문 | 우수상

하늘목장 양 먹이주기 체험장

SKY RANCH SHEEP HOUSE

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꽃밭양지길 458-28

대지면적 : 6,735m²

연면적 : 308,88m²

건축면적 : 308,88m²

규모 : 지상 1층

주구조 : 목구조(중목구조)

준공일 : 202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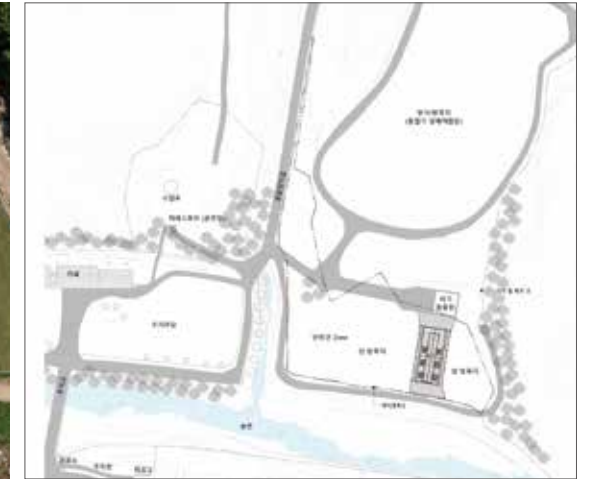
설계자 : (주)지에이건축사사무소 경민호, 최낙훈

시공자 : 필진종합건설(주) 김수인, 채우림 최성근



국내 최초의 자연 순응형 체험목장, 대관령 하늘목장

300만 평의 드넓은 초지를 가진 대관령 하늘목장은 자연을 직접 체험하는 국내 최초의 자연 순응형 체험목장이다. 자연 속 본연의 모습 그대로 동물들이 살기 좋은 생태 그대로를 보전하며, 자연과 동물 그리고 사람이 함께 직접 교감하며 즐기는 이곳에 하늘목장이 조성되어 있다. 하늘목장은 세계 최초로 조성된 고지대 초지 목장으로, 낙농인증 체험목장 중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하늘목장은 천천히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첫 시작으로 전 세계 2만여 마리만 현존하는 희귀종 흑비양을 볼 수 있는 100여 평 규모의 목구조 먹이 체험장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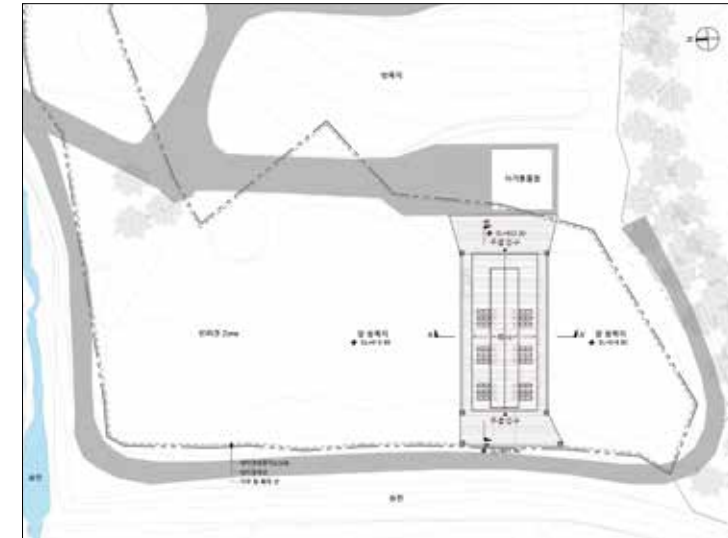


사람이 아닌 동물을 위한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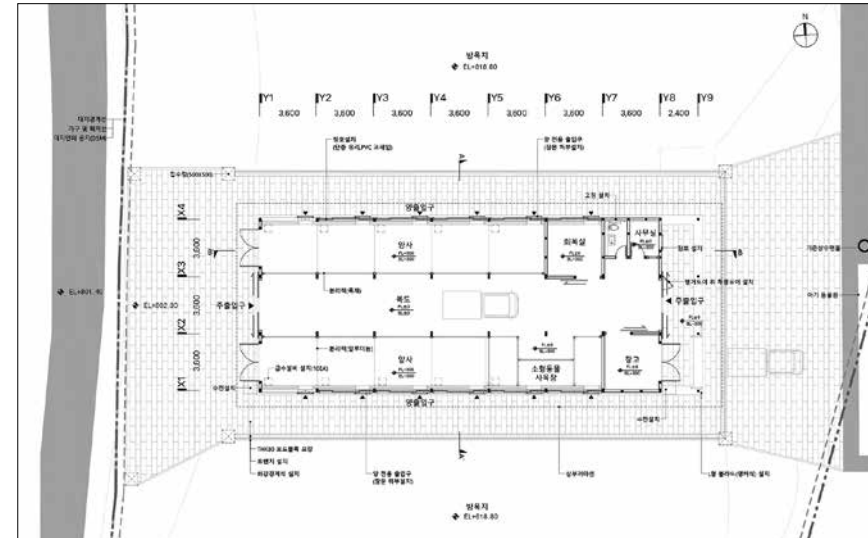
하늘목장 체험장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양들의 쉼터이자, 추운 겨울바람을 막아줄 안식처이다. 목초지로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양 전용 출입구를 계획하고, 성장하는 양의 크기를 고려하여 울타리 나무 목책의 높이를 달리 하도록 고안했다. 양사 내부의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의 진입을 고려하여 회전이 가능한 철제 울타리를 고안하고, 다양한 종류의 동물 특성을 고려하여 울타리의 크기를 변형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배치도



평면도



아이들이 동물과 교감하는 집

천혜의 자연, 대관령 품에 자리 잡은 하늘목장 체험장은 양을 위한 내부공간과 더불어 주변의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아이들의 무한 상상과 꿈을 담은 하늘목장 체험장은 동물과 교감하는 어린아이들의 첫 장소가 될 것이다. 하늘목장 체험장의 돌출된 처마 공간은 방문자의 대기 장소가 되고 그늘을 제공한다. 체험장의 자연환기를 위해 하부 측벽에는 미닫이창을, 상부 측벽에는 전동환기창을 설치했다.



준공 부문 | 장려상

토끼뜰

Rabbit Yard



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174
대지면적 : 2626m²
연면적 : 354,73m²
건축면적 : 354,73m²
규모 : 지상 1층
주구조 : 중목구조, 경량목구조
준공일 : 2024. 6.
설계자 : (주)소다건축사사무소 정대호
시공자 : (주)에담건설 이충원

프롤로그

70대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고추장, 된장, 간장을 직접 담그며 1남 2녀를 정성으로 키우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성장한 뒤 어머니는 장 담그는 일을 그만두셨지만, 그 깊고 진한 장맛은 가족들에게 여전히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장맛을 세상과 나누고자 했던 딸은 어머니의 손맛을 되살려,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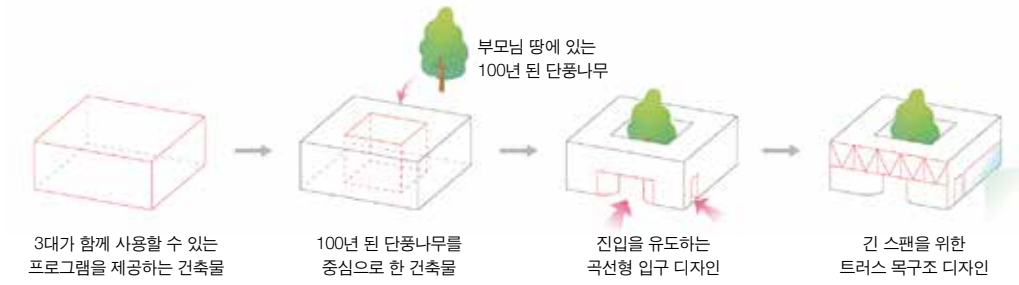
또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만들어주셨던 간식들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장맛은 장성한 50대 딸이, 어머니의 간식은 20대 손녀가 이어받아 전하기로 했습니다. 3대가 이어온 이들은 어린 시절 뒹눴던 장성의 토끼뜰에서, 그들의 꿈을 목구조 건축물에서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100년 된 단풍나무를 중심으로 한 건축물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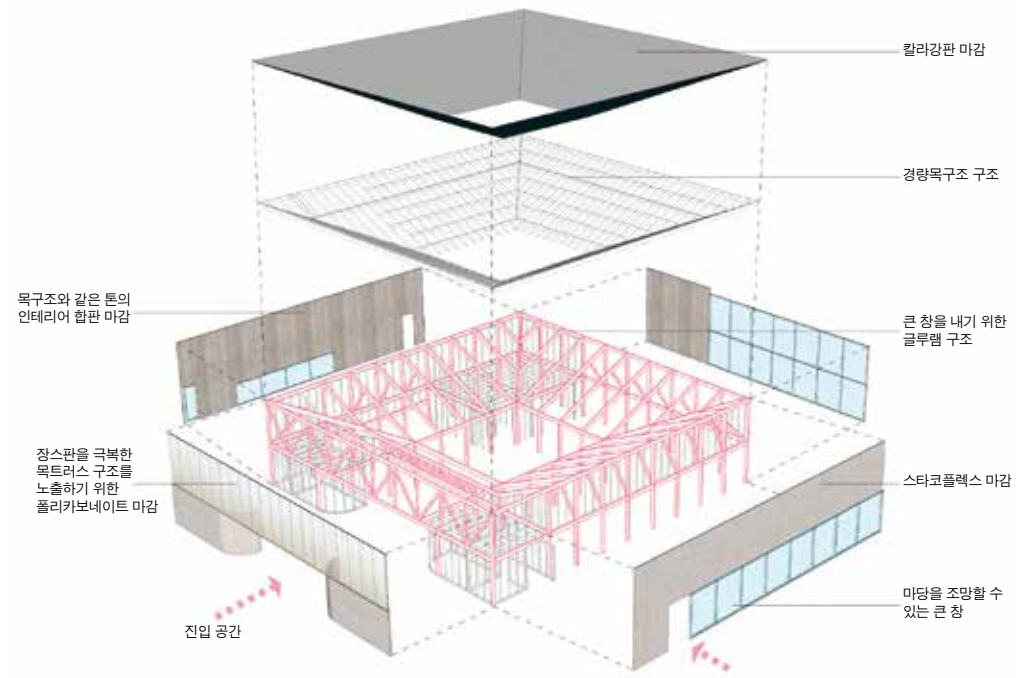
부모님 댁에는 100년 된 단풍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50년 전 선산에서 옮겨 심으신 이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집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수형은 아버지의 세심한 손길 덕분에 더욱 돋보이며, 이러한 상징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건물의 큰 형태가 결정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이 건물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100년 된 단풍나무입니다. 이 단풍나무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이, 오른쪽에는 다양한 간식을 맛볼 수 있는 카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공간은 단풍나무가 자리한 중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큰 창으로 연결되어, 언제든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공간이 만나는 동쪽에는 공유주방이 있으며, 남쪽에는 3대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당은 카페에서도 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긴 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1. 카페
- 2. 식당
- 3. 커피바
- 4. 베이킹룸
- 5. 주방
- 6. 여자화장실
- 7. 남자화장실
- 8. 직원실
- 9. 가족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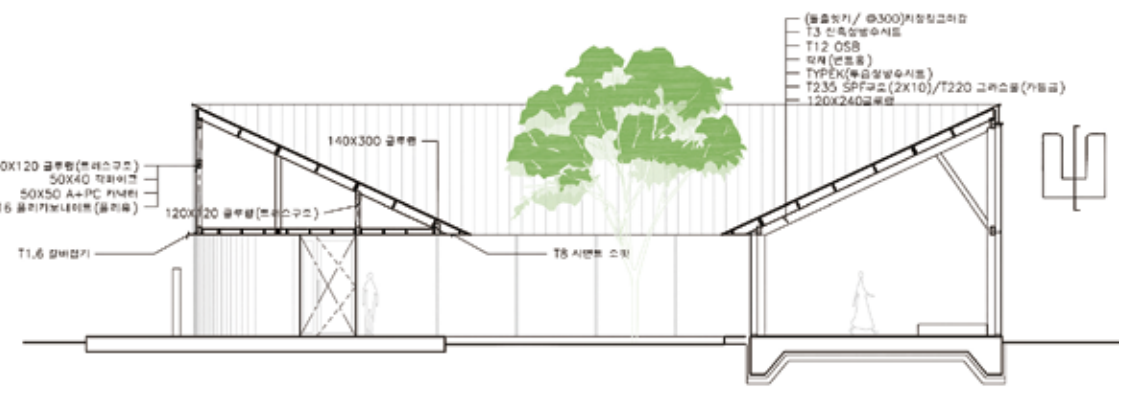
트러스 구조를 활용한 넓은 진입마당

많은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진입마당은 건물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목구조의 한계 중 하나는 기둥간의 스패인 짧아 넓은 공간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트러스 목구조를 도입하여, 넓은 스패인을 확보하면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트러스 구조는 그 자체로도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이를 살리기 위해 폴리카보네이트로 마감하여 속이 은은하게 비치도록 했습니다. 모시 옷감처럼 은은하게 드러나는 트러스 구조는 외부에서도 건물의 솔직한 목구조를 드러내어, 건물의 독창적인 아이덴티티를 형성합니다.



브레이스 구조의 다기능성

지붕의 서까래와 기둥을 구조적으로 보완하는 브레이스 구조는 공간의 안정감을 제공하며, 이용객에게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레이스 구조는 단순한 구조적 역할을 넘어서, 조명을 결합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더욱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미니멀 목구조 디자인과 디테일

건물의 디자인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며, 완성된 선들이 얇고 정교하게 표현되기를 원했습니다. 목구조의 결합 역시 철물보다는 높은 강성을 자랑하는 Rothoblass 피스를 사용해 결합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미적 감각을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또한, 6T 알루미늄 철판을 이용한 창 캐노피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와이어로 결속하여 구조적 보안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설계와 구조적 요소들로 건물의 미적 완성도를 높이기를 기대합니다.



준공 부문 | 장려상

이우집

Iwoojip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297-19
 대지면적 : 898m²
 연면적 : 393.41m²
 건축면적 : 289.6m²
 규모 : 지하1층, 지상1층
 주구조 : 경량목구조
 준공일 : 2023. 11
 설계자 : (주)비유에스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박지현, 조성학
 시공자 : 신민철



스스로 선택한 이웃 : 협업자이자 친구인 두 건축가의 집

이우집은 두 친구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마침 집이 필요하게 된 두 친구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하는 것보다 서울 근교에 주택을 짓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원주택의 삶은 난관이 많다고 하지만 스스로 이웃을 선택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땅을 나누고 건축물의 배치, 높이, 형태, 진입 동선 등 함께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한 뒤 각자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만의 마을 단위계획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서로의 사적인 영역은 보호해 주고, 시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열어 줍니다. 담장 일부에 슬라이딩도어를 만들어 언제든 두 집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상 1층 평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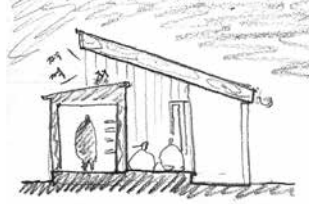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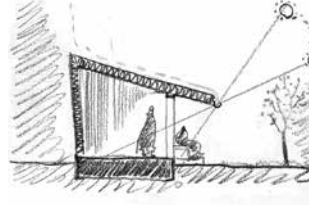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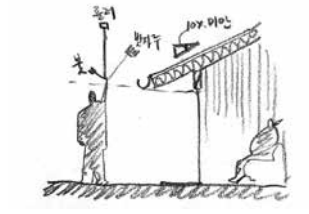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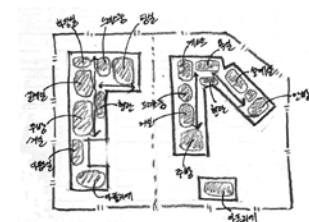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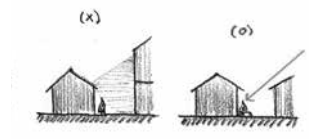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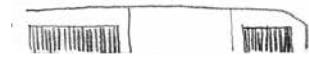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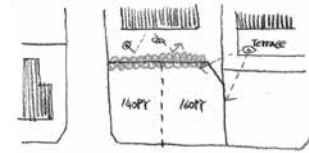
경량목구조-38mm가 만든 세계

경량목구조를 이루는 38mm 두께의 스테르드는 우리말로 셋기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경량목구조를 단지 내력벽 구조로 바라보는 게 아닌 작은 셋기둥이 모여 만들어진 재료의 집합체로 인식할 때, 경량목구조의 가능성은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벽과 지붕은 38mm의 셋기둥을 406mm의 간격으로 세워 만드는데, 이 치수는 중목구조의 부재보다 작고 간격도 좁아서, 사사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데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 처마에 노출된 셋기둥의 집합은 한옥 처마에 노출된 중목구조의 분위기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벽체를 이루는 셋기둥을 노출하고 그 밖을 커튼월로 감싸면 셋기둥은 루버의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귀엽고 사소한 리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벽에 개구부를

만들 때 셋기둥을 엮어 헤더시스템을 만들어주는데, 2×6의 셋기둥을 위아래 놓고 가운데 2×10을 세우는 방식이라 셋기둥 조합 중 제일 두꺼워 보입니다. 노출된 헤더는 개구부 주위로 안정된 힘의 흐름을 은연중에 보여줍니다.

이우집은 38mm 셋기둥의 집합체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며 지은 집입니다. 지붕 처마의 서까래를 외벽 마감과 분리하기 위해 셋기둥의 시작점을 조절했고, 벽체 셋기둥을 노출하기 위해 하나씩 덧대어 76mm의 셋기둥을 만들었으며, 헤더를 노출하기 위해 마감재와 헤더의 결합 위치를 섬세하게 계획했습니다. 경량목구조는 38mm 셋기둥으로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1. 300평 땅을 나누어 두 채의 집을 짓기로 합니다.

2. 이웃을 위해 단층의 집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함께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하고 각자 설계를 합니다.

3. 이웃집의 평면을 살피며 서로의 사적 영역을 보호합니다. 단차로 인해 생긴 주차장은 서로 맞대어 설계하여, 공사비의 부담을 나눕니다.

4. 목구조는 경사지붕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올라갈 정도로 완만해야 하고 그 높이도 적당해야 합니다.

5. 경사지붕이 연속되어 나온 처마 덕분에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6. 경량목구조의 구조부재는 집 곳곳에서 보입니다. 목구조 벽에 생긴 틈은 새들의 집이 되기도 합니다.



사진출처 © 노르



전원의 공공성

전원의 주택이 도시의 상황과 다른 것 중 하나는 입면의 제한이 적다는 점입니다. 미관심의를 받을 가능성이 적을뿐더러, 경계선에서 여유로운 이격으로, 차면시설이나 주변 집과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할 걱정도 줄어듭니다. 이점이 오히려 건축의 공공성을 도시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있는 듯합니다. 입면 디자인에 제한이 없어지므로 건축가는 전원의 공공성보다 개인의 사유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우집의 경우 각 집을 남향의 채광을 가지는 마당으로 배치를 하니, ㄱ집의 배면을 바라봐야 했고 ㄴ집의 배면은 도로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는 입면이 되었습니다. ㄷ집의 배면은 북서향의 고층창으로 프라이버시와 채광을 해결했는데, ㄱ집의 마당에서만 보이는 ㄷ집 실내의 목재 곡면 마감은 밤이 되면 은은한 빛을 내며 새로운 풍경으로 변하게 됩니다. ㄴ집의 배면은 도로에서 봤을 때 창이 보이지 않도록 하며 높이를 낮춰, 단정한 인상을 주도록 합니다.

거실의 천장은 합판을 그대로 노출해서 마감재로 활용했습니다. 배면의 낮은 매스는, 거실에서 움푹 들어간 포켓 공간으로 양 측면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KOREA WOOD DESIGN AWARDS

2024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계획 부문 수상작

대상 | 기계나무의 나이테 (기록과 역사를 담은 거청조선소 리모델링 계획안)

대상 | 동서고금, 동서양 목구조를 융합한 목조성당 계획안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특별상 | 팀-워크 (팀버를 활용한 고층 복합문화시설 계획안)

최우수상 | 도시기반시설의 비-일상공간 전환 (TSC 강화 집성목을 활용한 복합구조 주차타워 계획안)

최우수상 | 모여봐요! 방과후 목욕탕 (Welcome to Afterschool Spa)

우수상 | 자연 속 자연 (단양 생태탐방원 계획안)

우수상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파사드 리노베이션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1 Facade Improvement Plan)

우수상 | 대명동 도시농업 문화시설 계획안 (A.C.C. Agri + Cultural Cluster)

구조디자인상 | 이음;所 (경유뿐만 아닌 머무름으로 확장되는 휴게소 프로젝트)

장려상 | 서목원 書木園 (지식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공간_개방형 수장고와 도서관)

장려상 | 금마 문화시장 (과거를 품은 나무의 미래)

장려상 | 옛 경주역 부지 문화복합시설 계획안 (Glulam Mega Roof)

장려상 | 돈의문 전통부재 박물관 (Girderless Museum)

장려상 | 너나들이 문화광장 (문화재와 함께하는 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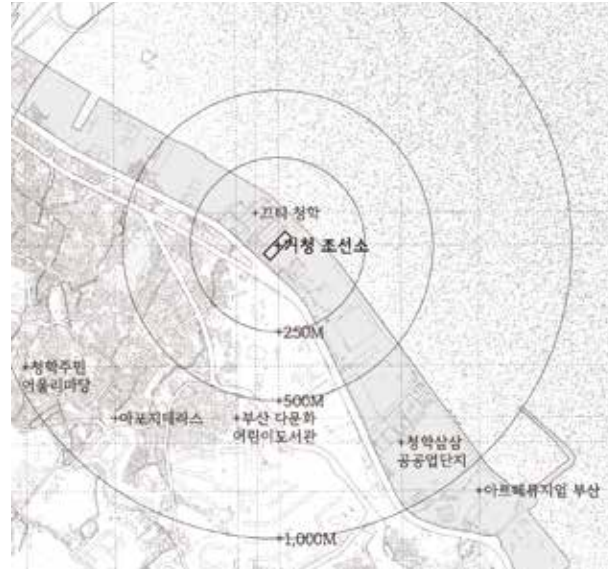
계획 부문 | 대상

기계나무의 나이테

: 기록과 역사를 담은 거창조선소 리모델링 계획안

문홍욱, 문인석(경북대학교 건축학과)

위치 : 부산 영도구 해양로 125
용도 : 교육연구시설
구조 : 철골, 목구조
규모 : 지상 5층
대지면적 : 15,783m²
연면적 : 9,292m²
건축면적 : 3,000m²



PRO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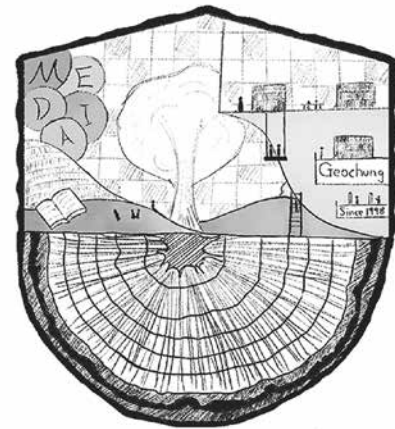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영도에 위치한 거창조선소는 영도 조선산업의 쇠퇴에 따라 폐공간이 되었다. 부산국제사진제, 맥주페스티벌 등의 여러 문화적 부흥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비어 쓰임을 잃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곳에는 조선소로서 영도의 조선산업을 이끌어나갔던 흔적과 이야기가 건물에 남아있다. 지어진 모든 건물에는 인간이 마땅히 이어나가야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한 그루의 나무는 성장하며 그 세월의 흔적과 이야기를 나이테에 기록한다. 나무가 역사와 이야기를 나이테를 통해 기억하듯 리모델링을 통해 인간이 만든 공간의 역사를 보존하고 새로운 이야기가 자라날 영도도서관 계획안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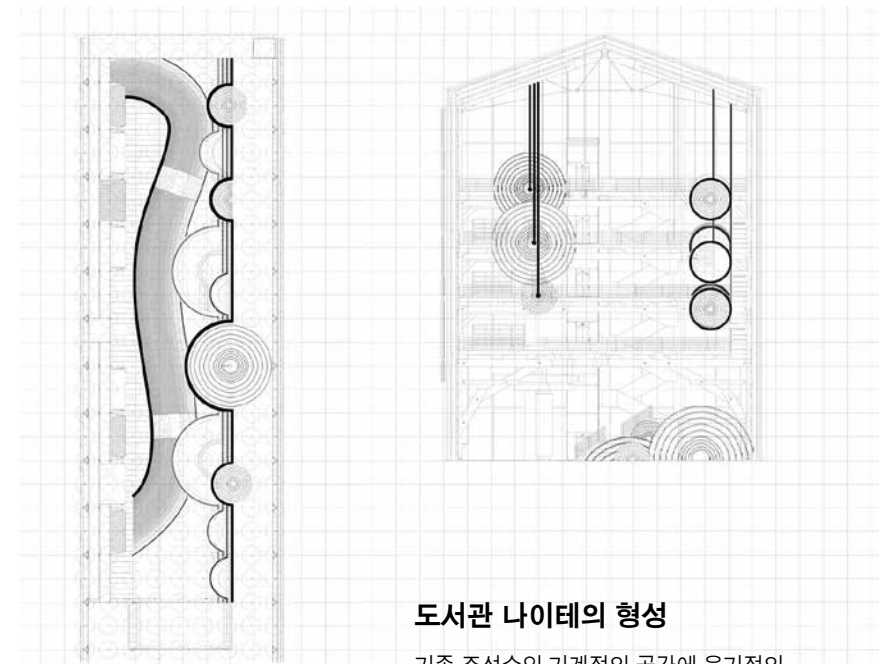
사이트 분석

거창조선소는 영도 조선산업의 쇠퇴, 시설 노후화,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폐쇄되었다. 영도는 현재 아르떼뮤지엄 유치와 같은 문화적 부흥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산 타지보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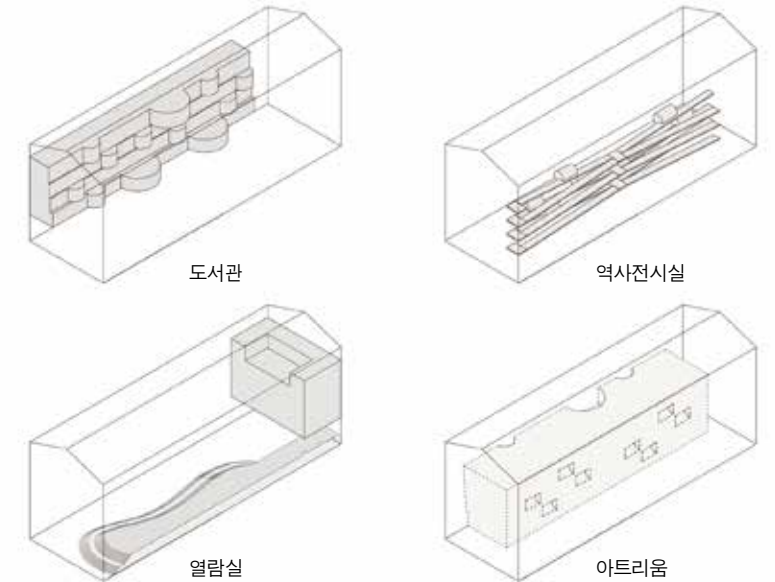
나이테

현재 껍데기만 남은 거창조선소의 나이테는 끊어졌다. 이에 영도 조선산업의 과거와 새로운 지식과 문화로 채워질 도서관 계획안을 제안한다. 기존 조선소의 철골구조에 연결된 도서관의 목구조는 조선소의 기억과 인간, 지식을 서로 엮는다. 조선소와 이어진 도서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무에 나이테가 새겨지듯, 책이 겹겹이 쌓이며 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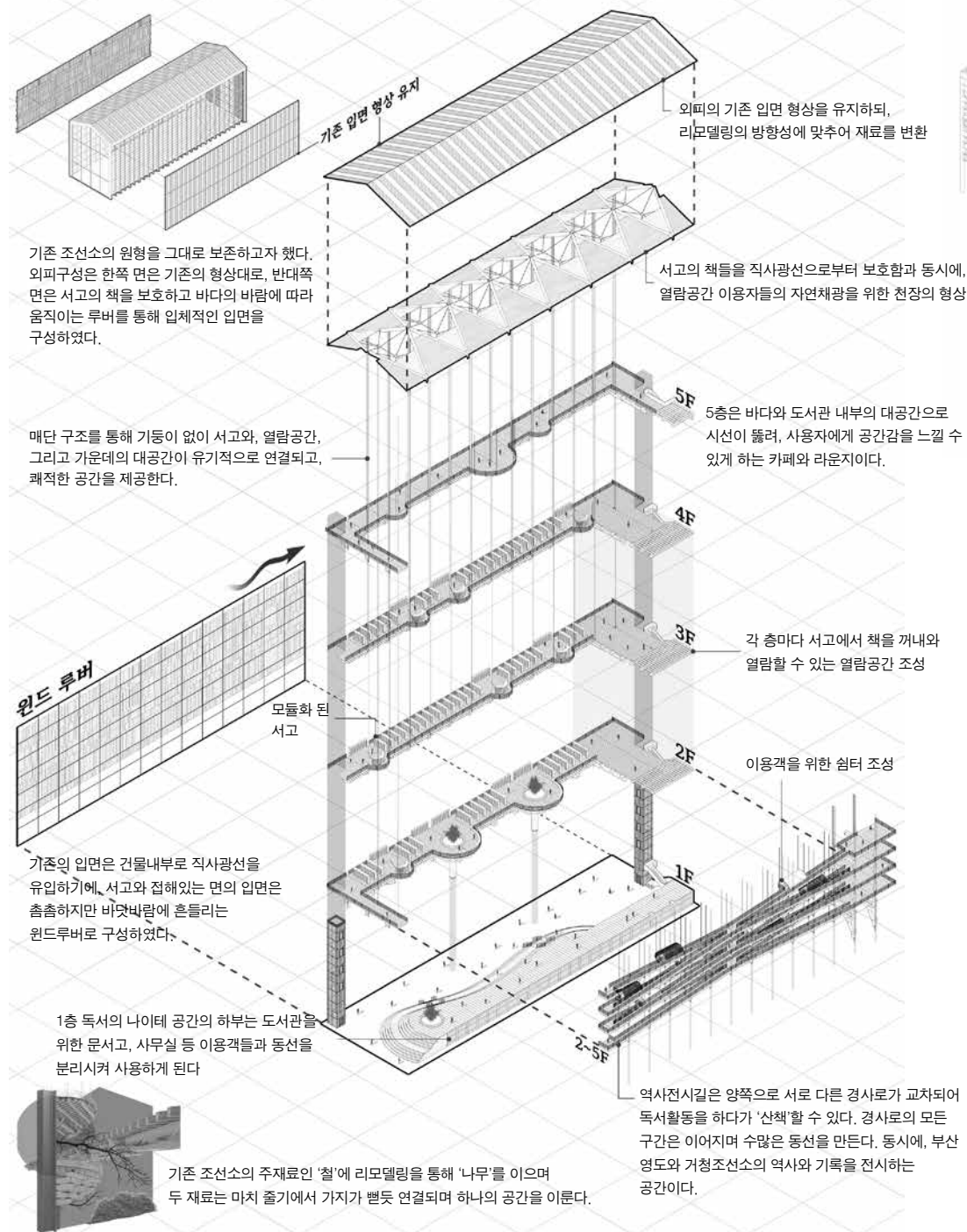


도서관 나이테의 형성

기존 조선소의 기계적인 공간에 유기적인 형태의 도서관이 새겨지며 철로 된 나무에 새로운 나이테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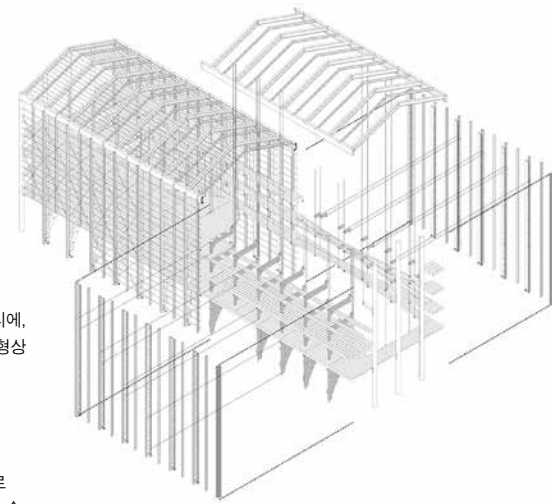
외피와 내부 공간



내부 프로그램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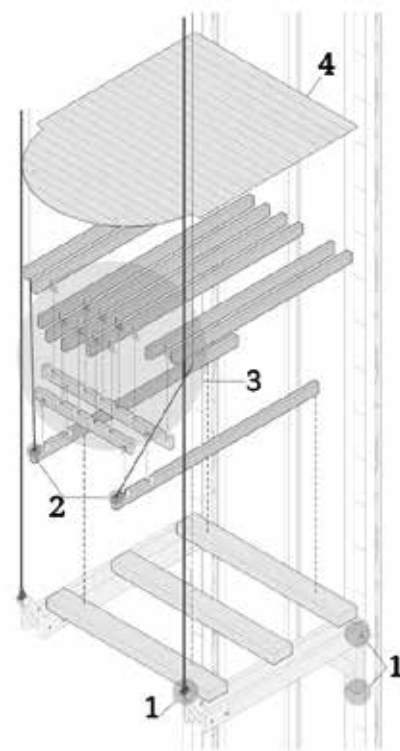
내부 프로그램의 구성은 크게 좌우로 나뉜다. 좌측의 기존의 입면을 그대로 살린 부분에서는 영도 조선산업의 역사를 보존하고 지역 역사와 관련된 특별전시가 열리는 역사전시관의 프로그램이 배치된다. 사선으로 연결되는 동선은 다양한 체험을 유도한다.

우측은 개방형 서고를 배치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적되는 기록이 직접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은 아트리움으로 비움으로써 조선소의 대공간을 보존한다. 전체적으로 개방된 구조의 도서관은 기존의 조용하고 답답한 도서관의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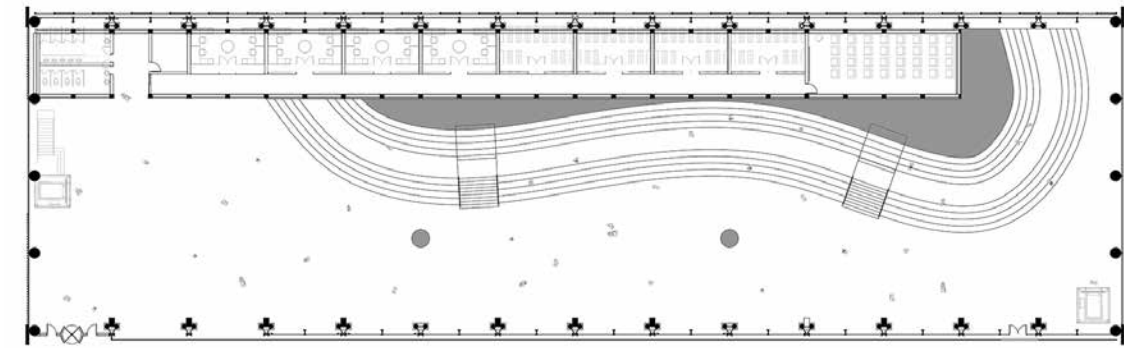


철과 나무의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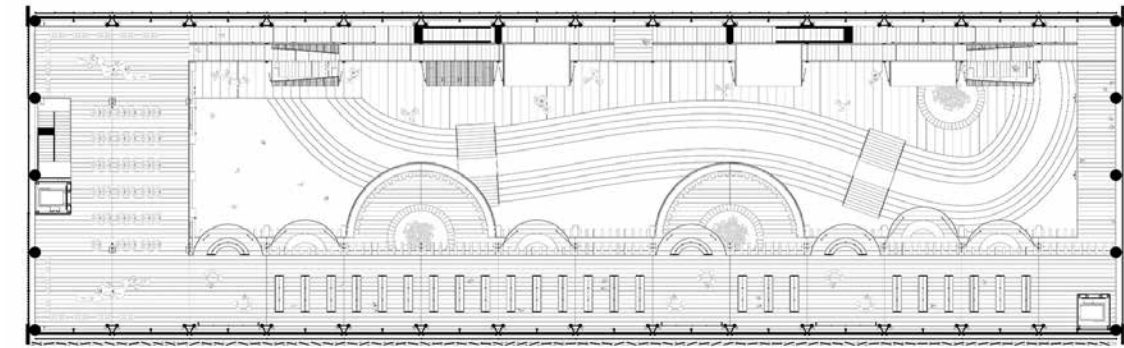
기존 조선소는 철골구조의 튼튼한 구조체를 바탕으로 내부에 기둥이 없는 무주공간이 형성되었다. 기존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최대한 기둥을 배치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호이스트에서 찾았다. 이미 지어진 철골의 구조체를 새로이 지어질 목구조와 이음으로써 과거와 현재는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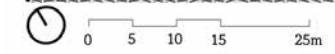
1. 기존의 철골 기둥에 나무 보를 잇고, 반대쪽 끝은 와이어로 매달아서 넓은 하부공간 사용
2. 돌출된 슬라브를 지지하기 위해 작은보를 함께 돌출, 돌출부의 지지를 위해
3. 나무를 짜맞춰 와이어로 지지한 작은보에 나머지 돌출 작은보를 지지
4. 작은보에 수직방향으로 바닥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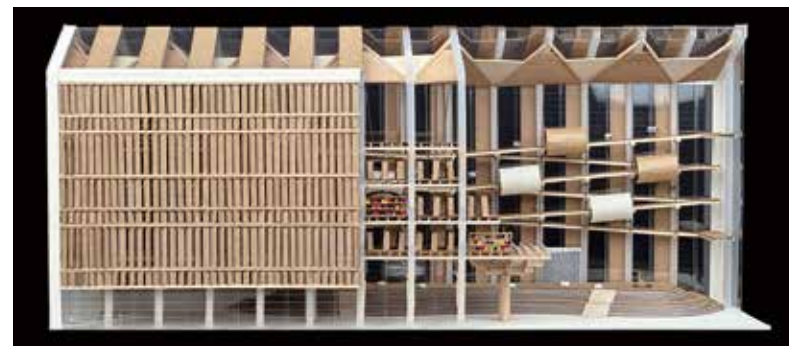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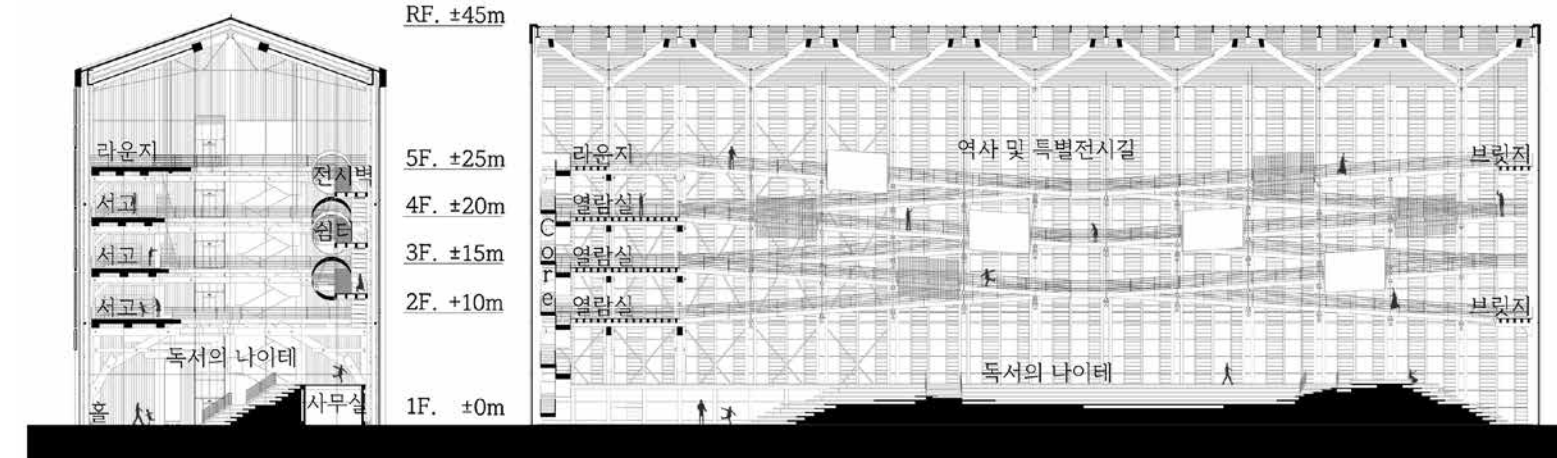
4층 평면도



조선소의 대공간에 관입하는 돌출된 열람공간은 과거 산업의 역동성과 현대의 학습과 문화 활동이 결합하여 입체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유기적인 곡선 형태의 개방형 독서공간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독서활동을 유도한다.



단면도



개방형 서고 및 열람공간



역사전시길



독서의 나이트

계획 부문 | 대상

동서고금, 동서양 목구조를 융합한 목조성당 계획안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이세현(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Abstract

과거 전통 목조건축물은 숙련된 대목장에 의해 오랜 기간에 걸쳐 축조되어 왔다. 대목장의 장인정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축조된 목조건축물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대규모 전통 목조건축물의 수는 감소하고, 대목장의 역할도 서서히 축소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 프로젝트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GAI)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대목장의 창의성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이미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과거에 시도되었던 한양절충식의 동서양 융합 건축 양식을 넘어 구조적 융합에 초점을 둔 동서양 목구조 융합형 목조 성당을 계획하는 데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구조적 측면에서의 동서양 목구조 융합은 새로운 목구조 결합 방식을 고안하는 데 있어 동서양 목구조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건축에 있어 생성형 AI의 활용과 구조적 융합의 계획은 외형적 융합 방식에 머무는 것이 아닌 전통 목구조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실험적인 구조 융합 방식을 제시하여 미래 목구조 결합 방식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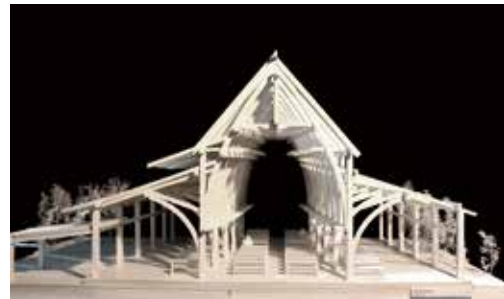
Site Analysis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정리 405 부지는 한양절충식의 대표적인 사례인 성공회 강화성당과 인접한 대지이다. 이 부지는 성공회 강화성당과 물리적, 역사적 연계성을 유지함으로써 새롭게 제안되는 동서양 목구조 융합형 성당이 기존 성당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문화적 맥락을 강화할 수 있는 위치이다.



가구식 구조의 확장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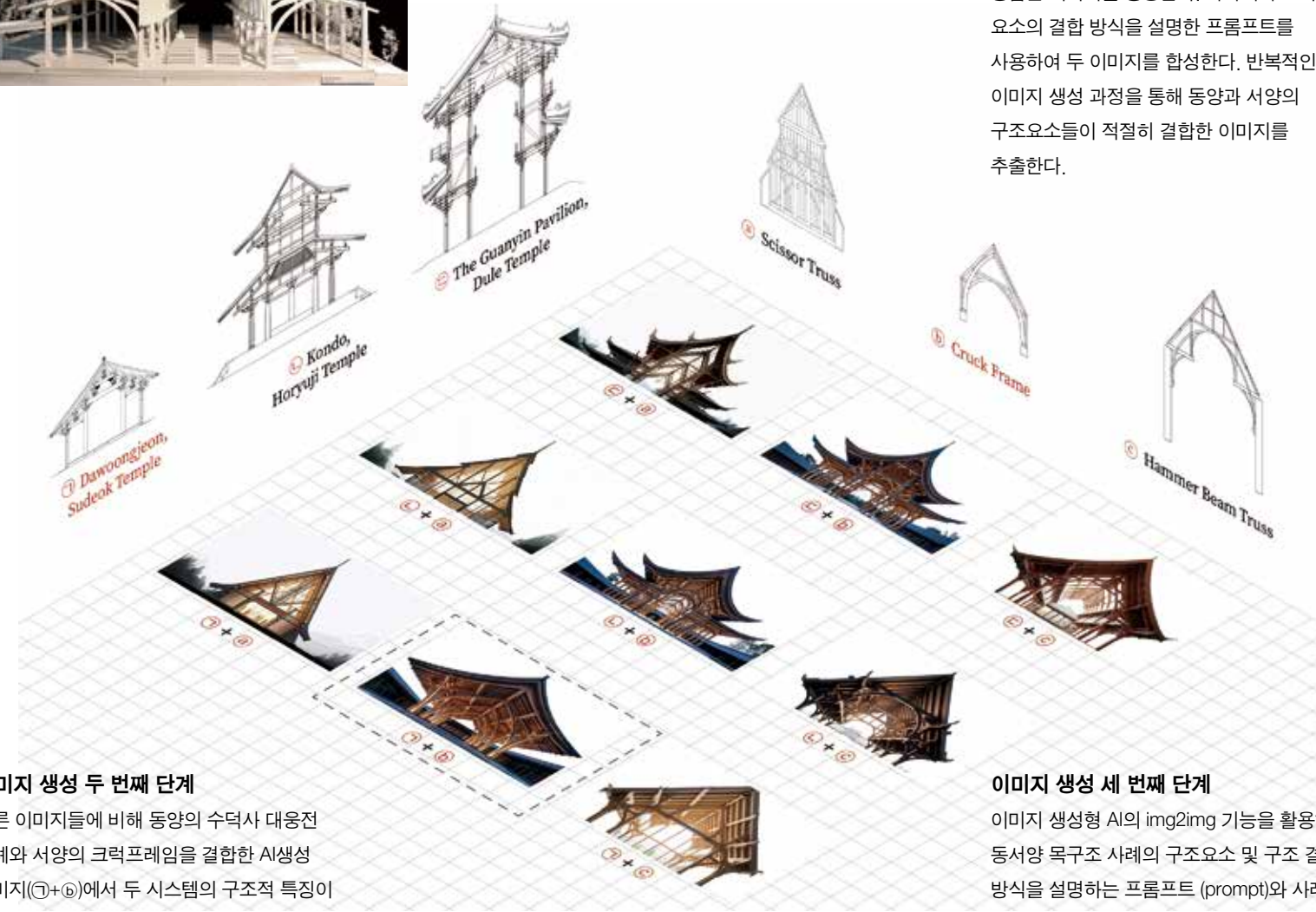
가구식 구조에서 보 방향의 확장은 구조적 문제로 작용한다. 보는 모든 부재와 지붕의 하중을 부담하는 구조재로, 보 방향으로의 확장은 제한적인 반면, 도리 방향으로의 확장은 비교적 자유롭다.



Design Methods

이미지 생성 첫 번째 단계

동서양의 구조적 요소가 잘 반영된 사례를 세 가지씩 선정하여 동양과 서양의 목구조가 융합된 이미지를 생성한다. 각각의 구조적 요소의 결합 방식을 설명한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두 이미지를 합성한다. 반복적인 이미지 생성 과정을 통해 동양과 서양의 구조요소들이 적절히 결합한 이미지를 추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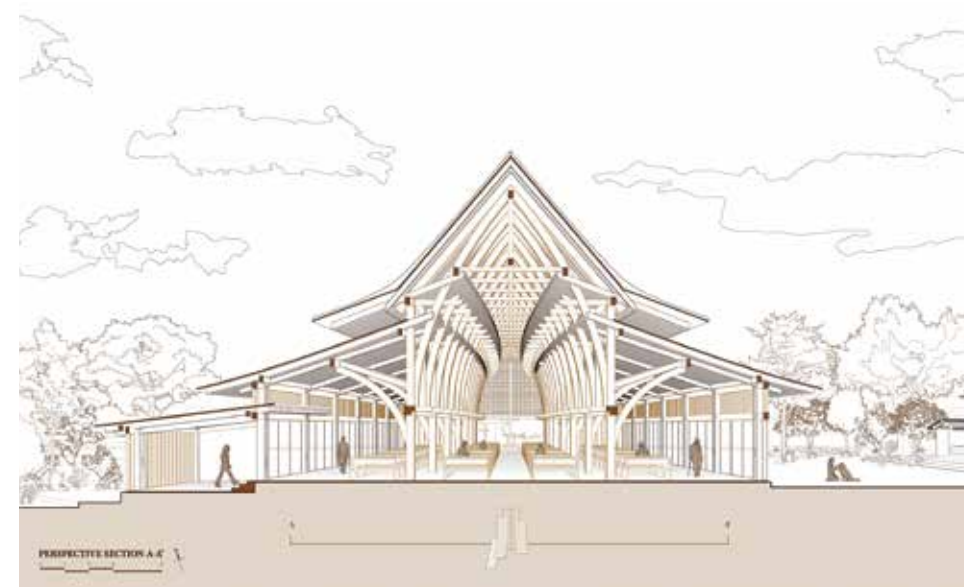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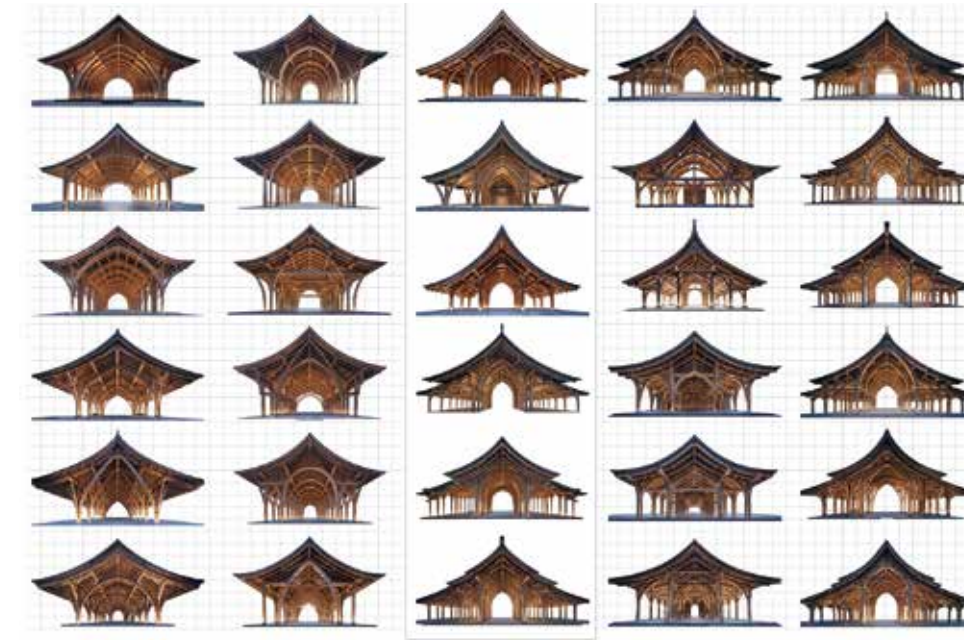


이미지 생성 두 번째 단계

다른 이미지들에 비해 동양의 수덕사 대웅전 사례와 서양의 크릭프레임을 결합한 AI생성 이미지(Ⓜ+Ⓜ)에서 두 시스템의 구조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조적 결합 방식이 명확하고 단순할수록 AI생성 이미지에서 구조적 요소를 판별하기에 용이하였다.

이미지 생성 세 번째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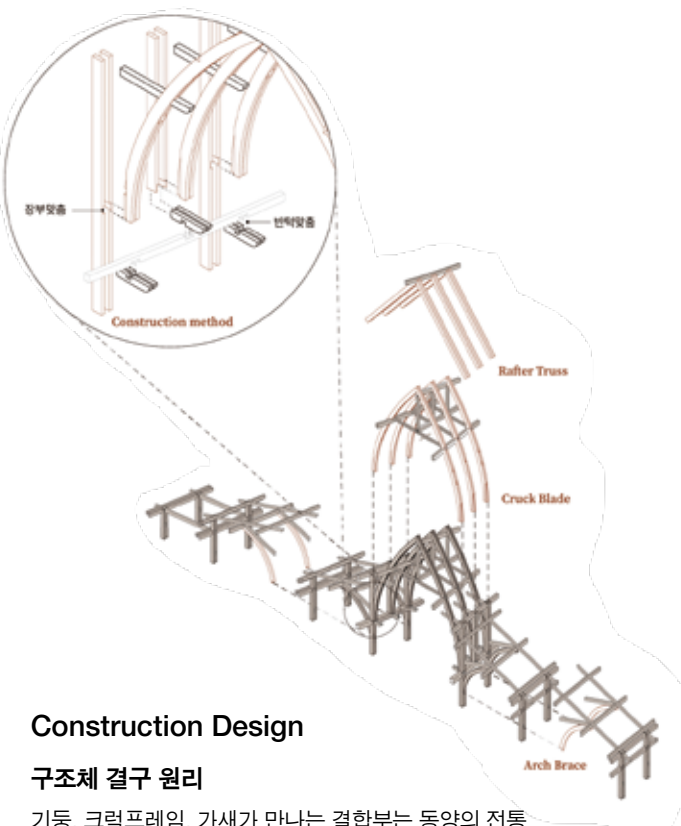
이미지 생성형 AI의 img2img 기능을 활용하여 동서양 목구조 사례의 구조요소 및 구조 결합 방식을 설명하는 프롬프트(prompt)와 사례 이미지를 입력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구조적 융합을 이루는 목조건축 이미지들을 생성한다.



Design Process

동서양 융합 목구조의 디자인 특징

생성형 AI 이미지 중 TYPE3은 동서양 목구조를 융합한 최적의 절충안으로 분석되었다. 이 유형의 구조적 특징은 대들보가 없는 구조를 보였으며, 크릭프레임과 아치형 가새가 조합된 구조를 이루는 점을 반영하여 디자인하였다. 크릭프레임과 아치형 가새의 조합은 공간의 개방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이러한 조합을 통해 성당 내부에 필요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Construction Design

구조체 결구 원리

기둥, 크릭프레임, 가새가 만나는 결합부는 동양의 전통 가구식 구조에서 사용하는 장부맞춤과 반턱맞춤 방식으로 결구하여, 두 구조체의 융합을 견고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하였다. 또한, 높은 천장고를 요구하는 성당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양의 대들보 대신 크릭프레임을 사용하여 천장을 지지하는 구조를 이루도록 하였다.

팀-워크(TIM-WORK)

팀버를 활용한 고층 복합문화시설 계획안

정승엽, 김동준(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탄소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목재는 뛰어난 탄소 저장능력으로 친환경 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구조재로 활용할 때 효과적이어서 특히, 저층 건축물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층 목구조 건축물이 늘고 있으며, 2020년부터 국내에서도 목구조 높이 제한이 해제되어 고층 목구조건축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우리는 판교역 인근 주차장 구역을 대지로 선정하고, 팀버를 활용한 고층 목구조 복합문화업무시설을 계획하였다.

이는 탄소 저감이 중요한 이 시대에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건축이 가능하게 하며, 고층 목구조 건축의 장점을 극대화할 접근법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환경보호와 더불어,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과 기술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사이트 분석

판교 테크노밸리의 판교역 인근 주차장 구역을 대지로 선정했다. 현재 주변은 주로 오피스 단지들이 자리 잡고 있고, 다양한 테크노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대지는 인근 오피스 단지들과 그린

형성되어 있는 공원 사이에 위치하여 중간다리가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남쪽과 서쪽에 선근에는 광장이 형성되어 유동인구가 많고, 북쪽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



주변 맥락

그린 링크

채광 / 시야

나무의 구성

다양한 기술이 모이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자연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목재를 사용한 고층 복합문화업무시설을 제안한다. 수평의 자연을, 수직의 요소들을 통해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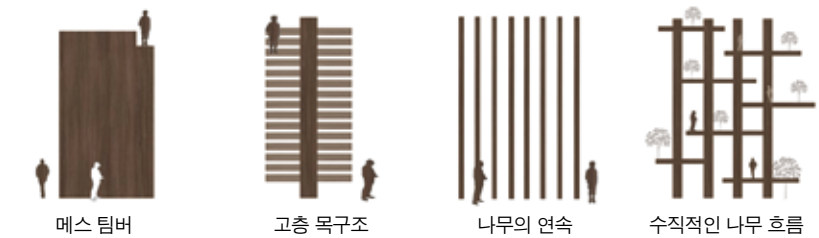
한다. 목재의 기둥들은 구조의 역할을 하며 자연히 공간을 분할하고, 각 층에 소규모의 정원 테라스를 형성하여 실제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자연을 수직적으로 연계했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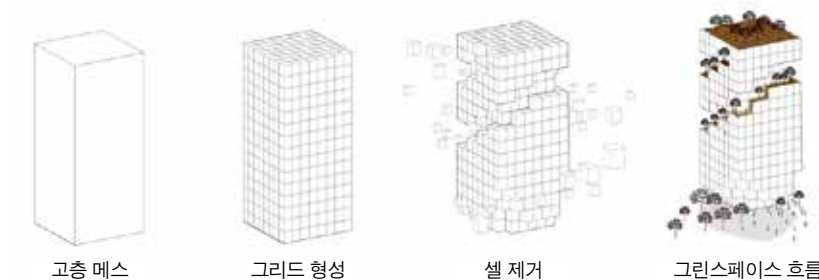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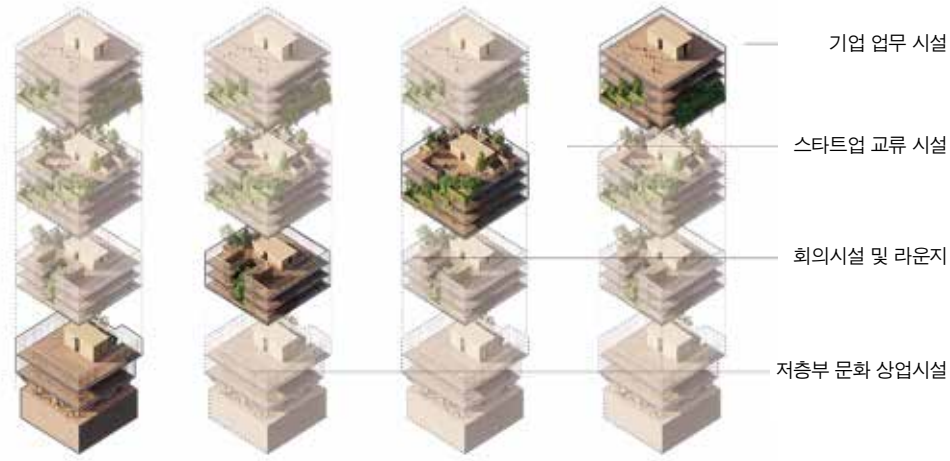


매스 프로세스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스패의 기둥과 슬라브로 분할된 공간들을 논리에 따라 그리드를 형성한다. 저층부 사람들의 모임 공간과 통행의 원활함을 주는

아케이드를 형성하기 위해, 한 컷을 제거한다. 또, 기존의 수평적 요소의 자연을 수직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나선 형태로 올라가며 셀들을 제거한다.





기업 업무 시설
스타트업 교류 시설
회의시설 및 라운지
저층부 문화 상업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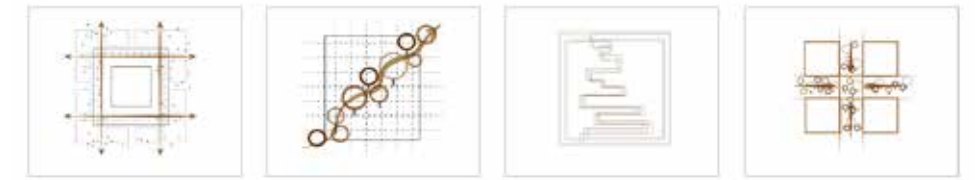
짓기 : '공동체'를 짓다 - 업무시설 + 복합문화시설

업무시설과 복합문화시설이 결합한 이 건물은 수직적으로 네 가지 구역으로 나뉜다. 판교에 이미 다양한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 스타트업들이 이들과 협업할 기회가 많아진다. 따라서 기업이 입주하는 고층부와 상업 시설 등 공용 문화공간으로 구성된 저층부 사이에 스타트업 업무 교류 시설을 배치하여 저층부에서

부터 '공용부-스타트업-입주기업'의 흐름으로 구성하여, 구역마다 교류를 원활하게 한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복합적인 문화공간뿐만 아니라 도약을 꿈꾸는 스타트업 기업과 기존 테크놀로지 기업의 공동체가 형성된다.



잇기 : '자연과 도시'를 잇다



수평적 연계 : 저층부에 아케이드를 구성, 수평적인 그린 연계를 통해서 테크노밸리에 공원을 적극적으로 도입
수직적 연계 : 고층건물에 기존의 수평적인 요소의 자연을 흐름에 맞게 구성하여 수직적으로 연계
재료의 구성 : 친환경 자연 구조재 목재와 도시산업의 상징이 되는 철근콘크리트의 이음으로 연계
도시 속 식물원 : 한국 기업의 허브라고 칭할 수 있는 테크노밸리의 도시적 맥락 속에서, 불특정 다수가 쉬어가는 도심 속의 특수한 자연을 형성

잇기 : '재료와 재료'를 잇다

고층의 목구조를 짓기 위해 기초와 코어는 철근콘크리트로 구성하고 그 외 기둥, 보, 슬라브 등은 목재로 구성하는 하이브리드 목구조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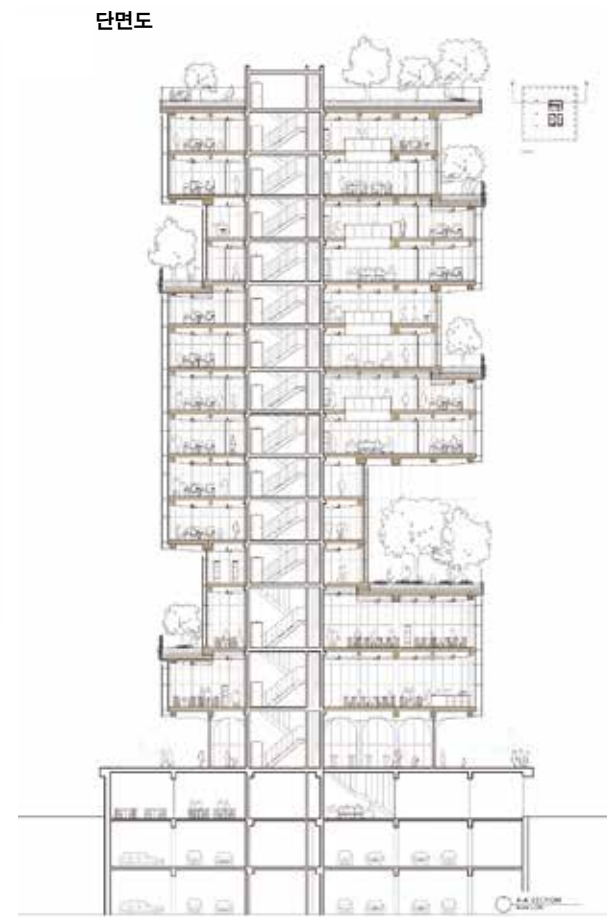
철근콘크리트 코어와 CLT 슬라브가 직접 결구되는 것이 아닌, 그 사이의 버퍼 존을 통해 결구가 되어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내진 성능을 강화하는 목적의 설계를 제안한다.
구조재의 주를 이루는 기둥과 보는 가구식 구조의 주막장이음의 형식으로 결구가 된다. 또한, 하중이 강한 곳은 하중을 분산시키는 용도의 갈퀴이음을 하부에 위치하게 하여 구조를 보강한다.
고층빌딩에서 특히 하중이 가장 집중되는 저층부의 기둥과 보는 이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이에 철재를 함께 사용하여 기존의 이음을 강화하는 하이브리드 접합방식으로 결구된다.



짓기 : '미래'를 짓다 - 친환경, 지속가능성

목구조를 통한 친환경성과 더불어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블스킨 파사드와 그린 파사드, 그리고 목재 슬랫 블라인드를 사용한 설계를 제안한다. 커튼월을 이중외피로 구성하여 굴뚝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중외피 사이에 위치한 목재슬랫 블라인드는 겨울-여름,

낮-밤에 변화하는 태양의 고도를 반영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각도로 유연하게 변화하여 건물의 냉난방 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그린 테라스로 형성된 그린 파사드는 자연적인 단열 효과를 제공하며, 건물의 생태 발자국을 줄이는 동시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구조 아이소메트릭



잇기 : '스토리'와 '스토리'를 잇다

오피스 라운지 내부 보이드 구성 오피스 외부 테라스 연계 스타트업/기업 이야기 교류



도시기반시설의 비-일상공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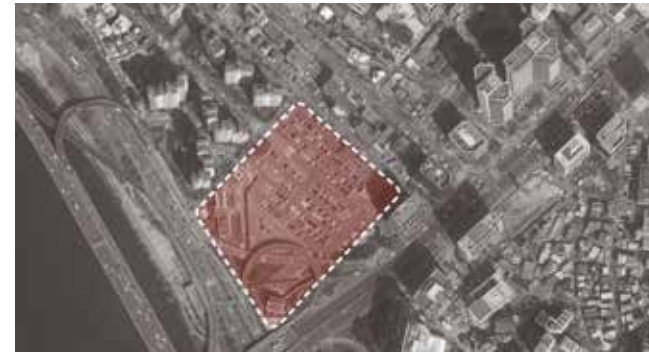
TSC 강화 집성목을 활용한 복합구조 주차타워 계획안

안문석, 김한석, 정혁호(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 건축학전공, 공간디자인전공)

목구조의 비일상성에 관하여

오늘날 한국에서의 목구조 건물은 일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 대부분 건축물은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로 건축되었으며, 일상 속 목구조에 대한 경험은 희미해지고 있다. 이는 시장성과 시공성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압도적 우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목구조 건물은 비일상적인 공간 경험에 가까워졌다. 일상에서의 목구조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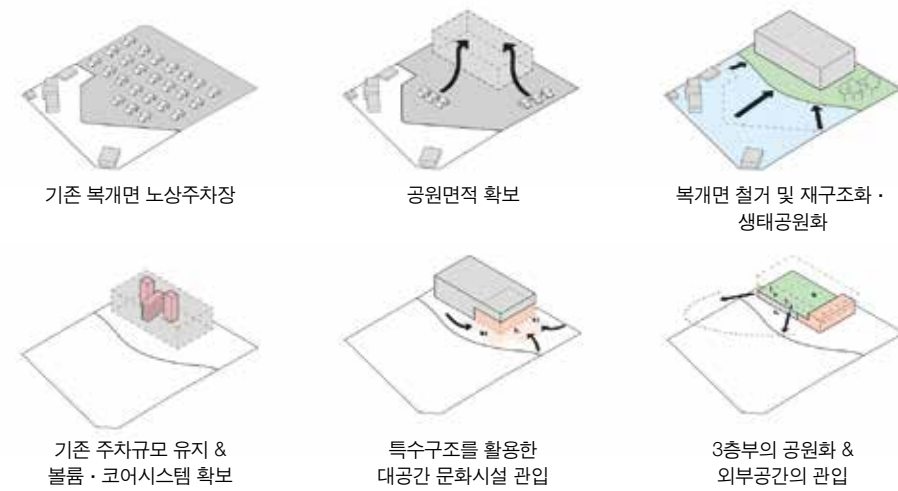
기반시설인 주차타워를 특수구조의 대공간과 함께 제안한다. 서울 내의 도시기반시설들은 신속한 공급을 위한 양적 계획에 중점을 두어 건설되었다. 이는 기반시설을 도시에 빠르게 공급하였으나 질적 계획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서울의 압축적 팽창에 따른 기존시설의 사용성 역시 희미해지고 있어 기반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배치도



Mass and Program Process



나들목으로의 낮은 접근성



생태공원화·접근성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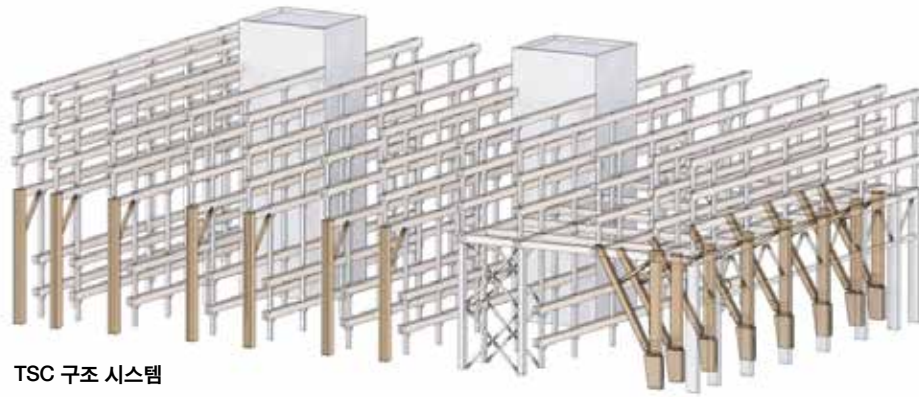
대상지 개요

마포유수지는 1958년 서울시 최초로 조성된 유수지이며, 저수용량 75,095m²로 한강수계 관련 17개 유수지 중 5번째 대규모 시설이다. 또한 대상지 일부는 유수지를 복개한 주차장으로, 전체 구획 508대 규모이며, 반경 500m 이내 주차 공급의 45% 이상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진단 결과, 대상지는 지반침하의 위험성 등이 제기되었고 이후 일부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추후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복개지에 대한 전면보수가 필요한 노후 시설로, 대상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대상지는 마포대로 이면부에 입지하며 서측은 고층아파트, 남측은 강변북로와 연결하고 있어 대상지 자체의 인지도는 낮으나, 인근 마포나들목을 통한 한강으로의 접근에 용이한 입지이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 글루램 이중보 구조시스템



TSC 구조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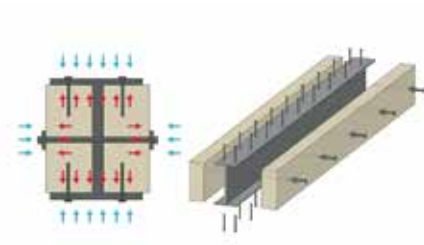
Structure Diagram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둥 글루램 이중보 접합



TSC 강화집성목 기둥·브레이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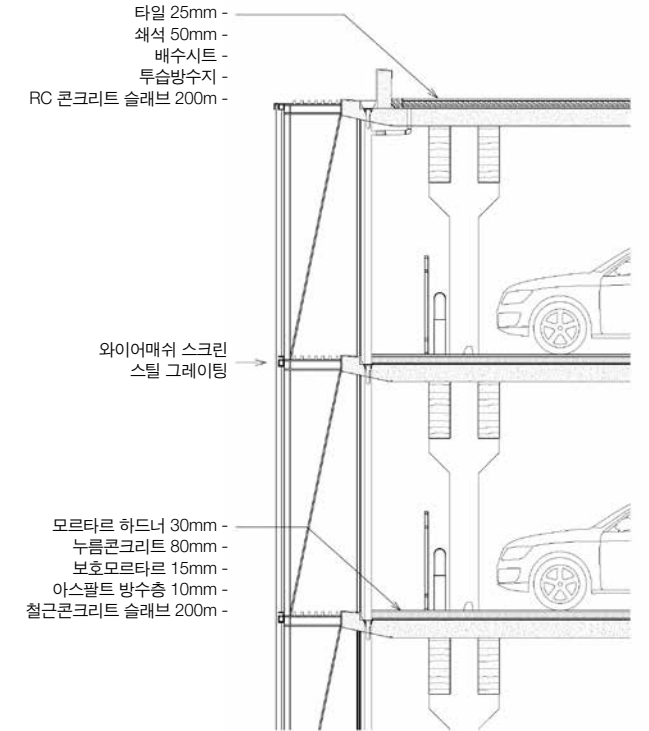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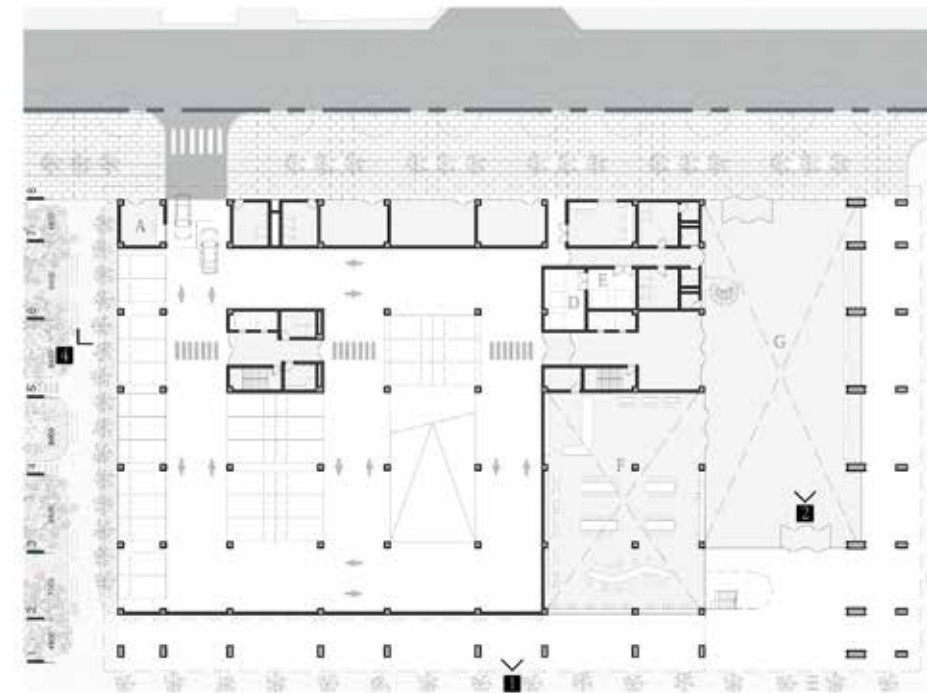


TSC 집성목 철물접합

배치 개념

계획안은 기존의 넓은 야외 주차장을 대체하면서, 동일한 주차 기능을 훨씬 좁은 면적에서 수행한다. 대상지의 건폐율을 줄이며 확보된 복개지는 약 절반 이상 철거되며, 장기적으로 생태습지화 된다. 마포나들목을 이어주는 생태공원 내의 동선은 기존의 인지성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지환경을 회복하며, 도시의 필요기능을 제공하는 기반시설의 대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공학목재를 활용한 설계를 통해 구조부재의 자중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견고한 구조를 갖추어 복개지 하부의 구조가 갖는 부담을 최소화한다. 3층 레벨에서 열린 반외부의 중층공간은 다양한 프로그램(상업 공간, 커뮤니티 시설)이 일시 점유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한강과 그 앞의 고가도로가 형성하는 대상지만의 독특한 조망점을 제공한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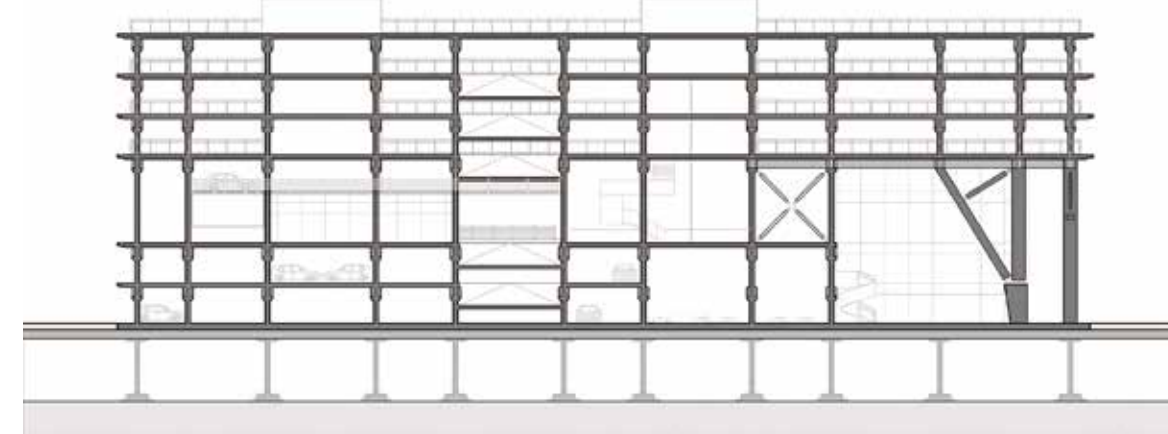


타일 25mm -
 석식 50mm -
 배수시트 -
 투습방수지 -
 RC 콘크리트 슬래브 200mm -

와이어메쉬 스크린
 스틸 그레이팅

모르타르 하드너 30mm -
 누름콘크리트 80mm -
 보호모르타르 15mm -
 아스팔트 방수층 10mm -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200mm -

횡단면도



4층 이상의 공간은 전면 주차공간으로 사용되어, 중층부의 개방적인 성격과 대비되는 반투명의 통합적인 입면 system을 적용한다. 와이어메쉬 스크린은 4층~ 6층의 입면을 구성하여 차량의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건물의 채광 환기를 가능하게 하며, 도시 차원에서의 다채로운 인상을 부여한다.

구조 계획 및 다이어그램

기둥-슬라브 구조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가 사용된다. 해당 구조부재들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후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립할 수 있어 전통적인 현장 타설방식에 비해 시공성을 크게 향상하고 높은 내구성과 정밀한 시공을 가능케 하며,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이점을 가진다. 글루램 이중보(Glulam Double Beams)는 얇은 목재 층을 접착체로 결합한 구조재료 목재 특유의 자연스러운 질감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제공한다. 이중보 구조 역시 프리캐스트 기둥과 함께 조인트를 최소화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성의 이점을 지니며, 콘크리트 부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자중으로 유수지 하부의 구조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한다. 두 재료의 활용은 대상지의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며 복개지의 생태공원화에 매우 효과적이다.

TSC 공법을 이용한 경사기둥의 구현

TSC(Timber Steel Composite) 공법은 목재와 철재를 결합하여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공법이다. 이 공법을 통해 저층부에 대공간을 구현하고, 주차장 시설의 하중을 효과적으로 지탱하는 구조적 해법을 제공한다. TSC 부재는 목재의 유연성과 철재의 높은 인장 강도를 결합하여 넓은 스패ンを 지지할 수 있는 강력한 구조물을 형성한다. 저층부 대공간의 경사기둥(inclined column)은 넓은 스패ンを 지탱하고 하중을 안정적으로 분산시키며 기계목재의 비-일상적 공간감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모여봐요! 방과후 목욕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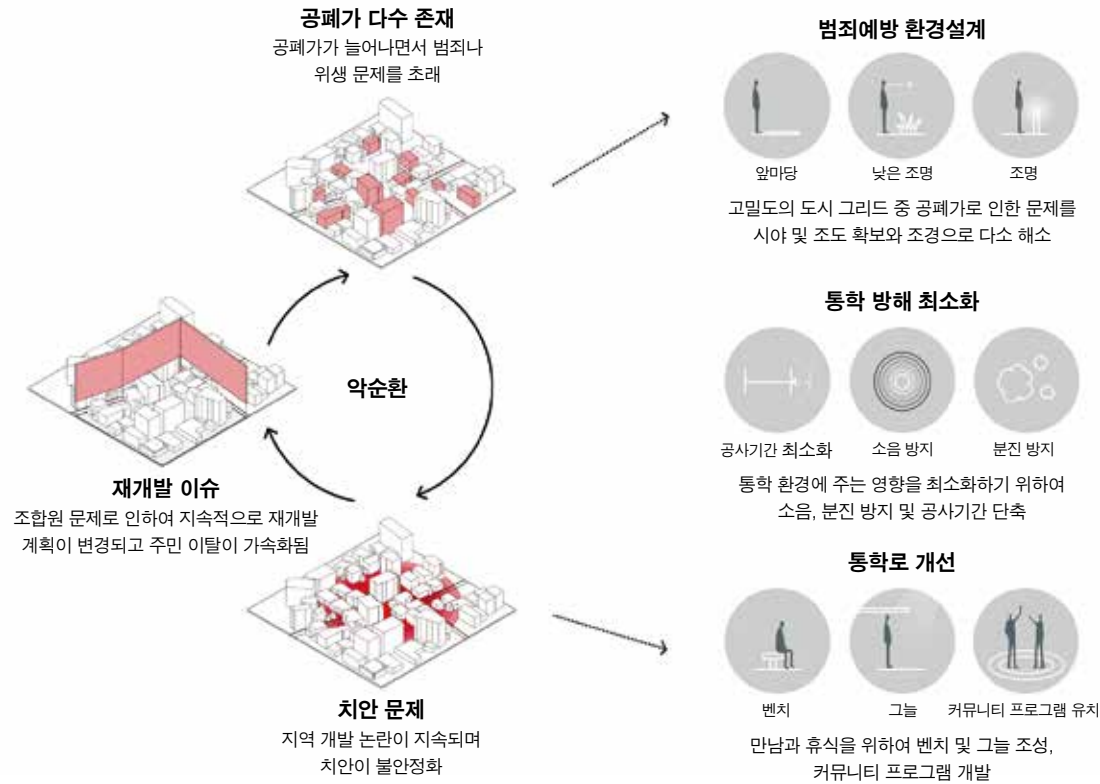
Welcome to Afterschool Spa

윤한민, 이원지, 이하영(부산대학교 건축학과)

위치 : 부산 금정구 금정로19번길 13
 대지면적 : 410m²
 연면적 : 177.75m²
 건축면적 : 153.76m²
 규모 : 지상 2층

모여봐요! 방과후 목욕탕은 자연되는 재개발과 통학로의 충돌을 목욕탕이라는 프로그램과 경량목구조, 벽식 구조로 풀어낸 설계 제안이다. 각각의 이슈는 우리가 사는 도시 환경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기에 현재의 제안이 단순히 현재 설계 대상지에 국한되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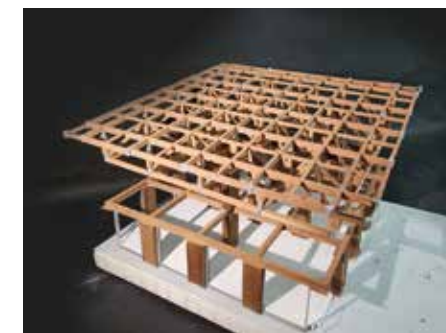
보편적인 해법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는 목욕탕으로 낙후된 지역에 거점을 만들고 조립식 구조를 활용하여 통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빠른 시공을 목표로 설계를 계획하였다.



멈춰진 도시공간을 지나 통학하는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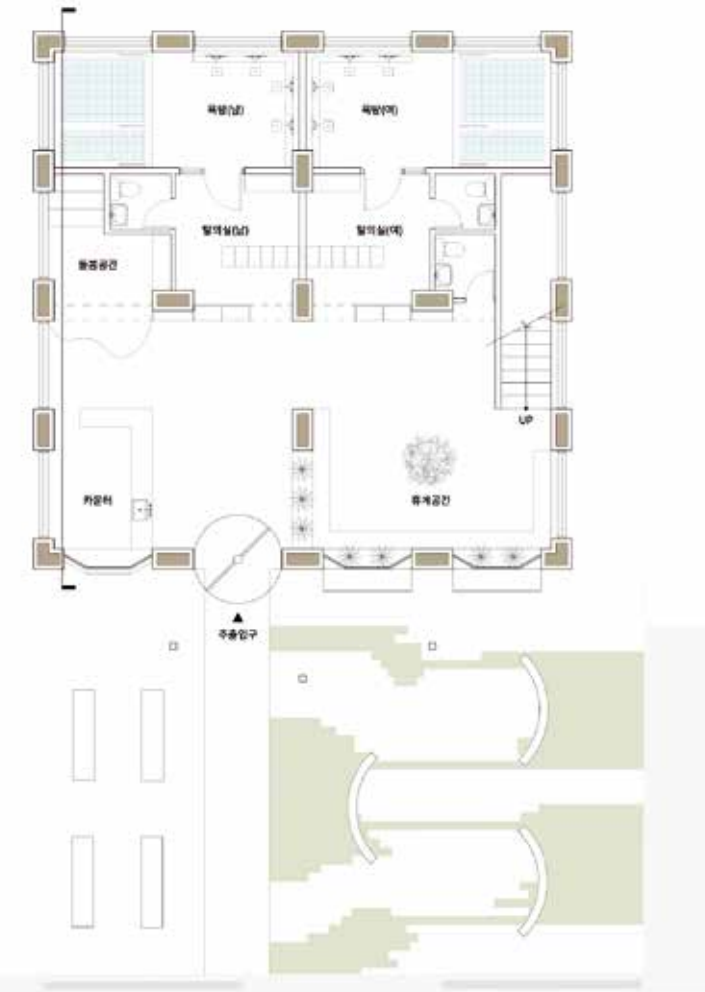
장전 2동은 재개발 여부에 의해 아파트 단지와 노후 주거지인 6구역으로 나뉜다. 그중 설계 대상지는 6구역에 있으며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다. 아파트 지역은 노후 주거지역을 재개발하여 만들어진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생산인구 연령대가 주된 주민이며, 대학가에 면한 지역이지만 대학생보다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곳은 부산의 타지역에 비하여 전체 인구수 대비 아동의 수가 많은 지역 중 한 곳이다. 전국의 아동 비율은 8.29%이며 부산시, 금정구로 갈수록 비율이 낮아지지만, 장전 2동은 10.63%로 전국의 비율보다도 높은 아동 비율을 갖고 있다. 다만 이러한 높은 아동

거주비율과는 상반되게 해당 지역의 통학환경은 열악하다. 초등학교가 속한 장전 6구역은 2007년부터 재개발 예정이었으나,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되며 조합 내부의 문제로 진척 없이 지역쇠퇴만을 거듭하고 있다. 재개발이 지연되며 지역이 정체되자 많은 주민은 집을 팔고 떠나갔으며, 이런 공폐가의 증가로 인적이 드물어진 이곳은 치안 문제가 심화되었다. 더군다나 통학로가 이 지역에 속해 있어 이들은 매일 공폐가들을 지나 안전하지 않은 등하교를 해야 되는 실정이다. 우리는 기억 없는 개발을 기다리기보다는 주민들이 다 같이 사용할 하나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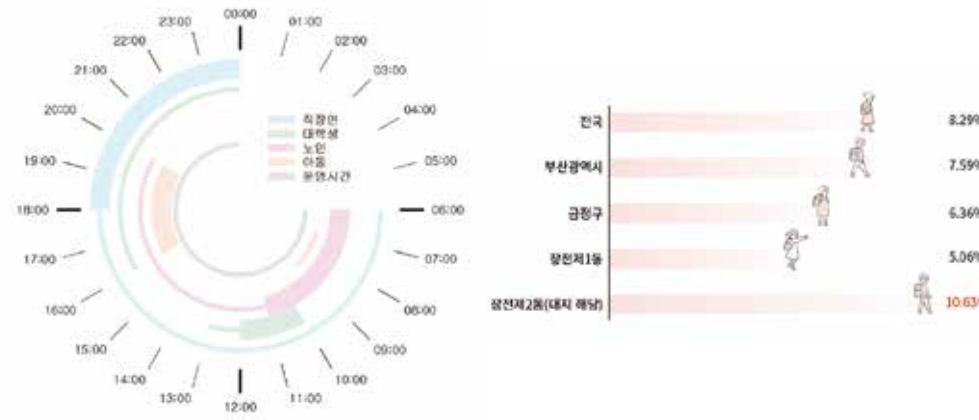


지나는 길에서 맞이하는 마당으로

기존 통학로는 쇠락한 공폐가들을 지나쳐 가기만 했기에 통학로의 중간에 아이들이 학부모를 기다리거나 학부모들이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또한, 도시 내에서 용도 없는 공폐가를 활용하고 코너부에 작은 마당을 두어 조경과 조명을 설치해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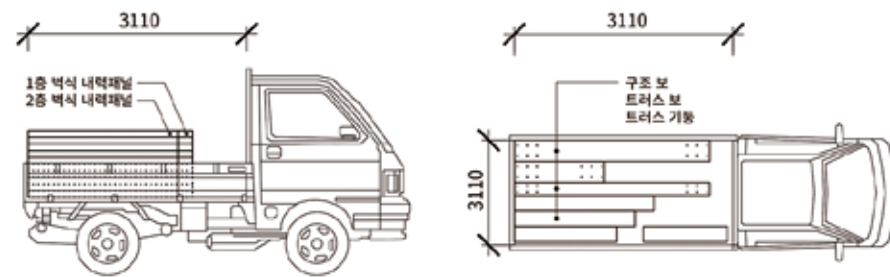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목욕탕과 카페이다.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뿐만 아니라 전 시간에 걸쳐 이용자가 이용하도록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이용자 그룹이 교차하며 통학로를 지나다니면 이전의 치안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더해 이러한 다중이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에서 작더라도 확실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한다. 목욕탕에서 노인들이 담소를 나누고 아이의 하교를 기다리는 부모들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부지의 환경과 상황이 빚어낸 구조와 구법

현재는 설계 대상지가 포함된 장전 6구역이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나 언제 다시 추진될지 모를 일이다. 그렇기에 완공 후 상황에 맞기 쉽게 해체되고 다른 장소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는 조립식 구조를 생각했다. 또한 아이들 통학에 방해되지 않고, 최소화된 공사 기간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식구조이면서 프리패공법이 가능한 목조건축이 설계 대상지의 환경과 상황에 알맞다고 판단되었다.

건물에 인접한 도로는 일방통행의 5미터 남짓의 좁은 골목길이다. 그마저도 현재는 도로에 여러 생활물품이 적재되어 있어 매우 협소하다. 그렇기에 상황을 고려했을 때, 거대한 공사차량이 아닌 최소화된 공사차량 사이즈가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의하여 자재의 운송문제에 의한 규격 제한이 생기며 중목구조 보다는 여러 부재를 결합하며 하중에 저항하는 경량목구조가 합리적이라 생각했다. 본 계획은 목재가 짜맞춤이 아닌 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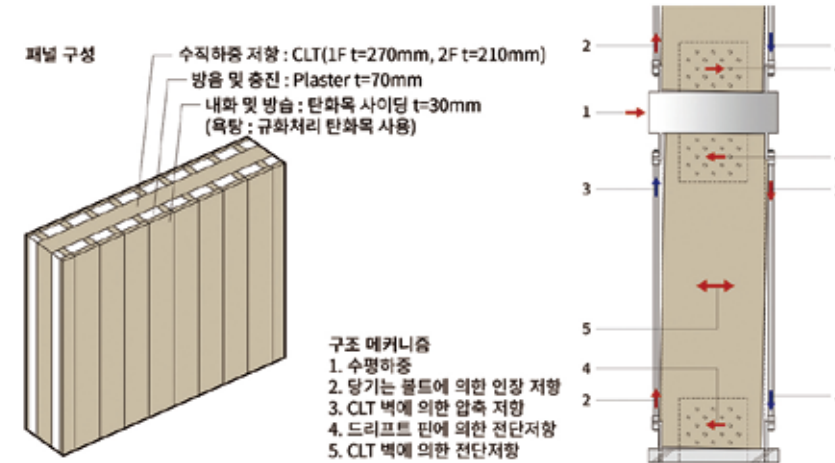
조인트로 결합된다. 이는 트러스에 의해 생기는 다양한 방향 간의 부재 결합과 공정 단순화에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각재 형태의 보는 조인트에 맞는 형태로 중심에 홈이 파지며 조인트의 철판과 함께 드래프트 핀에 의해 결합된다. 이때, 목재 보의 수축 이완에 대응하기 위하여 바깥쪽 마지막 핀은 스테인리스 소재가 아닌 목재 핀으로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층은 일반적인 액세스플로어를 적용하였으며 2층에는 장선재를 활용한 액세스플로어를 사용하였다.

아동 초등학교가 주된 이용인구는 부지의 양쪽에 위치한 인공고밀도의 아파트단지에서 초등학교로 통학한다. 학교와의 오픈스페이스가 전무하여 하교시 대기할 공간도 미량하지 않다.

노인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장전 2동의 20%의 비율로, 부지 주변 노후 주택구역에 주거하고 있다. 역과의 거리가 있어 주로 보행 통행을 하여 경로당 외에는 공용공간이 부족하다.

대학생 부지가 부산대학교와 근접했지만 대학생 인구비는 낮다. 장전 1동이 자취생들의 밀집주거구역이 계획이다. 캠퍼스 외의 오픈스페이스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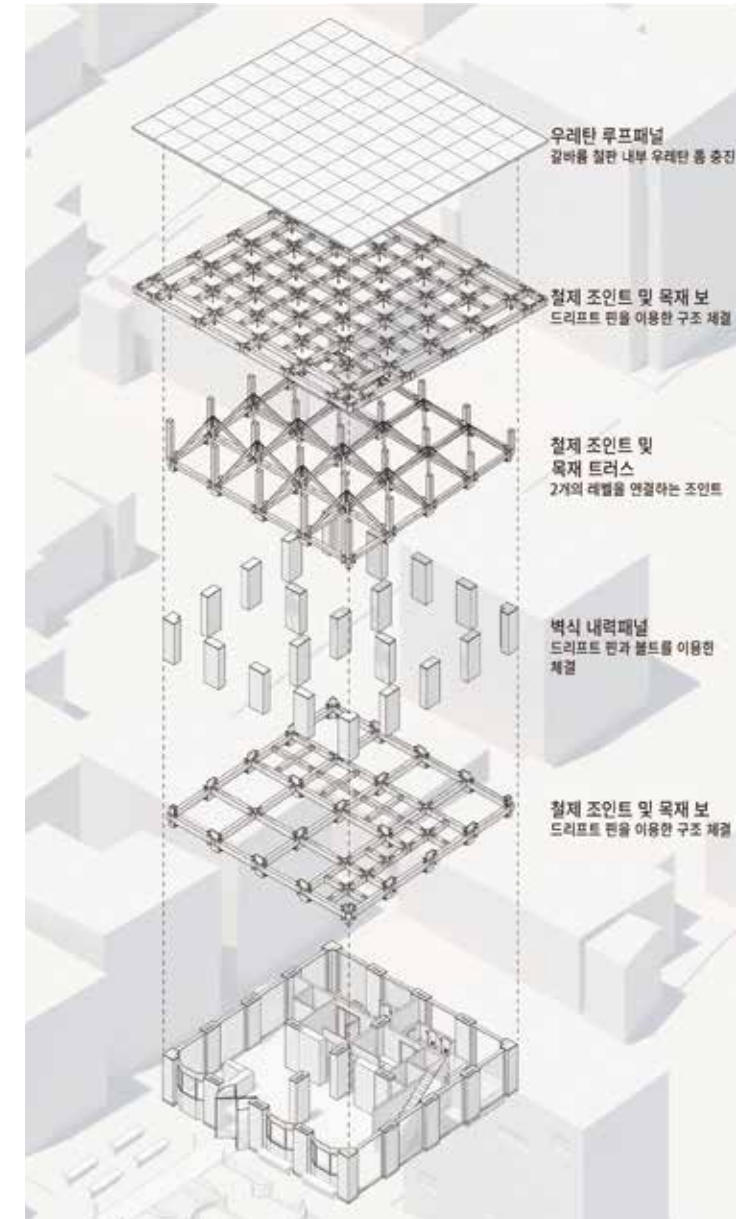
직장인 해당 지역에 회사가 적기며, 생산인구에 해당하는 직장인인구는 거의 주말에만 체류한다. 타그를 위해 자차를 이용한 통행이 많아 그마저도 타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벽식 내력패널

벽식 내력패널은 수직 구조재의 수를 줄이고 프리패 공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부지의 상황상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 소음도 최소화해야 하므로 프리패 공법을 발전시키는 것이 주요한 계획 논점이었다. 패널 중심의 CLT가 수직하중에 저항하는 구조재 역할을 한다. 그 바깥으로 방음 및 충진의 역할을 하는 플라스터와 각재가 위치하며 탄화목 사이딩으로 마감된다. 지진이나 풍하중에 의해 패널에 가해진 수평 하중에 대해서 대응하는 구조재도 포함시켰다. 수평하중에 의하여 기울어진

CLT는 압축력에 저항하며 패널 내부에 설치된 볼트와 철제 조인트에 의하여 인장력에 저항하도록 계획하였다. CLT와 철제 조인트는 드래프트 핀에 의하여 결합되며 전단력에 저항한다.



자연 속 자연

: 단양 생태탐방원 계획안

이선주, 김민준(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 건축학전공)

“자연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우리가 자연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진리를 말해준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자연과 소통이 단절된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을 가까이 둔 채로 지나쳐 간다. 대한민국에서 숲이 차지하는 비율이 63%인 만큼 숲이 어떠한 기능과 미학적인 요소를 가지는지 대중들은 모르고 살아간다. 발전하는 기술과 대중들의 자연에 대한 관심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삶을 영위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생태탐방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깊은 연결을 표현하는 공간이다. 자연의 이용과 소비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로 느끼고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매개체로서 지역 생태계와 건축이 상생하는 곳을 만들고자 한다. 사람들은 격자의 목구조 지붕 아래 놓인 아케이드와도 같은 광장 아래에서 모이며, 저마다의 시선이 건축과 사람, 자연을 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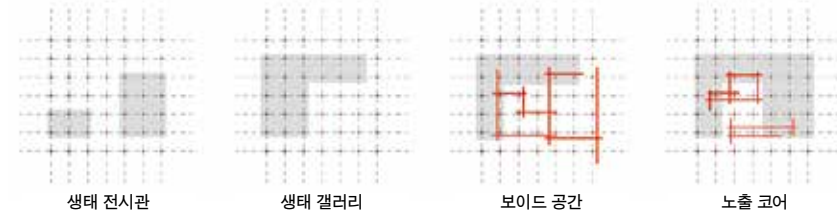
Site Plan

다양한 생태시설들이 위치한 사이트 일대는 다양한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이며 이들을 하나로 모으는 곳이다. 사람들에게 자연은 휴식의 장소이자 커뮤니티의 장소가 된다.



주위 다양한 생태환경이 조성된 사이트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나무의 형태를 이용하여 대공간의 목구조 시스템의 형상을 나무의 줄기와 가지의 연장선으로 두고 발전하였다.

Plan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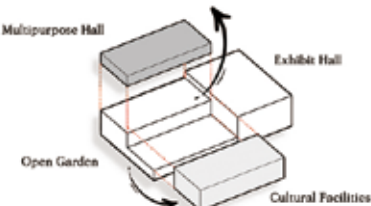


Mass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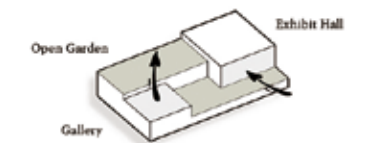


1. 대지 규격에 맞춘 매스 배치
 사이트 오른쪽에는 단양 생태 체육공원이 있고, 뒤쪽으로는 산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매스의 형태와 높이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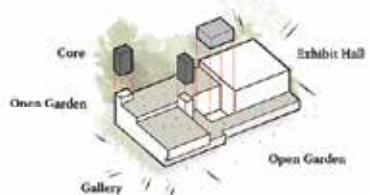
2. 용도별 구역 분리
 크게 세 가지로 용도를 분류하여 크기 및 구역을 설정하여, 출입 방향을 통한 사용자의 이동 동선을 구획



3. 높이 조절 및 정원 배치
 자연을 향하여 시선을 열어주는 정원 배치 및 주변 관계를 통한 높이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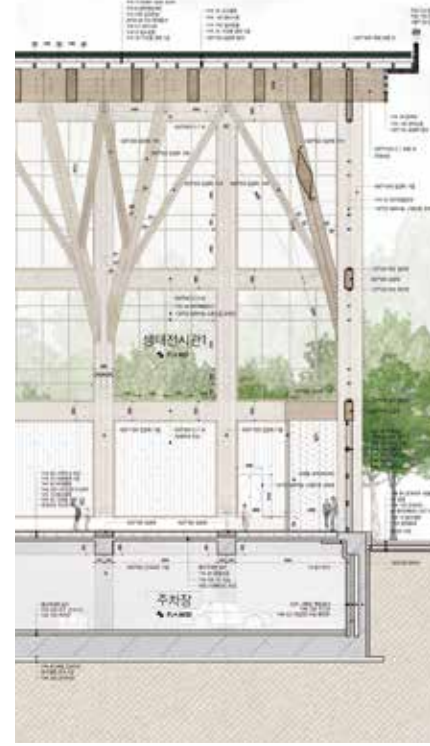


4. 매스의 유동적인 변화
 서로 간의 시선을 고려한 매스들의 변화를 통해 시선 및 동선의 다양성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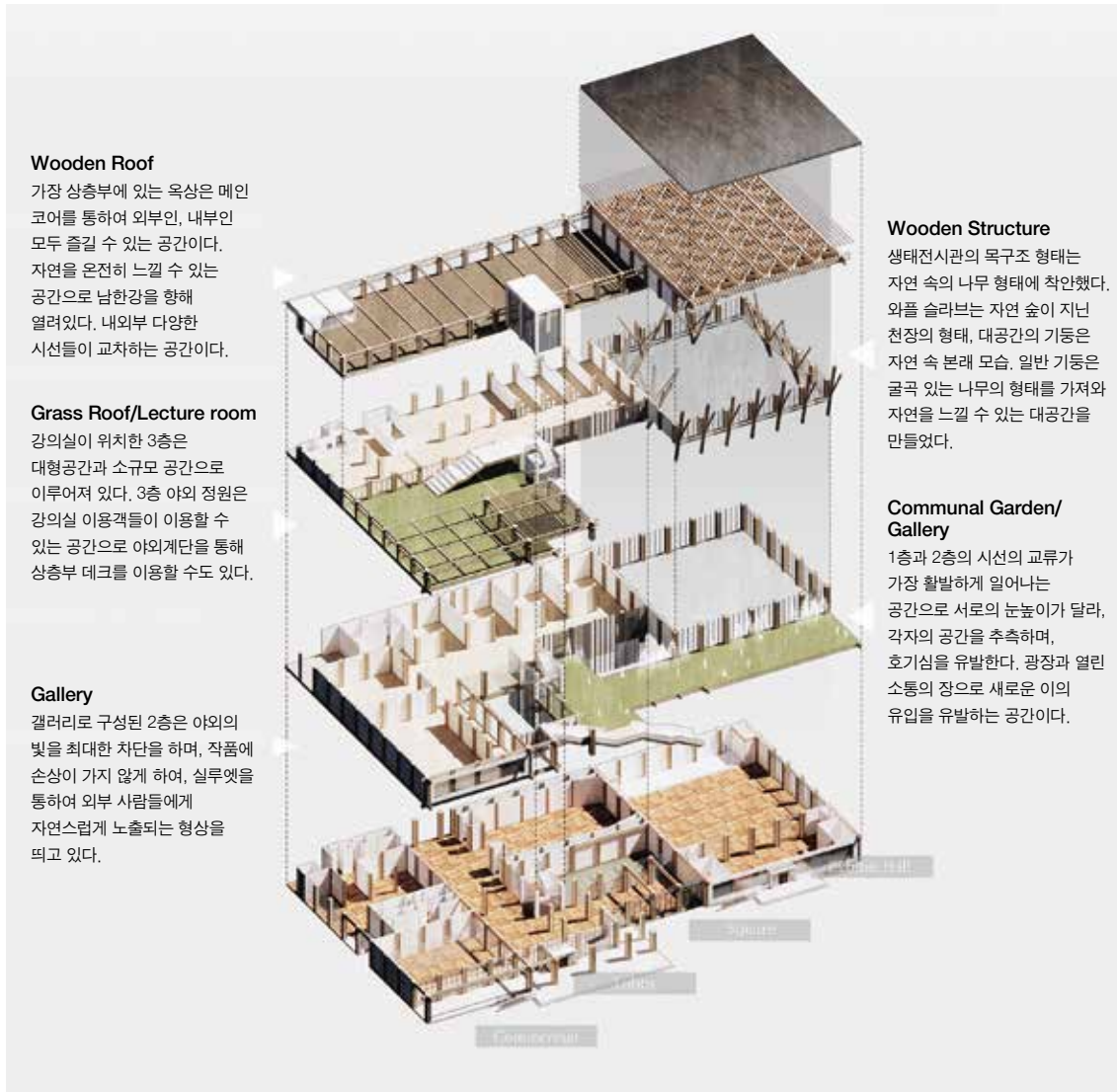


5. 노출 코어의 형성
 외부로 노출된 코어를 통하여 쉬운 접근과 동선의 이동을 더욱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야외 정원을 통한 소통의 가능성 열어둠.

Structure Section



Isometric Diagram



Wooden Roof
 가장 상층부에 있는 옥상은 메인 코어를 통하여 외부인, 내부인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남한강을 향해 열려있다. 내외부 다양한 시선들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Grass Roof/Lecture room
 강의실이 위치한 3층은 대형공간과 소규모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3층 야외 정원은 강의실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야외계단을 통해 상층부 데크를 이용할 수도 있다.

Gallery
 갤러리로 구성된 2층은 야외의 빛을 최대한 차단을 하여, 작품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여, 실루엣을 통하여 외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형상을 띄고 있다.

Wooden Structure
 생태전시관의 목구조 형태는 자연 속의 나무 형태에 착안했다. 외플 슬러브는 자연 숲이 지닌 천장의 형태, 대공간의 기둥은 자연 속 본래 모습, 일반 기둥은 굴곡 있는 나무의 형태를 가져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대공간을 만들었다.

Communal Garden/Gallery
 1층과 2층의 시선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간으로 서로의 눈높이가 달라, 각자의 공간을 추측하며, 호기심을 유발한다. 광장과 열린 소통의 장으로 새로운 이의 유입을 유발하는 공간이다.

2F Grass Roof



1F Cafe



Exhibition Hall



계획 부문 |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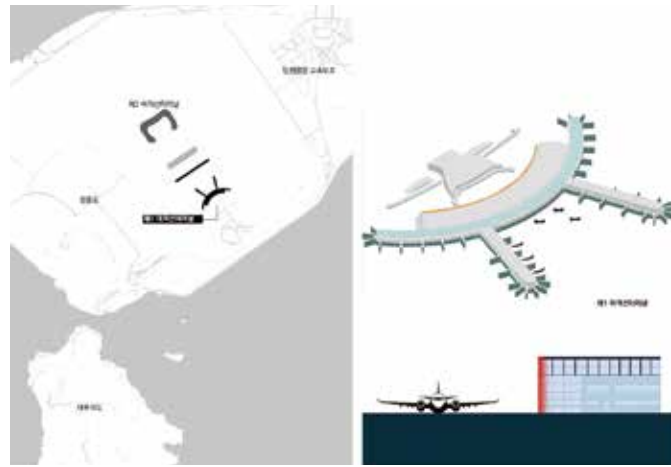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파사드 리노베이션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1 Facade Improvement Plan

김아라, 정진영, 홍인화(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기후위기 시대, 우리 삶의 양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중 건축 또한 예외는 아니다. 급속도로 발전되는 디지털시대에 언제부터인가 자연은 인간의 거대한 기계 속 부품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기계 나무 시대'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했다. 자연과 인간은 서로 공생하는 존재이며 우리는 이 시대의 새로운 짓기와 잇기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2001년 준공 후 23년이 지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노후화된 시설을 다시금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함에 따라 인천공항 외피 중심의 리노베이션 계획안을 한국의 전통건축과 결합하여 제안한다.



대상지 분석 | 도시적 분석

공항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항공운송 기지로서의 기능이다. 항공기가 대형화 고속화 됨에 따라 항공운송 시스템의 HUB & SPOKE화는 공항을 단순한 항공운송기지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대도시 인근 중소도시를 연결하는 복합 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HUB 공항은 공항 자체의 고유기능에 국제업무, 정보, 통신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Module Section



전이 공간

승강장은 고공에서 볼 수 있는 희망을 연상시킨다. 공항을 진입하면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공간을 한국의 고유한 분위기로 연출하여 문화를 이어주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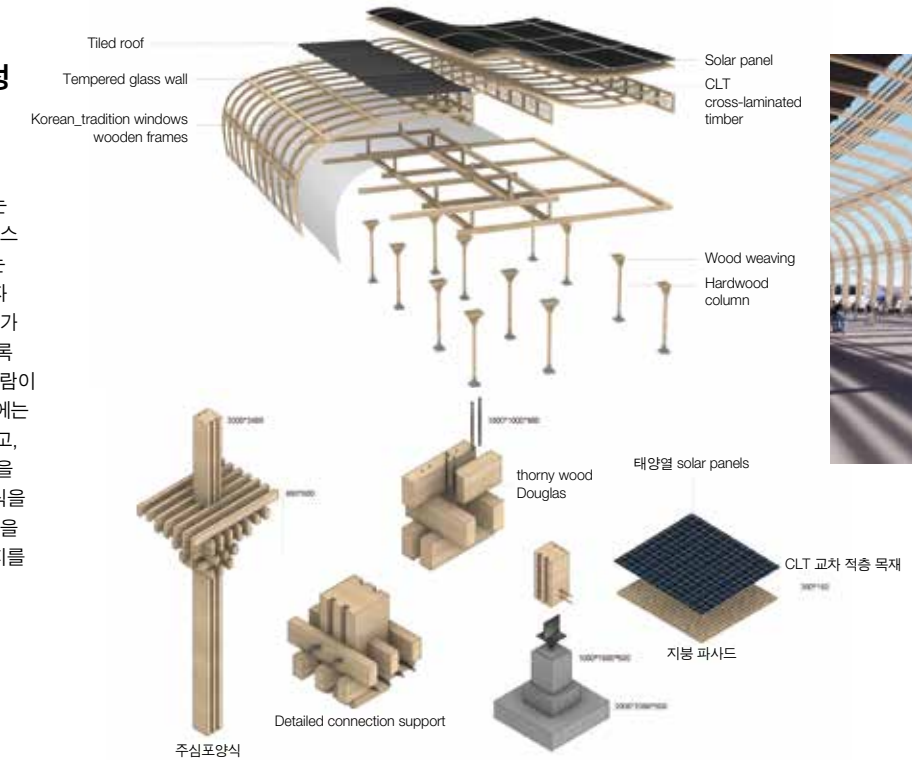
Hub의 역할

탑승동 구간의 천장은 부드러운 곡선과 창호 무늬, 공포 등 한국적인 특색을 구현하는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허브 공간에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전통건축의 현대적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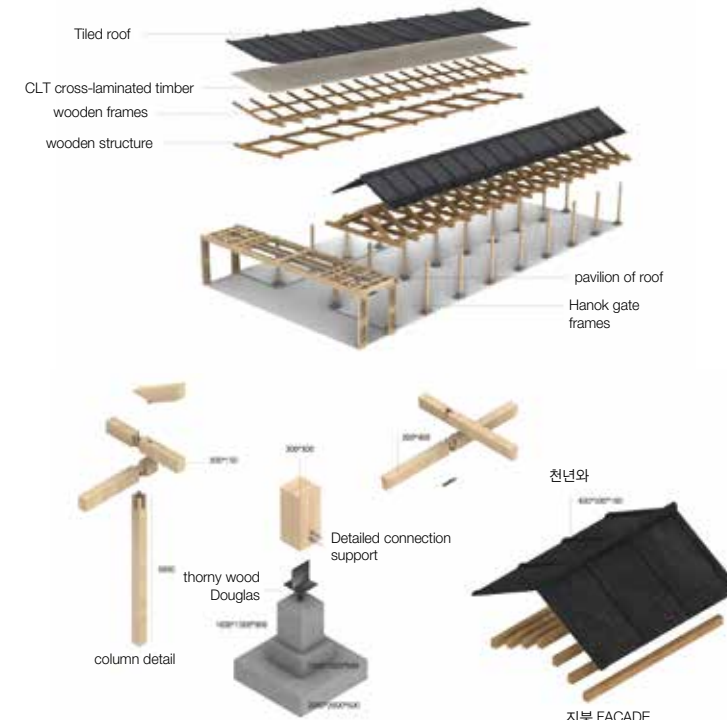
1. 탑승구 파사드 개선

인천공항의 새로운 지붕 외피 구조는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옆으로 일으키는 바람을 고려한 디자인이다. 건물에 박스 형태일 때, 바람을 맞고 다시 튕겨오는 현상으로 인한 이상기류를 방지하고자 지붕 외피를 곡선 형태로 하여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지붕이 곡선 형태여서 바람이 지붕 위를 타고 넘어갈 수 있다. 내부에는 한국의 공포와 창호의 무늬를 활용하고, 일부 부재의 접합방식을 맞춤과 이음을 사용함으로써 전통목조 접합부의 양식을 반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태양열 패널을 활용한 지붕파사드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탄소배출을 절감한다.



2. 버스 승강장

인천공항 버스터미널은 고공의 희망에 착안하여 디자인했다. 회랑(回廊)의 원래 의미는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잇기의 역할을 한다. 기다란 통로를 일직선으로 늘어난 기둥의 선과 기둥을 잇는 들보의 모습이 장관을 연출한다. 부재의 연결에 맞춤과 이음의 접합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전통목조 접합부의 양식을 반영하였다. 지붕은 전통방식인 다짐흙을 넣지 않고 목상구조를 이용한 기와지붕(맞배지붕)을 채택하여, 하중에 무리가 가지 않고 시공과 보수가 편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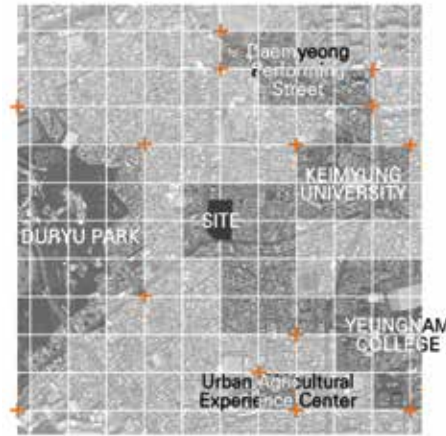


대명동 도시농업 문화시설 계획안

A.C.C Agri+Cultural Cluster

황진혁, 최원준(경북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Site Analysis



도시적 맥락을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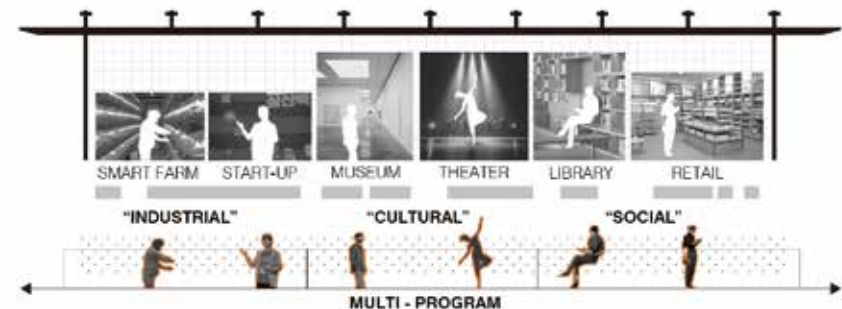
본 대지는 서측에 두류공원, 동측에는 다양한 대학교, 대명공원거리, 도시농업 체험장 등 다양한 도시적 컨텍스트를 공유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는 대구 최초로 도시농업 체험장을 개소하여 도시농업의 진흥에 힘쓰는 지역구인 만큼, 도시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설을 고려하였다.

본 대지의 문제점으로는 주위에 대학교가 높은 밀도로 있으며 대명공원거리, 경북예술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지만, 이들을 지원할 시설이나 전시기능 등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에 대지가 가진 맥락을 수용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팜을 활용한 청년 창업지원시설 및 문화 체험시설'을 제안하여 다양한 도시적 맥락을 잇고자 한다.

기계 나무 시대, 나무와 철로써 짓다

본 프로젝트는 기존 목구조조물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철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 구조의 건축물을 제안한다. 기존의 목구조조물로는 계획하기 힘들었던 형태와 함께 나무와 철의 유려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로 하여금 목조건축물의 새로운 형태를 통한 도심 내의 랜드마크를 제안한다.

Roof Diagram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건물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지붕은 건물의 영역성을 나타내며, 지역 내에서 나무 그늘과 같이 지역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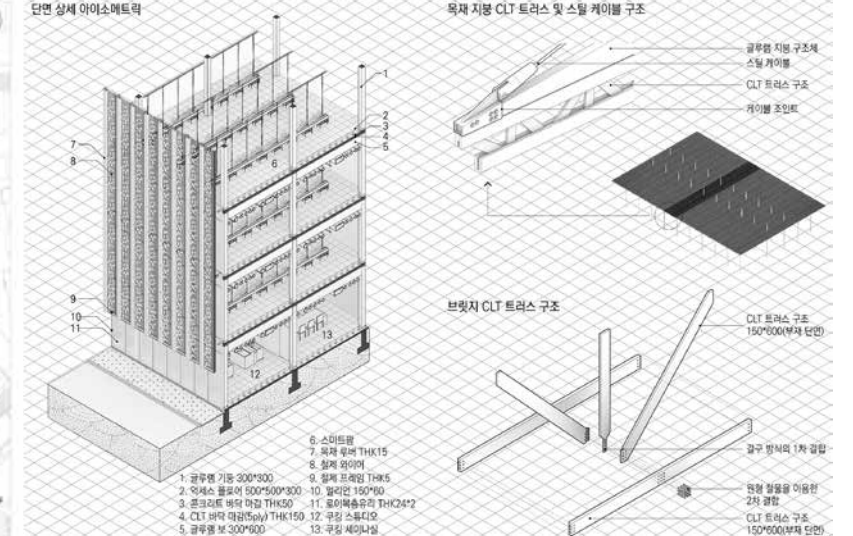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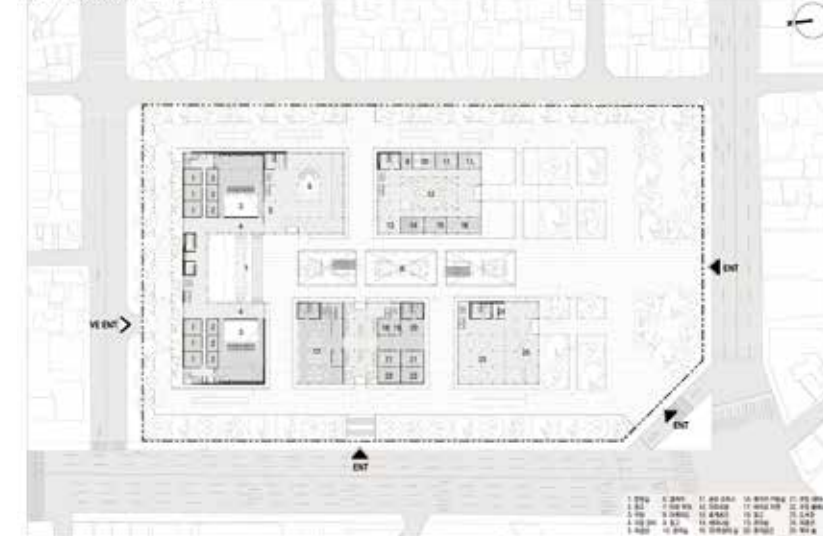
Program Diagram



도심과의 소통이 원활한 대지 남측에 열린 프로그램인 도서관과 창업지원센터를 배치하여 지역사회와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내도록 하였다. 대지의 북측에는 일조를 비교적 적게 필요로 하는 아트센터를 배치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시설을 단지의 중심에 배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과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도록 하였다.



1st Floor Plan



사이트 인근에는 대명공원거리가 위치하여 지역의 예술가 및 대학생들의 공연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규모가 30석 내외인 소극장만 존재하여, 연습실과 같은 활동공간의 부족으로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연습실이 포함된 약 250석 규모의 공연장 2개소와 아틀리에 및 갤러리를 계획하였다.

스마트팜은 단순히 재배시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구조로 이뤄진 이중외피와 외피의 녹화를 통한 레이어를 지닌 공간으로, 보다 체험적인 성격의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중자도서관은 씨앗을 대출하고 재배 후 다시 반납하는 형식으로 도심 속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중자도서관 내의 식생은 공간적으로 내·외부 간의 경계를 허물며 벽면의 책장과 더불어 다층적인 공간을 형성하여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음;所

경유뿐만 아닌 머무름으로 확장되는 휴게소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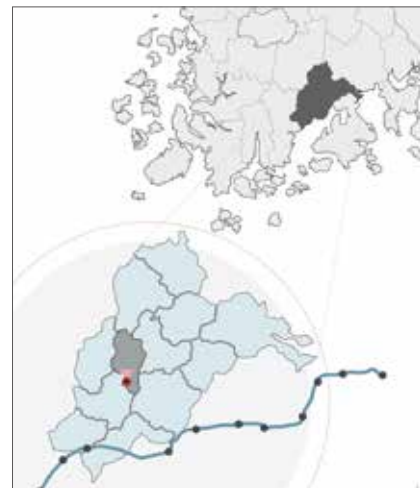
황동주, 오성택, 전병훈(단국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과)

Site - 보성녹차휴게소(목포 방향)
 도로명 : 전남 보성군 남해고속도로 63
 지번 : 미력면 화방리 산 196-7
 면적 : 약 54,660m²



Pro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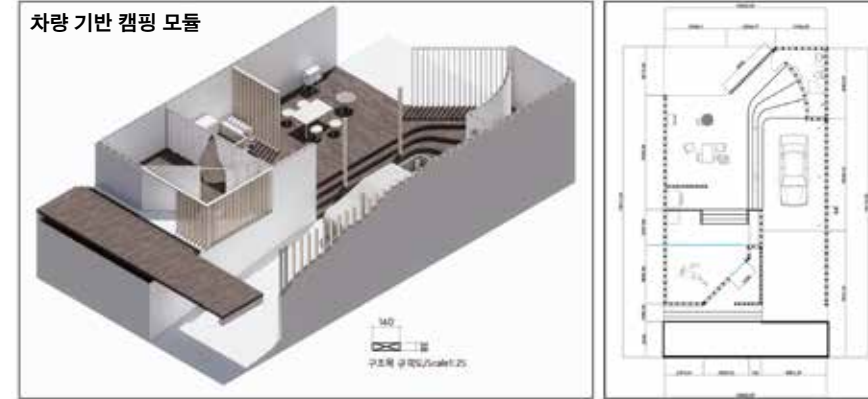
오늘날 사람들은 수많은 기계를 통해 공간에서 생활하고, 기계를 통해 공간을 이동한다. 자동차의 이동통로인 고속도로는 현대 인류에게 있어 필연적이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자연의 중심부에 위치하지만, 달리는 자동차 속에서 인간은 자연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 고속도로휴게소 또한 사람들에게 잠시 경유하는 기능적 장소에 머무르며 자연과의 연결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고속도로휴게소의 새로운 건축적 제안을 통해 자연과 기계시대의 인류를 이어보고자 한다. 긴 거리 이동 중 음식점, 카페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잠시 경유하는 역할에 그치는 고속도로휴게소를, 휴게소 자체가 목적지로 확장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에 순간적인 경유가 아닌 '머무름'까지 확장되는 휴게소 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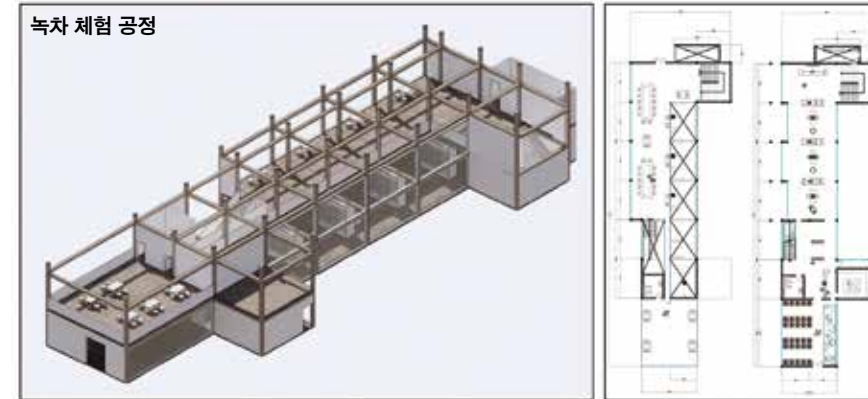
사이트는 보성녹차휴게소(목포 방향)로 남해고속도로의 영암~순천 구간에 있다. 남해고속도로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매우 중요한 축으로 남해안 지역 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보성군은 녹차 산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으로, 사이트가 위치한 미력면 남동쪽의 보성읍과 회천면 일대에는 넓은 녹차밭이 있으며 한국차박물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녹차 관련 관광산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차량 기반 캠핑 모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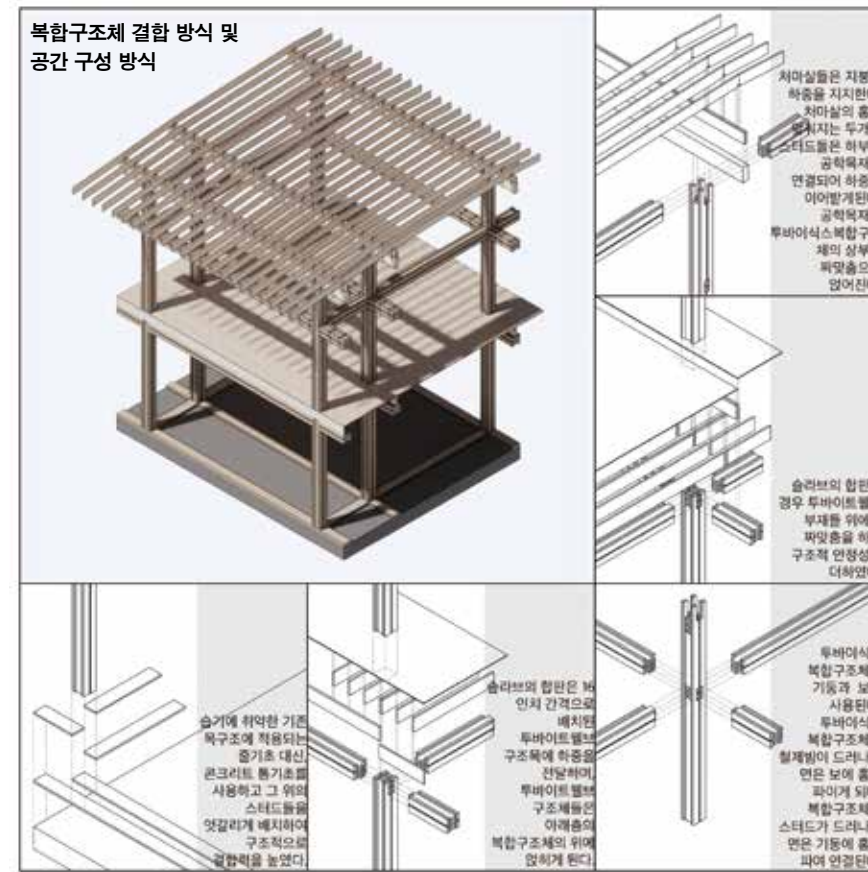
개인적인 휴식을 원하는 유저들에게 자동차 자체의 내부뿐만 아닌 차박과 캠핑이 결합된 모듈을 제시하여, 기존 휴게소의 '경유'에서 '머무름'까지 의미를 확장한다.

녹차 체험 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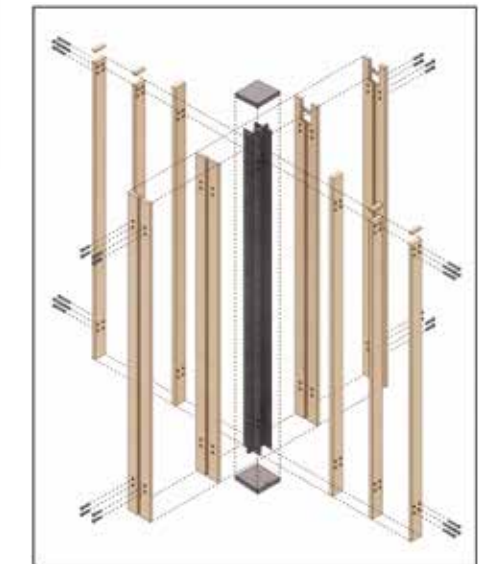


녹차를 말리는 공간인 입구를 지나 재배, 선별, 덩기, 비비기, 상품화, 시음의 공간으로 순차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보성군 특산품인 녹차에 대한 전반적인 체험의 시퀀스를 형성한다.

복합구조체 결합 방식 및 공간 구성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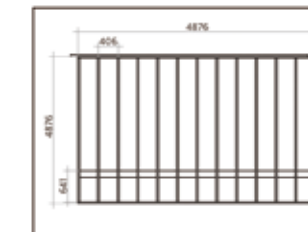


투바이익스(2x6) 복합 구조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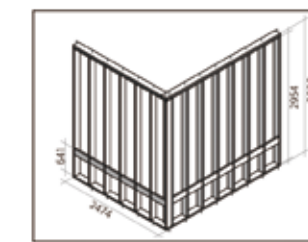


기존 중목구조 대신 투바이익스 구조목을 활용하여 중목구조를 이루고자 했다. 14개의 투바이익스 구조목과 철제 빔으로 구성되어 결합부의 약점을 철제 빔을 중심으로 결합해 보완한다. 철제 빔은 인장력에 대응하고 목재 스테드는 압축력에 대응하면서 흡사 콘크리트 기둥과 비슷한 효과를 얻고자 했다. 각 부재의 결합은 철제 빔을 중심으로 각 면마다 2개의 스테드를 배치하고, 구조목에 구멍을 뚫어 각각 8개의 볼트와 너트로 접합시켜 기둥을 형성한다. 기둥 위에는 철판을 결합해 철제 빔의 위치를 고정한다.

투바이익스 구조목 내력벽 패널



차량 기반 캠핑 모듈의 경우에는 중목구조가 아닌 경량목구조를 사용하였다. 경량목구조는 기성품인 투바이익스(2x6) 구조목으로 구성되어, 각 스테드들은 16인치 간격으로 배치되어 하중을 고르게 나눠 받으며 패널형식의 내력벽을 형성한다. 각 패널들의 결합은 패널 위아래에 구조목을 엇갈리게 덧대어 결합하게 함으로써 구조적 안정성을 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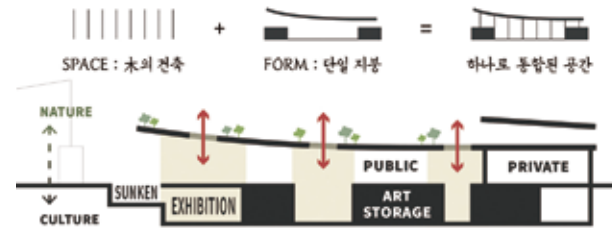
서목원 書木園

: 지식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공간_개방형 수장고와 도서관

이영인(건국대학교 건축학과)



Site Plan
 대지위치: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24 외 1필지
 대지면적: 10,030m²
 연면적: 25,000m²



목재에 의해 구축된 텍토닉적 공간은 개방적이고 유연한 공간을 창출하여 도시로부터 유입되는 흐름에 자연스럽게 대응한다. 이러한 공간은 하나의 지붕에 의해 하나로 통합되어 건물의 형태로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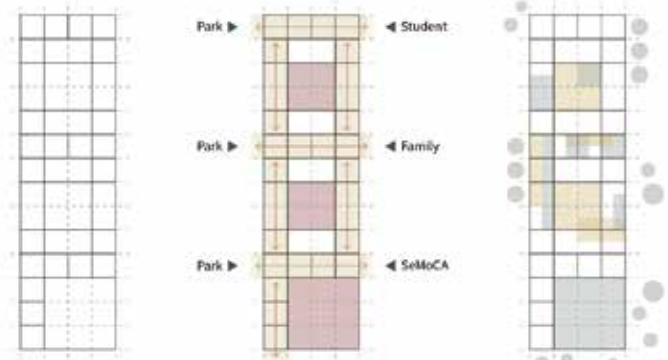


Prologue

대상지는 콘크리트 도시의 자연 공간이다. 이러한 자연 공간에는 시민들을 위한 개방형 수장고와 도서관이 결합된 문화 공간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러한 문화 공간과 자연 공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목구조 디자인 계획안을 제안한다. 대상지 분석을 통해 인사동과 북촌을 잇는 큰 흐름, 학교로부터 유입되는 학생, 어린이박물관의 가족, 광장에서 윤보선길까지 이어지는 도시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대상지 주변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Design Process



칸
 엄밀한 칸은 질서를 부여하고 유연한 체계의 기반이 된다.

순환 동선, 다중심
 대상지 흐름에 의해 형성된 순환 동선과 세 개의 중심은 공간의 위계를 연약하게 만들고 유연한 체계의 기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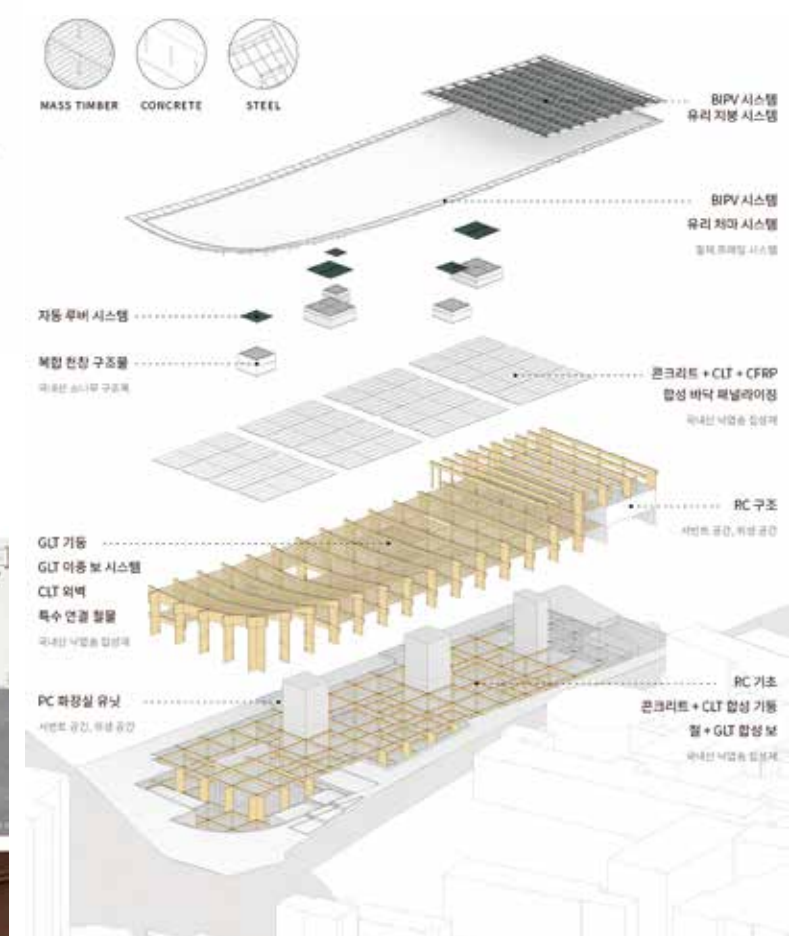
하늘과 바람과 별과 빛
 깊은 지하 공간까지 자연의 통로를 만들어 공간적 깊이와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한다.



Sustainability



Structural System



금마 문화시장

과거를 품은 나무의 미래

김태원, 고근욱, 오승규(원광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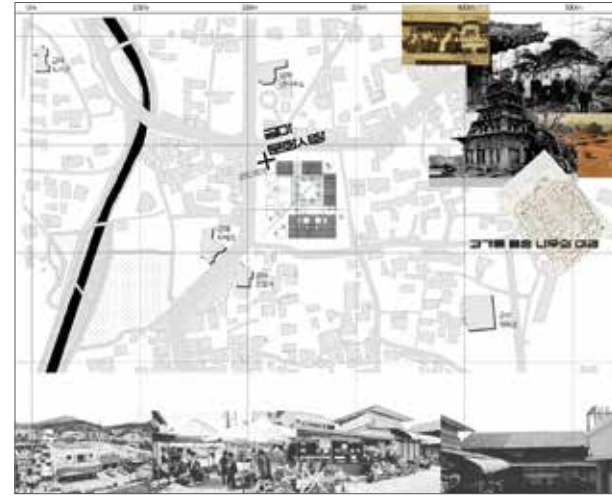
과거를 품은 나무의 미래

백제 무왕이 천도를 위해 터를 마련한 금마는 경주, 부여 등과 함께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이며 향후 복원이 예정된 지역이다. 1872년 제작된 지방도에 따르면 시장 아래에는 익산 관아가 묻혀있는데, 복원이 시작되면 시장으로서 역사는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가 없다면 과거와 미래는 이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시장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랐고, 나무를 통해 관아와 시장을 잇기로 했다.

나무는 뿌리라는 '과거'에서 시작해 '현재'인 잎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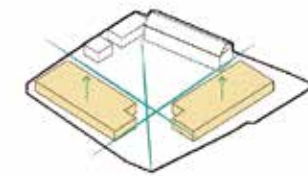
줄기를 지나 열매라는 '미래'로 나아간다. 미래를 향한 희망은 뿌리가 다시 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의 원동력이 된다. 시장을 한 그루의 나무라 보면 뿌리는 역사를 보여주는 관아, 현재는 시장, 미래는 새로운 공간으로서 시장이 나아갈 지향점이 된다. 우리는 이 요소들을 모듈화 하고 이를 그리드 안에 반복시켜 하나의 나무로 이어냈다. 구획으로 보존된 관아터는 뿌리이며 땅의 역사를 대변하고 시장에 문화적 성격을 부여한다. 모듈은 잎이다. 상점, 난전, 관아터, 스마트팜으로 구성되며,

생산과 소비 활동의 무대가 된다. 3×3m의 크기로 대지를 나누는 그리드는 줄기이며 필요에 따라 분리되거나 결합하여 있는 모듈을 하나로 이어준다. 스스로 자라나는 나무처럼 시장 안의 활동은 순환적이다. 시장에서 얻은 에너지로 재배되는 스마트팜의 농작물은 시장에서 소비된다. 관아터는 시장 안과 밖을 이어주는 문화 공간이자 소비공간이다. 생산, 소비, 문화가 한 공간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의 모델이 우리가 나무를 매개해 얻고자 하는 새로운 열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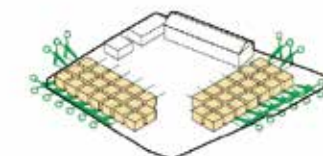


모듈과 공간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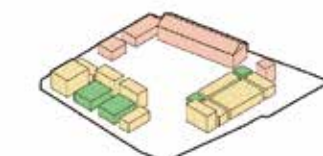
중양의 광장을 중심으로 북측에 지방도에 따라 발굴된 관아터가 위치한다. 우측으로 과거부터 남아있던 일제창고를 보존하고 전시와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다. 원래 시장이 있던 남측과 좌측에 시장과 상점을 배치한다. 중앙광장과 시장이 만나는 경계를 중심으로 오일장이 열리는 공간을 배치한다. 오일장이 열리지 않을 때는 휴게공간으로 사용된다. 3×3m 사이즈의 기본 모듈을 바탕으로 스마트팜, 상설시장, 오일장, 관아터 등의 확장 모듈이 파생된다. 상설시장 근처에 스마트팜을 배치했으며 몇몇 스마트팜은 건물 내부에 내장되어 있다. 스마트팜에서 사용하는 물과 에너지는 관아터 옥상의 태양광 발전기와 저수시설을 통해 공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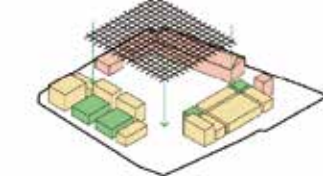
구획
축선에 따라 땅을 분리하고 도로변에 인접한 땅에 매스를 올린다.



분절
모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해진 크기에 그리드를 기준으로 매스를 분리한다.



통합
관계에 따라 연관성이 있는 모듈을 독립된 매스로 통합한다.



연결
독립된 매스를 연결하는 그리드를 추가해 각 매스를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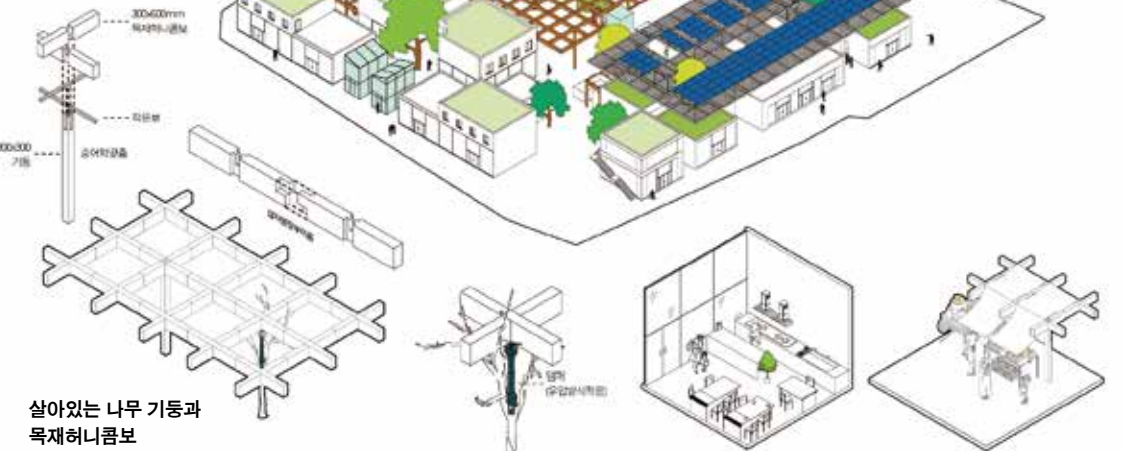


스마트팜 플랫폼

관아터의 옥상에서 얻어지는 에너지와 물은 지상의 물탱크와 발전기에 저장되고 스마트팜의 자원으로 사용된다. 상점 안 혹은 밖에 위치하는 스마트팜은 시장에서 소비되는 채소나 과일을 생산한다.

관아터

관아터를 보존하기 위해 보존공간을 구획하고 그 위에 한옥의 지붕을 형상화한 원통형 막대 조형물을 설치했다. 조형물 중 일부는 조명으로 사용된다. 조형물 위에는 치양막이 설치된다. 치양막의 치양은 기와 모양으로 꺾여있어 직접광을 난반사해 밝지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낸다.



살아있는 나무 기둥과 목재허니콤보

살아있는 나무가 기둥이 되어 그리드를 이루는 보를 지지한다.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줄기와 보 사이에 뿔뿔을 설치했다. 나무가 부담하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허니콤 구조의 보가 사용되었다. 결합에는 전통결구법이 사용되었는데 보하단에 천막과 같은 요소를 보완하기 위한 작은보를 결합하기 위해 승어턱맞춤을 변형해 결구하였고, 이음부는 가벼운 보를 결합시키기 위해 접촉면적이 넓은 십자쌍장부이음을 활용했다.

상설시장

3×3 그리드의 배수로 구획된 상점 모듈로 시장에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건물형태이다. 경우에 따라 스마트팜이 내장되어 있을 때도 있다.

오일장

전통 발처럼 천과 그리드를 활용해 구획을 나눠준다. 오일장이 열리는 시기에 사용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말아 올려 보 사이에 걸어두거나 휴식을 위한 치양으로 사용한다.



옛 경주역 부지 문화복합시설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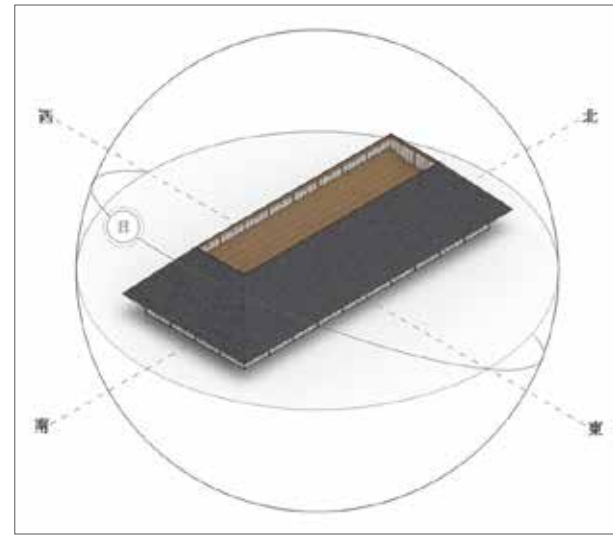
Glulam Mega Roof

정성현, 이민규(영남대학교 건축학과)

Site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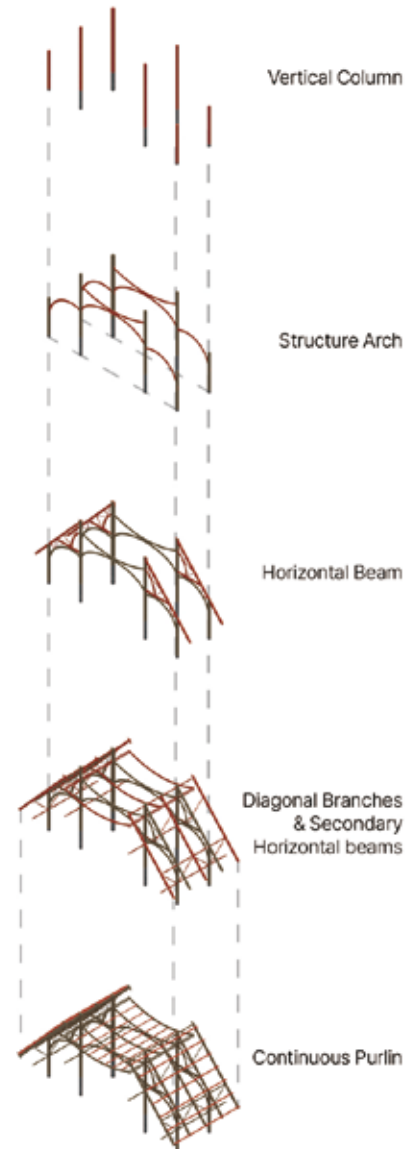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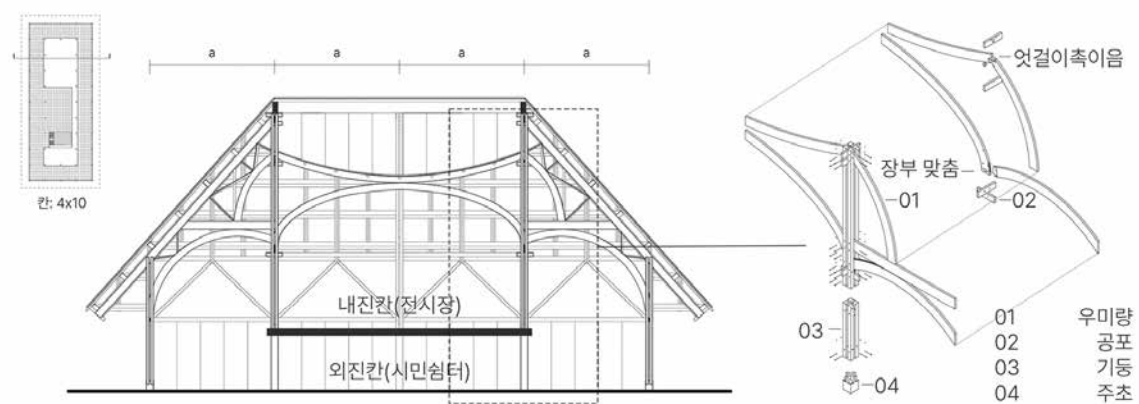
Isome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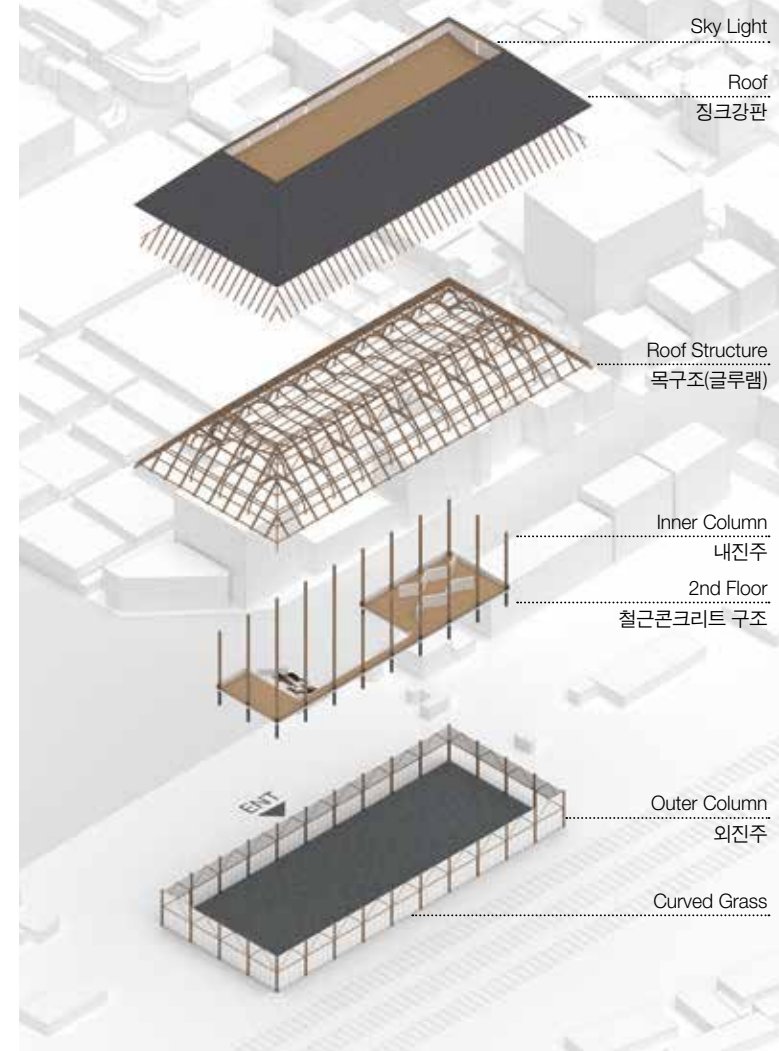
유네스코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해 경주 시내에 있는 철로 이설을 권고했고, 신경주역이 지어졌다. 이에 따라 옛 경주역 부지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생겼다. 역사적인 문화관광도시인 경주의 중심지로, 한국 전통 목조건축의 공간 구성과 구조를 현대화하여, 거대한 지붕 형태의 문화복합시설을 계획하였다. 'Glulam Mega

Roof'는 다양한 문화 활동과 커뮤니티의 중심지가 되어 관광객들에게 경주만의 독특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소중한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경주의 새로운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Structure Concept



Axonome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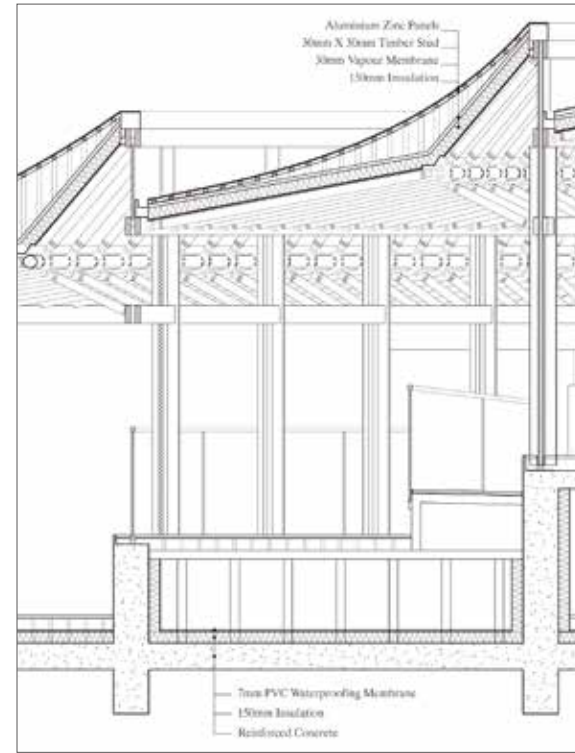
돈의문 전통부재 박물관

Girderless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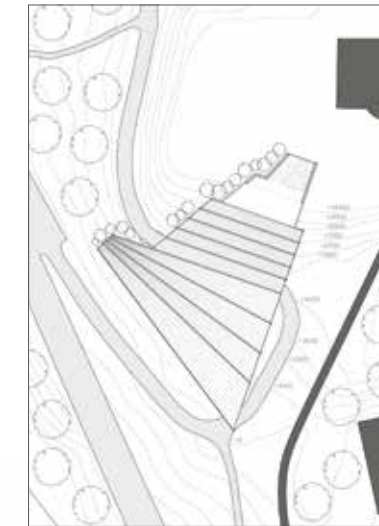
조경, 이현선(한양대학교 건축학부)

돈의문 전통부재 박물관 프로젝트는 서울기상박물관 남서 방향의 경사 대지에 전통 목구조 건물 부재를 보관하고 전시하는 공간이다. 서울시가 경희궁과 돈의문 일대에 역사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기존의 부지는 작은 공원과 서울기상박물관까지 이어지는 산책로, 그리고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이 위치한다. 본 프로젝트는 심한 경사로 인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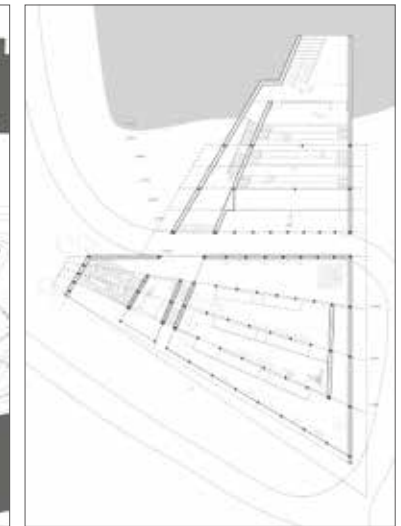
공원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에 경사에 순응하는 건축물을 계획하면서도, 기존 산책로의 맥락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등고선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지붕은 정형적으로 정의 내리기 힘든 곡면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디지털패브리케이션 기술과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인트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목구조 형태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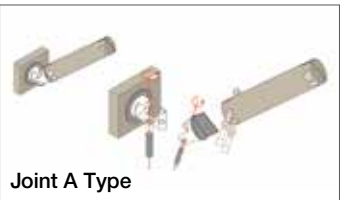
남서 방향의 가장 낮은 산책로 방향부터 동북 방향의 국립기상박물관까지를 이어주는 모습을 하고 있다. 경사 아랫부분의 매스와 윗부분 매스 사이에는 기존의 산책로를 그대로 살려 기존 지형과 맥락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지붕의 모든 면은 윗부분이 들려있어 간접광이 들어오도록 하여 박물관 전시에 더욱 유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경사 위쪽에 있는 세미나실의 경우에는 '팔상전' 등에서 사용된 연속구조방식을 차용하여 세미나실에 필요한 보다 넓은 스패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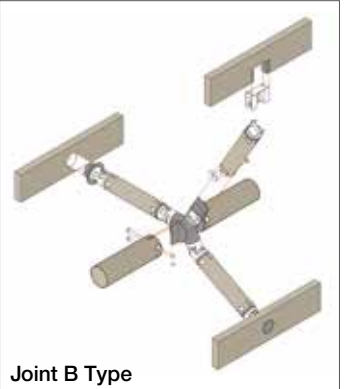
Sit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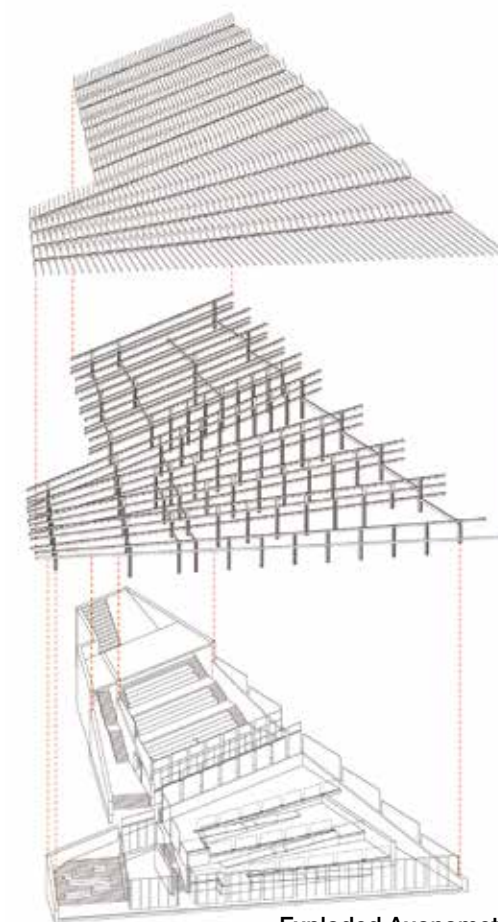
Plan



Joint A Type



Joint B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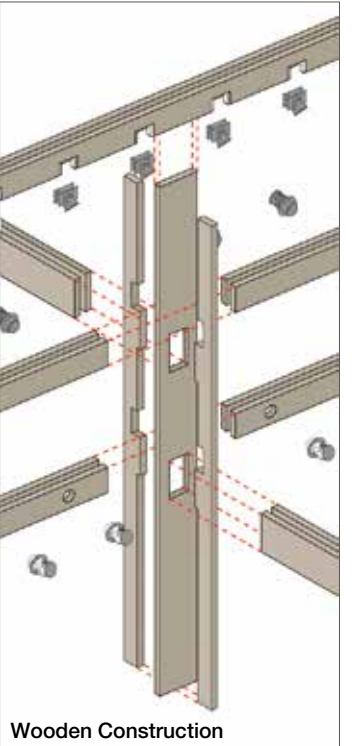
Exploded Axonometry



Exhibition Hall Side View



Side View



Wooden Construction

너나들이 문화광장

:문화재와 함께 하는 터전

백현보, 정겨운(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 공간디자인전공)

건물 개요

위치 :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

용도 : 문화 및 집회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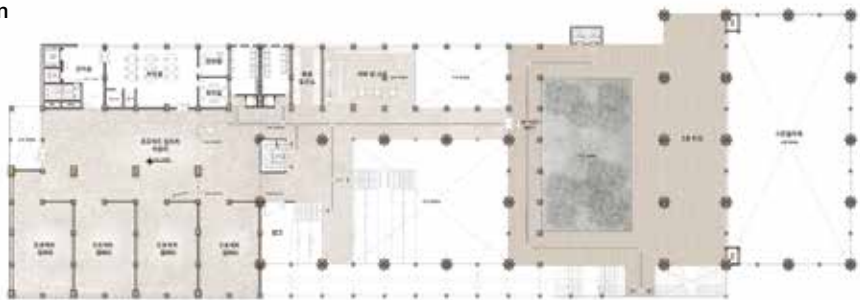
규모 : 지상 3층 지하 1층

구조 : 하이브리드 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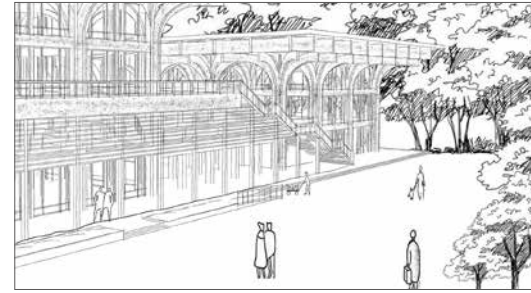
Mass Diagram



1F Plan



Groun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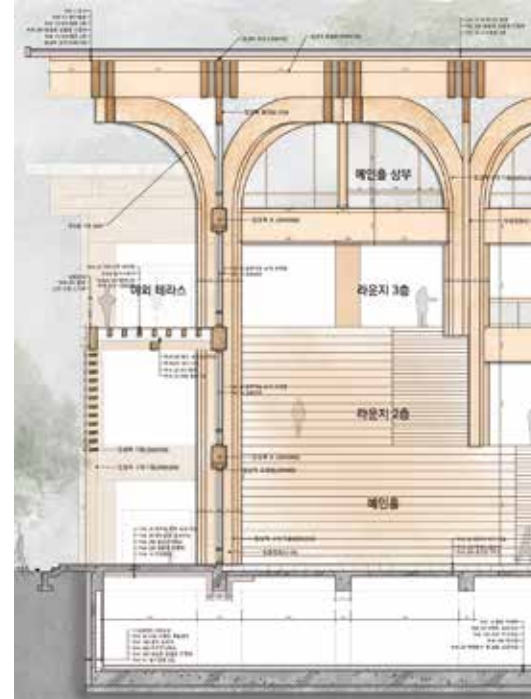
Site Analysis

사이트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 위치이다. 주변에 문화유산이 많이 근접해 있으며 유동인구가 매우 많다. 전면엔 넓은 녹지공간이 있고 외부 전시 등 많은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다. 또한, 후면엔 좁은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녹지광장으로 들어오기엔 좁고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문화유산 사이에 있는 것과 주변의 접근성 그리고 사람들이 유동성을 생각하여 사이트의 문제점을 목구조와 건물의 흐름을 통해 해결해 보고자 한다.

Concept Sketch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에 사람들의 유입을 더 신경 쓰고 과거와 현대의 접점을 거대한 나무 공간을 통해 연결하고 싶었다. 기단 내부로 녹지를 끌어들이며 중정을 만들고 그 중정 중심에서 메인홀과 시민플라자로 흘러드는 공간을 원했다. 또한, 대공간 사이에서도 녹지를 보며 사람들이 쉬고 갈 수 있고, 건물 밖으로 나올 때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갖기를 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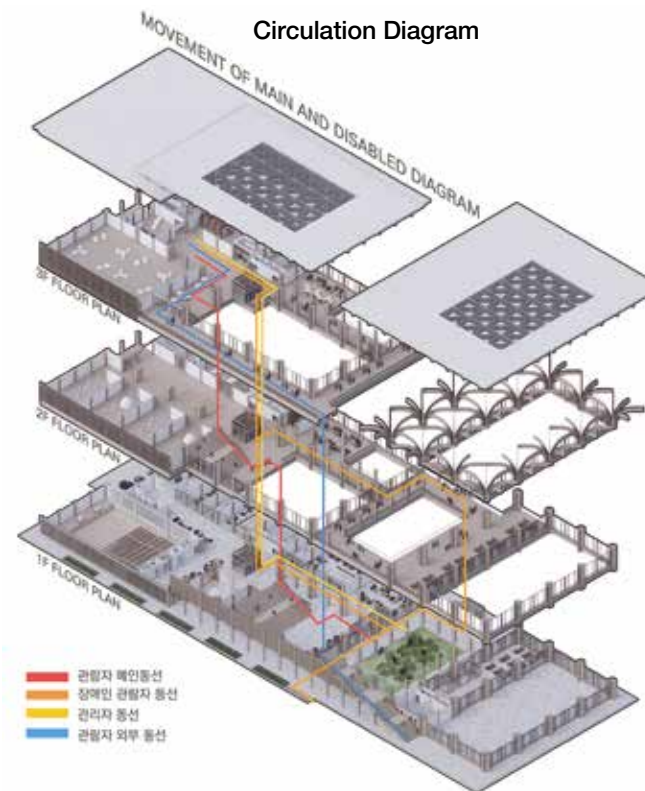
Section Detail C-C Plan



Front Elevation Plan

Left Elevation Plan

Circulation Diagram





(사)한국목조건축협회에서 하는 일

(사)한국목조건축협회

연구기관

산학공동연구
부설기관 설치운영
실연연구
대학연구소
건설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정부

목조건축 진흥을 위한
법령, 제도 개선 건의
단체표준 등 표준화
산림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수탁사업
기술자 양성
MOU체결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학회/협단체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주관
에너지 저감책 교류
단열기준 기술 교류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
한국페시브건축협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목재문화진흥회
한국목재공학회

해외 협력기관

정보교류
국제 대외협력
Canada wood
일본주택산업협회
JETRO
BC우드
WCTE
우드하우스 에스토니아

목조 건축업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우리나라 목조 건축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현장 경험 중심의 목조건축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최신 건축자재 및 기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목구조 기술자 기술인력 양성

한국형 목조건축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목조 건축업의 설계·시공·수리·보존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목조건축 품질 표준에 따른 감리 및 인증 연구

목구조 건축기술의 핵심이 되는 최소한의 규정을 제시, 우수한 목조건축 보급을 목적으로 민간 차원의 감리 제도인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한다.

목조건축 관련 정부 지원 요청 사업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의 목조건축 관련 기관들의 홍보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법령의 개선 및 정책 등을 지원한다. 관련 법령의 개선 및 정책 마련을 선도한다.

세미나 개최, 간행물 발간 등 홍보 활동

목조건축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목조건축포럼 및 기술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목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자료 간행물 등을 발간한다.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목조건축 관련 각종 법령, 제도, 기술의 합리적 개선 등을 현장 실무에 근거하여 조사·연구하고 결과물을 회원사에 제공한다.

각종 전시회 참가 및 주최

회원의 효과적인 홍보와 공동 이익 도출을 위해 각종 전시회를 공동 참가 또는 공동 주최한다. 매년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을 주관하여 목조건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목재 교육 전문가 국가 자격 양성과정 운영

목재 교육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양성된 목재 교육 전문가에게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제도



목조 건축물 품질인증
QUALITY APPROVAL OF WOODEN ARCHITECTURES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제도는 부실 건축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막고 더 우수한 목조주택 보급을 위해 국립삼림과학원,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협회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목조건축 감리제도로 2009년부터 (사)한국목조건축협회에서 운영 중이다.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과정은 목구조 건축기술의 핵심이 되는 최소한의 규정을 제시하고, 사전 도면 검토 후 시공단계별로 현장

을 방문하여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술적 지원을 더 하여 목구조 건축물이 100년 주택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현재 중목구조 및 대단면구조로 시공되는 공공시설물에도 5-Star 품질인증이 적용, 확대시행 중이다. 단체 표준으로 등록 예정이며, 목조건축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현장 방문 시기 및 점검 사항



1차 실사

- 외벽 벽돌개 못박기 후 / 외부 투습방수지 설치 전 방문
- 부재 간 못박기 시공 등 점검



2차 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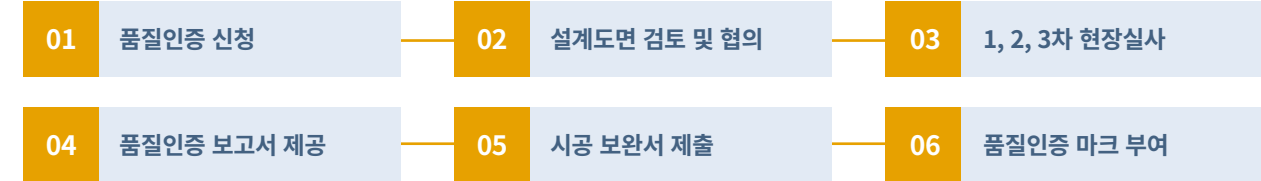
- 외부 투습방수지 설치 후 / 골조 시공 및 설비배관, 전기배관 완료 후 방문
- 전체적인 구조, 부재의 따냄 및 천공 등 점검



3차 실사

- 단열재 시공 후 / 외부 마감 시공 중 / 내부 석고보드 설치 전 방문
- 단열 및 수분 관리, 외부 마감 등 점검

인증 절차



5-STAR ECO

5-STAR ECO는 한국임업진흥원과 협력하여 목재 탄소저장량 표시를 5-STAR 품질인증에 도입한 제도이다.

탄소저장량 측정·표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목재제품에 포함된 탄소저장량을 산정지침에 따라 계량적으로 표시함으로써 목재제품이 갖는 친환경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진행하는 법정제도이다.



5-STAR ZERO

5-STAR ZERO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5-STAR 품질인증에 도입한 제도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고성능 단열재와 고기밀성 창호 등을 채택,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Passive)기술'과 고효율기와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액티브(Active)기술' 등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사용자가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한 건축물을 뜻한다.



신청방법 및 문의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신청은 시공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공사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건축주나 건축사사무소도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전에 시공사와 협의해야 한다. 이는 인증 과정에서 건축주, 시공사 및 협회 간의 사소한 분쟁이나 오해 등의 혼선을 방지

하기 위함이다. 건축도면 및 구조도면 검토를 위해 최소한 착공 한 달 이전에는 신청해야 하며, 이미 착공된 건축물은 신청할 수 없다.

(사)한국목조건축협회 02-518-0613

“목조건축에 더 깊은

가치를 담습니다”



(사)한국목조건축협회 활동 회원사 리스트

설계 업체

업체명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최삼영	02-3143-0057	경기도 고양	www.kawadesign.net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김용미	02-534-1471	서울시 서초	www.gsarchi.co.kr
(주)노바건축사사무소	강승희	02-333-5863	서울시 마포	studio-nova.co.kr
(주)건축사사무소 스무솔	홍진희	02-515-7106	서울시 강남	www.smusoop.com
(주)하우스스타일 건축사사무소	김주원	02-564-7012	경기도 양평	hausstyle.co.kr
(주)생각나무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강주형	02-499-3338	서울시 성동	www.thinktr.com
건축사사무소 KDDH	김동희	02-2051-1677	서울시 강남	kddh.kr
(주)에이디모베건축사사무소	이재혁	02-511-5854	서울시 종로	admobe-myportfolio.com
(주)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천국천	02-2113-7800	서울시 영등포	cafe.daum.net/haninar
(주)건축사사무소 다솔	이성배	02-552-9962	서울시 송파	www.daasolee.com
플라잉건축사사무소	서경화	02-6013-5063	서울시 성동	www.flyingarch.co.kr
그루건축사사무소	정주광	02-333-4549	서울시 마포	www.designgroo.co.kr
종합건축사사무소백석그룹	전보영	031-8015-4595	경기도 화성	bs779900@naver.com
건축사사무소 이인집단	이영재	070-7706-5100	서울시 마포	www.othersA.com
건축사사무소 예감	강미현	063-288-9380	전라북도 전주	www.cckang.kr
(주)조한준건축사사무소	조한준	02-733-3824	서울시 성북	the-plus.net
마루건축사사무소	우현배	031-771-2964	경기도 양평	www.mahru.co.kr
소하건축사사무소	최성호	02-2038-4758	서울시 서초	www.sohaa.co.kr
건축사사무소 이루안	김기행	042-271-0126	대전시 동구	eruanarchi@naver.com
홈플랜건축사사무소	김소연, 이동진	031-275-5296	경기도 용인	www.homeplan.co.kr
건축사사무소 리얼랩 도시건축	허길수	02-318-4001	서울시 중구	www.reallab.kr
연이종합건축사사무소(주)	김종기	070-4101-6871	서울시 서대문	paulkimm@hanmail.net
건축사사무소 재귀당	박현근	02-408-6045	서울시 송파	www.jaeguidang.com
정갑건축사사무소	김구태	031-707-8988	경기도 성남	kgarchitect.co.kr
(주)단갑건축사사무소	감은희	02-6217-8754	서울시 영등포	www.edangam.com
가온건축사사무소	김은경	042-637-2458	대전시 서구	ekk1231@naver.com
(주)광장건축사사무소	이현욱	02-717-3390	서울시 서초	cafe.naver.com/duplexhome
소솔건축사사무소	왕성한	02-457-0218	서울시 광진	www.sosol.co.kr
피원건축사사무소	장진희	02-2135-2627	서울시 서초	www.p1architecture.com
건축사사무소 스튜디오더원	원계연	070-4239-7009	강원도 원주	www.thewon.kr
마로안건축사사무소	이욱정	02-2051-9330	서울시 강남	www.maroan.com
b2 Shapes	김계숙	02-554-2122	서울시 강남	b2shapes@gmail.com
(주)오월건축사사무소	심정열	02-2676-0827	서울시 영등포	owolarchi@naver.com
(주)유타건축사사무소	김창균	02-556-6903	서울시 광진	www.utaa.co.kr
투닷건축사사무소(주)	조병규, 모승민	02-6959-1076	경기도 양평	todot.kr
건축사사무소 청목재	서정수	02-2058-3339	서울시 서초	blog.naver.com/soomok737
ZESS연구소	박정로	010-2222-3460	경기도 양평	zessconsultancy@gmail.com
디엔에이 건축사사무소	신범석	02-999-5855	서울시 도봉	danda.kr
수영아틀리에 건축사사무소	최수영	0507-1437-2920	경기도 용인	blog.naver.com/mwchoi22
에이투디건축사사무소	박찬우	070-8877-1807	서울시 송파	atod.kr
(주)건축사사무소시드	이준석	02-543-8021	서울시 종로	https://sied.co.kr/
건축사사무소 현	현군출	064-702-6509	제주특별자치도	hyun6509@paran.com
아키텔폼건축사사무소	황동근	033-261-8527	강원도 춘천	yazasu0924@hanmail.net
에이루트건축사사무소	이창규	064-721-1210	제주특별자치도	www.arootarchitecture.com
(주)두항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김각경	02-578-4462	서울시 강남	dhsc@chol.com
터구조(주)	박병순	02-6426-1600	서울시 종로	thekujo@thekujo.co.kr
(주)위너스BDG	이 석	02-322-0438	서울시 금천	www.w-bdg.com
HAUSTEC Ltd.(하우스텍)	주종범	587-777-5230	캐나다	david@haustec.ca
(주)금나구조기술사사무소	마영민	02-6949-4651	서울시 금천	gumna2017@gmail.com
튼튼구조엔지니어링	박상욱	02-462-3620	서울시 성동	sdeng20018.modoo.at

도야구조기술사사무소	서연주	02-6412-1004	경기도 수원	doya1eng@daum.net
유노텍 구조기술사사무소	오용균	02-6284-1034	서울시 서초	mrmroh@naver.com
믿음구조기술사사무소	황진섭	031-548-1601	경기도 수원	sagitta98@naver.com

시공 업체

업체명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스튜디오하우스	김갑봉	02-584-1090	서울시 은평	www.stugahouse.com
뉴타임하우징	강대경	1599-4169	서울시 서초	www.newtimehousing.com
(주)시스홀종합건설	이국식	02-704-0482	서울시 서초	instagram.com/igusig?igshid=ZDkNTZiNTM=
(주)중부이엘에스	김경환	043-533-1335~7	충청북도 진천	jbloghomes.co.kr
(주)케이에스피앤씨	장길완	031-771-1343	경기도 양평	jang-ks2013@hanmail.net
(주)스마트하우스	이영주	031-971-4818	경기도 고양	www.smarthousing.co.kr
(주)더존하우징	이용진	1644-3696	경기도 화성	www.dujon.co.kr
(주)제이디홈플랜	오권만	064-747-2178	제주특별자치도	jdhomeplan.com
(주)브랜드하우징	문병호	031-714-2426	경기도 성남	www.brandhousing.co.kr/
니드텍건설(주)	유창민	1577-0192	부산시 강서구	needhaus@naver.com
우드선	원양상	1644-0523	경기도 남양주	www.woodsun.co.kr
삼림하우징테크	김태국	053-313-3388	대구시 남구	slhousingtech.itpage.kr
화미건축	김태엽	031-772-7845~6	경기도 양평	www.whami.co.kr
호멘토	이 건	1670-6234	경기도 성남	www.homento.co.kr
꿈꾸는목수	소태웅	1599-1723	광주시 남구	www.woodenhouse.kr
티비(TB)건설	한민희	043-853-4997	충청북도 충주	4997timber@naver.com
(주)원원하우징	이재국	1599-4323	세종시 금남	www.winwinhousing.co.kr
네타건설	배용근	010-2662-5870	서울시 양천	www.neta.kr
나무집공작소	윤세웅	010-3528-4661	경상북도 영주	cafe.daum.net/countrywoodhome
살구마을(주)	박은국	031-772-3305	경기도 양평	cafe.naver.com/ypjpforesthill
(주)에이치원(이건창호)	정해승	031-997-0103	경기도 김포	blog.naver.com/hone9970103
코빌하우징	양수복	031-775-7277	경기도 양평	www.cobil.co.kr
한솔건축	김상연	051-583-8697	부산시 금정	www.i-hansol.com
나무이야기	홍규택	010-3890-3751	경기도 하남	hongnamoo@naver.com
(주)에이치티종합건설	김강일	1588-9704	서울시 서초	www.house-talk.co.kr
디자인 하우스	김민기	055-583-6035	경상남도 함안	dscckom@hanmail.net
(주)윤성하우징	윤용식	1566-0495	경기도 안산	yunsunhousing.co.kr
리더스건축	송용욱	1599-0481	경기도 양평	song3580@naver.com
가원하우징	김태희	053-964-5355	대구시 동구	blog.naver.com/gw5355
(주)아름단단	최동우	044-864-9665	세종시 나성	www.armdan.co.kr
휴먼홈	최통일	1811-7995	충청남도 천안	cafe.naver.com/no1tongil
골드홈공업(주)	김진용	031-797-3005	경기도 광주	www.goldhomes.co.kr
모던코트시스템	심재섭	031-618-2509	경기도 평택	blog.naver.com/moderncoat
(주)수피아건축	이주석	032-504-1025	인천시 서구	www.supiacon.co.kr
하우스컬처	김호기	044-867-7562	세종시 나성	www.hausculture.com
(주)위드하임	윤경일	031-774-4745	경기도 양평	www.withheim.co.kr
화이본(Whaibon)	박근량	055-267-5631	경상남도 창원	blog.naver.com/grpark0686
(주)제이종합건설	정재민	02-400-3594	서울시 종로	www.j-cons.co.kr
휴인(주)	최미경, 최규웅	062-945-0036	전라남도 신안	www.huin.kr
(주)푸른숲	임영국	031-771-6700	경기도 양평	vnmstuv73@naver.com
공간연구소-집"	서문원	070-5129-2055	서울시 송파	www.spacehouse.kr
(주)더원하우징	이윤범	033-264-1147	강원도 춘천	theonehousing@daum.net
(주)망치소리종합건설	송동선	031-705-4636	경기도 성남	www.mangchisori.kr
(주)제이콘 종합건설	황소진	032-567-1610	인천시 서구	www.jconhousing.com
진성이엔지(주)	장관영	033-435-0477	강원도 홍천	jinsung1004@hanmail.net

(사)한국목조건축협회 활동 회원사 리스트

주미건하우징	김대기	02-897-7717	경기도 광명	www.meegun.co.kr
더홈 파트너스	김현덕	010-8787-8204	대구시 달성	m.blog.naver.com/kimscall7/222460433104
공간인(주엘피하우징)	진창진	010-2559-0427	경기도 여주	www.gongganin.co.kr
주바움, 바움 패시브허브	임영권	031-928-6801	경기도 양주	www.baumbest.com
주아키리얼 종합건설	손창완	070-7867-1180	경기도 고양	www.arkireal.co.kr
주정담건설	이미숙	031-775-0625	경기도 양평	www.jung-dam.com
새하늘하우징	송세관	062-251-5459	광주시 북구	sky201108@daum.net
와이에이치 목조주택	최호순	010-2578-7110	강원도 강릉	chs1064a@gmail.com
팀버이앤씨	이기노	043-853-5004	충청북도 충주	명예회원

자재 업체

업체명	주요품목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경민산업(주)	구조용집성재	이한식	032-575-7871	인천시 서구	www.kmbeam.co.kr
(주)엔에스홈	종합건축자재	박찬규	031-767-9400	경기도 광주	nshome.net
영림목재(주)	목재내외장재	이경호	032-811-9051	인천시 남동구	www.younglim.com
주삼익산업	독일창호디크닉	김중근	1588-3648	경기도 광주	www.siwood.com
(주)우딘HAUS	Eco-friendly	강원선	032-578-8500	인천시 서구	www.wood.co.kr
주우드존	목구조내외장재	선 행, 서양오	1600-1432	광주시 서구	www.woodzone.co.kr
주우드뱅크	석고각재방부목	이태호	032-581-4494	인천시 서구	www.woodbank.net
주진흥인터내셔널	종합외장재	박진영	1644-2111	경기도 이천	www.jhint.co.kr
주케이씨에스	건축용타이백	이상욱	02-467-8740	서울시 광진	www.koreacns.com
주명성우드	목조주택자재	조영찬	1899-3327	경기도 양평	www.mswood.net
윈코	불연스카이텍	이연세	02-3272-0661	서울시 마포	www.winco.co.kr
한림에이치우드(주)	목조주택자재	최정상	1544-0488	충청북도 청주	www.hnhwood.com
전일목재산업(주)	목조주택자재	김병진	063-545-3131	전라북도 김제	www.jiwood.co.kr
주해강인터내셔널	기밀/단열/방수	이정현	02-416-1511	서울시 송파	www.hibm.co.kr
유니우드(주)	세르파/스타코	구본성	02-478-7504	경기도 하남	www.uniwood.kr
애니우드	목구조내외장재	곽은혁	031-321-0366	경기도 용인	www.anywood.net
우림주택	연결보강철물	권기병	031-764-6799	경기도 광주	www.megatie.com
주채우림	편백나무전문	최성근	031-821-1662	경기도 의정부	www.chaewoorim.co.kr
패시브웍스	열회수환기장치	이상근	031-5186-6158	경기도 수원	www.smartvent.co.kr
주지이그룹	프리컷중목구조	김병훈	031-773-2348	경기도 양평	www.gehome.co.kr
주케이디우드테크	건축목재마감재	홍 활	02-3401-5525	서울시 송파	www.kdwoodtech.com
주현성종합목재	목조주택자재	성기연	031-798-4455	경기도 광주	www.hyunseongtimber.co.kr
주하농	마루, 주방, 가구	이정빈	02-515-2626	서울시 강남	www.haanong.com
주미도커뮤니케이션즈	마루바닥재	임훈택	032-213-6832	인천시 동구	www.marucall.com
이우코퍼레이션(주)	종합자재시공	이우정	02-6081-2528	서울시 금천	www.ewcorp.kr
주커널시스템	단열현관문	전재완	031-366-0871	경기도 화성	www.kehy.co.kr
주용기	시스템창과문	김응규	031-852-2100	경기도 의정부	www.yungki.com
주가온우드	방염및난연목재	김영윤	063-224-7400	전라북도 전주	www.gaonwood.com
주이루카씨엔티(유로벤트)	투습방수지	조성훈	010-5261-9889	서울시 성동	www.eurovent.de
주지복득마루	수입원목마루	임윤호	02-576-7736	서울시 강남	www.jibokdeukmaru.com
주케이에스우드	목구조내외장재	박종원	031-333-5100	경기도 용인	kswood.co.kr
주케이에스	건식온수온돌판넬	박병서	043-534-2932	충청북도 진천	www.ondoly.kr/index.php
주엣홀건축	수입건축외장재	유혁민	031-216-2625	경기도 광주	www.athomem.co.kr
동화기업(주)	동화구조용보드	김홍진	032-770-9305	인천시 중구	www.dongwha.com
조은우드	목구조자재일체	손주실	031-775-0303	경기도 양평	con65@naver.com
이건산업(주)	합판/목질바닥재	이길수	032-760-0366	인천시 미추홀구	www.eagonstore.com/front/main.do
주지이티코퍼레이션	목재(CLT)/우드펠릿	권상현	032-832-2030	인천시 연수구	www.getcorp.co.kr
클트라스시스템창호	알루미늄시스템창호	홍형준	054-773-0410	경상북도 경주	cultrasystem.com/
주LX하우시스	독일식시스템창호	한명호	010-9850-6361	서울시 중구	www.lxin.com

주파셈	MAMA-6H / 8H	김현승	033-373-1349	강원도 영월	www.pacep.co.kr
로쏘블라스코리아 유한회사	기밀/수밀 자재	최상혁	010-4380-1348	서울시 금천	www.rothoblaas.com
철벽방수	방수관련제품	이용국	1899-8584	대전시 중구	www.철벽방수.com
베어마운틴코리아(주)	목재(CLT) 건축 자재	장목순	033-251-0015	강원도 춘천	bearmountain.org

Photo Copyright

세컨스라이브러리 © 김용성
설해원 클럽하우스 © 김용관, ARCHFRAME
원서 작업실 © 김용성
진주백년공원 ©노경
무너미 스튜디오, 수유 하우스 © 김태운
사봉밥집 © 석정민
용대보건진료소 ©김용수
하늘목장 양 먹이주기 체험장 © 김창묵
토끼뜰 © 김영진
이우집 © 노경

2024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KOREA WOOD DESIGN AWARDS

www.kwda.or.kr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협회

기획 :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운영위원회

발행일 : 2024년 11월

* 본 작품집에 소개된 사진과 원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각 작품의 건축가와 사진작가의 서면 허락 없이 사진 또는 내용의 일부를 발췌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